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 보존과 활용’ 심포지움

2024. 11. 7.(목) 14:00 - 17:0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목차

개회식 인사말 및 환영사		6p
기조발표: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박찬승(한양대)	10p
발표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	신웅주(조선대)	32p
발표2: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	김종순(전남대)	62p
발표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 방안	장우권(전남대)	82p
발표4: 광주학생독립운동 현장 활용방안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106p
토론문: 토론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에 대한 토론문	최정미(건축문화연구소)	132p
토론2: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에 대한 토론문	이수진(동신대)	138p
토론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방안"에 대한 토론문	명동호(전남대)	142p
토론4: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 유산 지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보름(빛고을역사교사모임)	146p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 보존과 활용’ 심포지움

순서 및 일시	내용
개 회 14:00-14:05	인사말 및 환영사(05')
주제발표 14:05-16:00 — 사 회 박은빈(전남대)	기조발표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20') 박찬승(한양대)
	발표 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20') 신웅주(조선대)
	발표 2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20') 김종순(전남대)
	휴 식(15')
	발표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 방안(20') 장우권(전남대)
발표 4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 유산 지정 및 활용방안(20')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16:00-16:10	휴 식(10')
종합토론 16:10-17:00 — 좌 장 한규무(광주대)	토론자 토론1 최정미(건축문화연구소) 토론2 이수진(동신대) 토론3 명동호(전남대) 토론4 김보름(빛고을역사교사모임)

인사말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11월을 맞이하여 광주와 나주의 학생독립운동 유적 현장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후에는 광주-나주학생독립운동 1백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백주년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는 올해부터 뜻있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광주광역시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주학생운동의 역사 현장 보존과 활용>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이 진행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조 발표를 맡아 주신 한양대 박찬승 명예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발표를 맡아 주신 조선대 신웅주 교수님, 전남대의 김종순 장우권 선생님, 그리고 남도역사연구원의 노성태 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발표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토론의 좌장은 광주대의 한규무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최정미(건축문화연구소) 이수진(동신대) 명동호(전남대) 김보름(빛고을역사교사모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광주-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의 하나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그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국가적 선양이 이루어졌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역사 현장 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처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광주-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이 국가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가치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학술 세미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강기정(광주광역시장)

깊어 가는 가을 속에 귀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홍영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달 광주는 기념일 같은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아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이자 37년 만에 광주에서의 우승 그리고 GGM의 캐스퍼 전기차 수출까지. 모두 광주의 힘입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정신이 세계 보편적 가치임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은 참으로 값진 의의입니다. 세계가 광주를 주목하고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광주의 더 많은 가치와 이야기들을 알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주학생독립운동>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일어난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 독립운동으로, 해외까지 전파되어 한인동포의 해외 독립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 규모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이자 광주의 자랑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1월 3일이 2006년에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되고, 2018년부터 기념식이 정부행사로 격상되는 등 국가차원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며 그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상지가 시 지정문화유산에 불과하여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모아주실 지혜들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조발표

●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
박 찬 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박 찬 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1. 서론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한일학생 간의 집단충돌사건이 발단이 되어 전국 300여 개 학교¹⁾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와 맹휴 등을 전개하여 민족의 독립을 외치면서 총궐기했던 운동으로서 흔히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식민지시대 3대 국내 독립운동의 하나로 손꼽힌다.

식민지시대의 항일학생운동은 이미 2·8독립선언, 3·1운동, 6·10만세운동 등을 통하여 학생층이 항일민족운동의 전위임을 과시한 바 있었다. 그것은 한말 이래 신교육을 받은 첫 세대로서 신지식층을 형성하게 된 이들 학생층이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가 갖는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또 노동자·농민, 기타 사회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조직화되기 쉬웠다는 조건에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운동은 1920년대 후반 가장 조직적인 모습을 띠고 전개되었고, 이것이 마침내 1929년 광주 학생들의 봉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듬해 봄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거대한 학생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즉 1929년의 학생독립운동은 단순한 한일학생 간의 집단충돌사건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말부터 192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의 역사가 축적된 위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의 결산과 같은 운동이었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0년대의 국내 민족해방운동이 19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운동의 인적 역량을 공급하고, 그들을 단련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제 이 글에서는 1929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한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

- 3·1운동 이후를 중심으로 -

1) 정치적 배경

3·1운동으로 표출된 민족의 독립의지는 일제의 무단폭압통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1) 2006년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의뢰로 조동걸, 박찬승 교수 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학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29년 11월 3일부터 1930년 봄까지 광주학생봉기에 호응하여 참가한 학교는 320개교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학교 명단』, 광주광역시교육청, 2006, 16쪽 참조. 한편 김성민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서 국내에서 251개교, 간도 등 해외에서 30개교를 포함하여 281개교, 학생수 최소 54,000여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하고 있다. 참여학생수가 54,000명이었다는 집계는 총독부 경찰당국의 것이다.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384~385쪽.

만들었다. 그리고 일제측에서도 1910년대의 무단통치를 통하여 조선의 사회경제구조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무단통치를 지속할 필요도 없었다. 이에 일제는 ‘개량적인 통치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이른바 ‘문화정치’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그 ‘문화정치’는 총독무관제의 폐지, 헌병경찰제도의 폐지, 일반교원과 관리의 대검 폐지, 관제개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제한적 허용, 산업개발 등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문화정치’의 진정한 의도는 ‘개량적인 통치방식’을 통해 민족운동의 분열을 유도하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1920년의 지방제도 개정을 통하여 부협의회, 면협의회 등을 설치함으로써 일부 지주와 자본가들을 통치협력세력으로 포섭하는 등, 1910년대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던 친일적인 통치협력세력을 크게 늘림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제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에게 언론사나 반일적이지 않은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고, 온건한 ‘문화운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족운동의 방향을 보다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주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한편으로는 친일세력의 포섭, 민족운동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경찰력까지 동원하여 강력히 탄압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여전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운동 등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역시 강력히 탄압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문화정치’는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의 모순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던 학생층이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의 길로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일제는 191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통치의 기본방침이던 ‘직접통치’와 그것을 위한 ‘동화정책’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았다. 여기서 조선민족을 일본민족에 동화시킨다는 ‘동화정책’이란 곧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조선인을 일본에 충성하는 신민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방침 위에서 모든 정책은 수행되었고, 특히 교육은 ‘동화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는 조선인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여기서 학생들의 ‘민족차별교육과 식민지노예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는 외침이 나오게 되었다.

2) 사회경제적 배경

1910년대를 통하여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일본의 자본가와 지주들의 조선에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갖추고,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의 회사의 농장체제와 일본인·조선인 지주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지주제를 확립함으로써 식민지에서의 농업수탈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는 자본의 급속한 축적과 인구 급증으로 농민의 대량 이농과 도시노동자의 급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결국 식량부족이라는 사태를 가져왔다. 일제는 이와 같은 일본 내의 쌀 부족 현상을 식민지 조선에서의 쌀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여기서 입안된 것이 이른바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1910년대에 구축된 쌀 단작형 농업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개간사업과 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 쌀 수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간사업은 주로 일본자본의 대농장회사가 국유미간지나 간석지를 불하받은 뒤, 조선농민을 동원하여 개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조선농민들은 상당한 기간 소작료면제, 소작권확보 등의 조건으로 개

간에 참여하였으나 개간이 끝난 후에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수리시설 확충사업은 각지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농민들을 가입시켜 저수지 등을 축조,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리조합비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많은 자작농이 토지를 팔고 소작농민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지주조차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일본인 지주 등 상당한 재산을 갖춘 일부 대지주만이 이 사업을 이용하여 토지소유를 확대할 수 있었다. 산미증식계획이 진행되면서 소작농민에 대한 수탈도 강화되었다. 지주들은 수리조합비를 소작농에게 떠넘겼으며, 농사개량이라는 명목으로 금비(金肥) 사용을 강제하였다. 또한 지주들은 소작료를 5~6할까지 인상하는 등 고율소작료를 강제하였다.²⁾ 결국 1920년대를 통하여 지주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 자작농과 소작농은 지속적으로 몰락하여 이농과 국외 이주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호남지방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농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었다. 또 이전의 국유지를 불하받은 동양척식회사의 농장이 곳곳에 설치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선인 농민들이 동척과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고율소작료를 감수하면서 소작을 해야 했으며, 점차로 밀려오는 일본인 이주농민들에 의해 그나마도 빼앗길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또 호남지방의 넓은 평야는 일본으로의 미곡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곡창으로, 호남지방에서 생산된 쌀은 군산과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대량으로 실려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호남지방의 학생들은 일제의 이와 같은 경제적 수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특히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을 만든 나주지방에는 동척의 대규모 농장을 비롯하여 일본인 농장들이 산재해 있었고,³⁾ 이곳에서 생산된 쌀이 영산포를 통하여 목포항을 거쳐 일본으로 실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3) 국내의 민족해방운동

3·1운동 이후 국외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수행을 위해 임시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는 당시의 거의 모든 정파가 참여하였다. 임시정부는 국내에 연통제 등의 조직을 만들어 정보와 자금을 수합하고 국내의 민중에게 독립의 희망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파리강화회의, 워싱턴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하여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3·1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나자 만주와 연해주지역에서는 그간 독립전쟁을 준비해오던 이들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폈으며, 그 결과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와 같은 커다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2)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의 소작관행』에 의하면, 소작에서 定租制(정액제)의 경우 전에는 보통 생산고의 3~5할을 소작료로 받았으나, 1930년경에는 보통 생산고의 4~6할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 타조제의 경우에는 전이나 지금이나 보통 소작료의 5할을 받는다고 하였다. 執租制의 경우에는 전에는 지주가 3분의 1, 소작인이 3분의 2를 갖고 공과금은 소작인이 부담하였는데, 지금은 지주와 소작인이 생산고의 5할씩을 나누며, 공과금은 지주 또는 소작인이 납부한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시기에 들어와 소작료가 전보다 대체로 인상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총독부, 『朝鮮の小作慣行』 상, 135쪽.

3) 1930년 당시 나주 영산포 인근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약 1,100정보), 동산농사주식회사(2,084정보), 구로즈미 이타로(1,098정보) 등을 비롯하여 일본인 개인지주의 농장도 상당히 많았다. 박찬승, 『혼돈의 지역 사회』 상, 2023, 한양대출판부, 252쪽.

국내에서도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3·1운동 직후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신문화건설’과 ‘실력양성’을 내걸고 청년회운동, 신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화운동’은 일종의 계몽운동으로서 근대 문화의 대중적인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신교육운동으로서 전개된 각종 학교설립운동은 3·1운동 이후 급격히 고양된 교육열을 수용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문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던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한계를 드러낸 1923년경부터 국내에서도 사회주의사상이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서 급격히 수용되었다. 당시의 지식층들은 이 사상을 식민지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념으로 이해하였다. 이같은 사회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아 사상단체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이 시기 민중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노동운동은 자유노동자의 임금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공장노동자의 단체계약권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1920년대 후반에는 대도시에 한정되던 노동쟁의가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으며, 영흥노동자파업(1928), 원산총파업(1929) 등 지역총파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농민운동도 1920년대 전반기에는 주로 소작인조합이 중심이 된 소작쟁의로 전개되다가 후반기에는 자작농까지 포함된 농민조합이 중심이 된 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전남지방에서는 1924년 이후 압해도·자은도·도초도·지도 등의 소작쟁의, 1927년의 구례군 농민의 수리조합 반대투쟁 등이 일어나 농민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흐름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가운데, 양자의 협동전선 결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져 갔다. 특히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자치운동 전개에 따라 이를 봉쇄하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과, 경제투쟁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의 움직임이 결합되어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창립 이후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를 두고 3만 9천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각 지방의 노동·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지도하였다.

192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위와 같은 국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동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전개되었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었다.

3.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동향

3·1운동 이후 학생운동의 양상은 ‘동맹휴교’(이하 줄여서 ‘맹휴’)로 대표된다. 1922년부터 1928년까지 각 학교에서 일어난 ‘동맹휴교’의 발생 건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920년대 동맹휴교의 발생 건수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합계
건수	23	52	57	14	48	55	72	83	404

* 자료 :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1929.2, 6~9쪽

<표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925년 이후 맹휴는 발생 건수에서 증가일로에 있었다. 이는 이 시기 학생운동이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1929년 말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그러한 학생운동 활성화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임을 이 표는 잘 보여준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77건), 함경남도(51건), 황해도(42건), 경상남도(38건), 강원도(29건), 전라북도(29건), 전라남도(28건), 평안북도(24건), 평안남도(20건), 충청남도(20건), 충청북도(17건), 함경북도(15건), 경상북도(13건)의 순으로 맹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중등학교가 많았던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사회운동이 거셌던 함경남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맹휴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에서 일어났을까.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2회 이상 맹휴한 학교

학교명	발생건수	학교명	발생건수	학교명	발생건수
광주고보	4	함흥상업	3	保光학교	4
해주고보	2	여수수산	3	濠信학교	2
전주고보	2	수원고농	3	정신여학교	2
경성제일고보	3	법학전문	2	개성학교	2
동래고보	3	보성고보	4	개성학당상업 학교	2
대구고보	2	양정고보	2	昭義상업	2
鏡城고보	2	松都고보	5	신흥학교	3
함흥고보	2	고창고보	6	송실학교	2
평양농업	2	중앙고보	2	敬愛학교	2
전주농업	3	휘문고보	6	북청고보기성 회강습회	2
함흥농업	3	오산고보	2	보성전문	2
사리원농업	2	영명학교	2		
춘천농업	2	의명학교	3		
북청농업	2	경신학교	5		

* 자료 :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1929.2, 13~14쪽.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이 시기 맹휴가 가장 활발했던 학교는 고창고보, 경신학교, 송도고보, 광주고보 등의 학교였다. 광주고보는 ‘광주항일학생운동’ 이전부터 이미 맹휴 등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학교 중의 하나였다.

그러면 이러한 ‘맹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일제 경찰당국은 맹휴발생의 원인을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 1) 학교설비, 校規, 校則, 學科 기타에 기인한 맹휴
- 2) 敎員배척에 관한 맹휴
- 3) 학교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기인한 맹휴
- 4) 生徒 간에 일어난 일에 기인한 맹휴
- 5) 지방문제에 관한 맹휴

6) 민족의식 및 좌경적 사상의 반영으로 인정되는 맹휴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민족의식 및 좌경적 사상의 반영으로 인정되는 맹휴’이다. 이에 해당하는 맹휴의 발생상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민족의식 및 좌경적 사상의 반영으로 인정되는 맹휴’의 발생상황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계
건수	4	4	3	3	3	3	19	37	74

* 자료 :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1929.2, 43~46쪽

<표 3>을 보면, 민족의식 혹은 ‘좌경사상’에 의한 맹휴가 1927년경부터 급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경찰당국은 그러한 전조가 이미 1926년 6월 6·10만세사건 당시 고려공산청년회의 김단야, 권오설 등이 작성하여 배포한 전단에서 나타난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보통학교장을 조선인으로! 중등 이상 학생의 집회를 자유로! 대학은 조선인을 중심으로!”라는 구호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호들이 1927년 이후의 맹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27년경부터는 그러한 맹휴들을 가리켜 이른바 ‘학교투쟁’이라고 부르는 등 신조어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1927년 민족의식 등에 기초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맹휴들은 다음과 같다.

- 1) 1927년 5월 숙명여고보의 맹휴 : 일본인 기숙사사감과 교무주임의 사퇴, 조선인 교원채용의 증가 등을 요구.
- 2) 1927년 6월 敎新학교의 맹휴 : 교무주임의 교체, 학우회를 학생에게 일임할 것, 조선역사를 가르쳐 줄 것 등을 요구.
- 3) 1927년 6월 보성고보의 맹휴 : 교우회의 학생자치, 교장 외 수명 교사의 사퇴, 학교경비명세서 제출 등을 요구.
- 4) 1927년 7월 함흥고보의 맹휴 : 학교를 식민지통치의 일 기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로운 학문선도의 장소로 삼을 것, 일본인 교사 3명을 사퇴시킬 것 등을 요구.
- 5) 1927년 9월 중앙고보의 맹휴 : 가혹한 교칙의 폐지, 동창회의 학생자치, 전제적인 최두선교장 외 수명의 교사 사퇴 등을 요구.
- 6) 1927년 10월 휘문고보의 맹휴 : 자작 민영휘의 동상건립 반대, 김형배교장 사퇴 및 학우회의 자치 등을 요구.
- 7) 1927년 11월 京城第一高普의 맹휴 : “현재의 교육방법은 조선혼을 양성하지 않고 일본놈의 압박하에 일본신민이 되고 마는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조선역사를 조선인 교사를 초빙하여 가르칠 것, 조선어교육의 철저를 기하고 조선어문법을 가르칠 것 등을 요구.⁴⁾

1928년에는 표면에 ‘민족의식’ 등이 표출된 맹휴가 3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

4)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1929.2, 49~64쪽

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1928년 5월 함흥고보의 맹휴 : 1926년의 '학교를 식민지통치기관으로부터 해방시킬 것' 등의 요구를 다시 내걸고 맹휴에 들어감. 학생들은 선전전으로서 '노예적 교육' '식민지차별 교육'의 철폐, 교내 학우회 자치제의 획득 등을 주장하는 「격문」을 조선내 각 중등학교와 재일본조선인단체에 발송. 이에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조선청년총동맹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신흥과학연구회에서 이에 호응하는 「격문」을 만들어 조선내 각지에 배포하여 학생들을 자극함.

2) 1928년 6월 동래고보의 맹휴 : 일본인 교사의 배척, 조선어 시간의 증가, 학교강연회에서 조선어 사용 등을 요구.

3) 1928년 6월 광주고보의 맹휴 : 불온선전비라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이경채에 대한 유죄 확정전 퇴학처분 철회와 조선인본위의 교육 등을 요구.

4) 1928년 7월 진주고보의 맹휴 : 노예적 교육의 철폐, 조선어시간의 연장, 조선역사 및 조선어의 교수, 교내 언론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

5) 1928년 9월 수원고농의 맹휴 : 동교 학생비밀결사사건으로 검거된 학생들에 대한 유죄 확정전 퇴학처분의 철회 요구

6) 1928년 9월 대구보고의 맹휴 : 교내의 학생 자치, 일본인 교사와 친일 조선인 교사의 사퇴,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을 요구.⁵⁾

위의 맹휴들 가운데 함흥고보의 맹휴는 「격문」의 전국배포 등으로 인하여 이후 각 학교의 맹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경찰당국도 이후의 전국적 맹휴를 모두 이 함흥고보 맹휴의 확대현상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맹휴들은 거의 비슷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1928년의 이른바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에 기초한 맹휴'에서는 조선어와 조선역사의 교육, 학우회의 학생자치, 교내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체적으로는 '식민지 노예교육의 철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로 요약되는 것이었다.⁶⁾ 이러한 성격의 맹휴가 1927, 28년 들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이 시기 학생운동이 상당한 정치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광주고보에서는 이 시기 어떠한 맹휴들이 발생하고 있었는가. 광주고보의 맹휴는 192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해 6월 광주고보생들과 在光 일인 선발팀과의 야구경기에서 광주고보가 1:0으로 리드하자 일인 의사 안도(安東)란 자가 운동장에 뛰어들어 심판의 판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였고, 이에 격분한 광주고보 선수들이 안도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급거 출동한 경찰에 광주고보 선수들은 검속되고 응원단은 광주경찰서로 몰려가 선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들은 맹휴로써 대항했다. 이 맹

5)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1929.2, 103~112쪽.

6) 1928년 9월 상순 재동경조선청년동맹의 맹원 와세다고등학교의 생도 金正洙 등은 학생스트라이크응호전 국동맹을 조직하고 대구고보 및 휘문고보 맹휴에 즈음하여 학생들에게 격문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슬로건이 "식민지노예교육을 타도하자"였고, 두 번째 슬로건이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라"였다.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에 있어서의 동맹휴교의 고찰』, 1929.2, 113쪽.

휴투쟁은 그해 9월 선수들이 석방됨으로써 수습이 되었지만, 고�광우 외 수명이 맹휴주동자로 지목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27년 5월 광주고보 학생들은 학교시설의 미비와 민족차별을 이유로 다시 맹휴를 감행했다. 당시 광주고보 교장이던 시라이(白井) 교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1928년 '이경채사건'이 발생했다. 이경채사건이란 당시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경채가 박병하와 함께 '조선독립'이란 네 글자를 'O'으로 표시한 선전비라를 만들어 도내 각 중학교의 학생동지들에게 배포하였다가 발각되어 검거된 사건을 말한다. 이때 광주고보 교장인 시라이 교장은 자신이 검찰에 나가 사건의 진상을 듣고 6월 19일자로 이경채를 퇴학 처분한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이경채의 체적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시라이 교장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당국과 맞섰다. 물론 학생들이 이경채가 퇴학당하고 구속된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학교당국이 이를 은폐하려는 소행을 빌미삼아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학생들의 속셈이었다. 학생들은 재판 결과 이경채가 무죄를 언도받으면 복교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교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학생들은 6월 26일 수업을 거부하고 2,3,4,5학년 학생들이 전원 강당에 모여 '교우회의 운영을 학생들 자치에 맡길 것', '학교당국이 약속한 물리·화학교실을 신축할 것', '이경채의 체적사유를 밝히고 무죄로 석방되면 복교를 약속할 것', '조선어문법과 조선 역사를 가르칠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채택하고 교문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맹휴투쟁을 개시하였다. 학교당국에서는 27일 긴급 교직원회의를 열고 주도자인 정동화 등 27명을 퇴학 처분하고 박세영·김기권 등 281명을 무기정학에 처하는 가혹한 강경책으로 임했다.

한편 학생대표인 정동하·박세영·서재호·김기권·임주홍·최규창 등은 7월 10일경 최규창의 하숙에 모여 결속을 더 굳게 할 것을 다짐하고 맹휴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학부형들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도쿄의 광주고보 졸업생들과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도 학교당국에 항의문을 발송하였다. 맹휴대책중앙본부에서는 20일경 학생들에게 결속을 당부하는 격문을 보냈다.

한편 도 학무당국과 학교측에서는 학부형들에게 학생들을 설득하여 등교하도록 해달라고 하고 동시에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학부형들도 학교 당국의 내심을 짐작하고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측은 거의 전교생이라 할 수 있는 3백 명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단행하고 학생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강경 대응도 여전히 계속되어 결국 광주고보의 맹휴는 다음 학기 초까지 계속되면서 수형자 14명, 40명의 퇴학자, 그리고 3백 명에 이르는 무기정학자 등 큰 희생을 내었다. 여기서 구속자는 7월 초 일부 학생들이 배반자 한 명을 응징하는 폭력을 행사한 결과로 구속된 학생 7명과, 맹휴주동자로 구속된 7명이었다.

한편 광주고보생들의 맹휴투쟁은 광주농업학교에 파급되었다. 광주농업학교생이 맹휴에 돌입한 것은 광주고보생들이 맹휴를 감행한 3일 뒤인 6월 29일이었다. 광주농업학교생 송성수·김윤성·유상걸·나석현 등은 6월 27일 평소 민족차별이 심하던 일인교사 모리오카(盛岡)를 배척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2~4학년 115명의 서명을 얻어 히라노(平野) 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을 질책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29일 맹휴를 단행하였고, 학교당국은 즉각 송성수 등 주동자 12명을 퇴학 처

분하고 동조자 103명을 무기징역에 처했다. 이에 격노한 학생들은 더욱 조직적인 맹휴투쟁을 위해 맹휴본부 아래 동원부, 연락부, 모계부, 탐정부 등을 부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7월 상순 맹휴본부는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라, 한일인 공학제 실시를 반대한다, 싸워라 싸워라 모국을 위해 최후까지 싸워라, 모국의 운명은 우리의 행동여하에 달려 있다” 라는 내용의 격문을 살포하고 학부형들과 타학교 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농업학교의 맹휴투쟁은 그해 10월까지 계속되었으며, 결국 투옥된 학생 중 송성수·김재룡·유상걸·김윤성·나석현 등 5명은 광주지법에서 8개월 내지 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⁷⁾

4. 광주학생 비밀결사 - 醒進會, 讀書會, 少女會

1920년대 후반 각지에서 학생비밀결사가 조직되던 시기 광주에서는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성진회와 그 후신인 독서회, 그리고 광주여고보 학생들의 소녀회 등이 조직되었다.

성진회는 1926년 9월 당시 광주고보 학생이던 장재성(張載性), 왕재일(王在一)과 광주농업학교 학생이던 박인생(朴仁生)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평소에 일제의 조선지배에 반감을 품고 조선독립을 꿈꾸어 온 민족의식이 강렬한 이들로서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던 사회주의사상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 중 자신들과 동일한 사상을 품고 있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1926년 3월 임주홍, 정우채, 김광용, 안종익, 김창주, 최규창, 채영석, 정남균, 김한필, 정종석, 국순엽, 문승수, 정동수 등과 함께 최규창의 하숙방에서 모임을 갖고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그 명칭을 왕재일의 제의에 따라 ‘성진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들은 또한 강령으로서 1) 일제의 기반에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2)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3)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각 부서로서 총무 왕재일, 회계 장재성, 서기 박인생을 두었으며, 매월 첫째와 셋째 주의 토요일을 정기집회일로 정하고 경비는 10전씩의 월회비를 거출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각자가 회원의 확충에 노력하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다짐하였다.⁸⁾

그러나 성진회는 결사 5개월만인 1927년 3월 정남균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 전술상 해산을 결의하였다. 그것은 회원 중의 한 사람이 광주경찰서의 형사와 혈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진회의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어, 이 회원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성진회는 비밀보장을 위해 연합 모임은 갖지 않았지만 각 학교별로 활동을 하게 된다. 또 1927년 11월에는 김태호의 집에서 김복만, 김재룡, 유상걸, 주당석, 유치오, 정동수, 문승수 등이 회합하여 조선의 독립도모와 사회주의의 연구를 다시 결의하였고, 1928년 2월에는 지용수의 집에서 당시 광주지방 청년운동의 지도자인 강해석(姜海錫), 지용수(池龍洙)의 지도 아래 임주홍, 최규창, 김광용, 문승수, 정종석, 김인수, 주당석, 유치오, 하의철, 이동선, 박무길, 정귀석, 임종근 등이 모임을 갖고 역시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⁹⁾

그런데 1928년 6월 이들 중 광주고보에서는 김몽길, 김시성, 최규창, 임주홍 등이 주모가

7) 「광주농업학교 동맹휴교사건 판결문」 참조.

8) 「광주학생비밀결사 ‘성진회사건’ 예심종결서 및 동 판결문」

9) 위와 같음.

되고, 광주농업학교에서는 김복근, 김재룡, 유상걸, 유치오, 주당석 등이 주모가 되어 동맹휴교를 단행했다. 그 결과 이들 주모자들이 퇴학당하고, 또 일부는 검거됨으로써 성진회는 붕괴위기에 처했다. 이에 그해 11월 김시성의 하숙집에서 광주고보의 김상환, 김보섭, 김몽길, 여도현, 김시성은 회합을 갖고 활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은 이후 더욱 늘어나 1929년 6월에는 20여 명에 달하였다. 또 광주사범학교측에서도 1929년 4월경 송동식, 강문범, 황상남, 신명철, 신휴근, 이춘수, 김종화, 홍귀주 등이 임종근, 김기주 등 6명 동지의 졸업을 맞아 모임을 갖고 역시 활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광주농업학교측에서는 동맹휴교 당시부터 같은 목적으로 주당석, 유치오의 지도하에 2개 반으로 나누어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1929년 3월 이들이 졸업한 뒤에는 조길룡, 이영범, 김남철이 3개 반, 20여 명의 참가자들을 지도하였다. 10)

이같이 성진회의 후속조직으로서 비밀결사가 각 학교별로 조직되어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1929년 6월경 도쿄의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재학 중이던 장재성이 광주에 돌아와 각 학교의 비밀결사를 보다 조직화할 것을 각 학교 비밀결사 간부들에게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앞의 세 학교의 동지중 김상환·김보섭·윤창하·송동식·강달모·조길룡·김복한 등 7명이 장재성과 함께 6월 중순 모임을 갖고 '독서회중앙부'(讀書會中央部)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여 장재성이 책임비서로서 회를 통솔하고, 김상환·김보섭은 조사선전위원, 송동식·김순복은 조직교양부 위원, 조길룡은 출판부위원, 강달모·윤창하는 재정부 위원을 각각 맡기로 하고, 부원은 1주 1회 회합 협의할 것, 중앙부원에 의해 각 학교별로 중앙부와 비슷한 조직을 결성하여 중앙부가 이를 연락 통일할 것, 각 학교별 조직원에게는 중앙부의 존재를 절대로 비밀로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고보의 김상환·김보섭·윤창하·김대원·오쾌일은 장재성과 회합을 갖고 광주고보내의 독서회 결성에 대해 협의하여, 6월 하순 동지 약 20명을 권유하여 무등산에 집합하여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독서회의 조직으로서 4부서를 두어 김상환이 회 대표 겸 조직교양부원, 윤창하·박기원·이영범을 조사선전부위원, 오쾌일·김대원을 조직교양부위원, 김보섭·이형우를 재정부위원으로 정하고, 전 회원을 5개 클럽으로 나누어 오쾌일·김보섭·김상환·윤창하·김대원을 각 클럽의 대표로 하여 클럽별로 사회주의의 연구를 할 것, 장재성은 회의 외부에서 회를 지도할 것, 회비는 매년 20전으로 할 것, 회원은 비밀을 엄수할 것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 같은 해 9월 회원들 간에 의견충돌이 생겨 독서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농업학교측에서는 역시 6월 하순경 조길룡·김순복 등 18명이 장재성과 함께 무등산에 집합하여 광주고보와 동일한 비밀결사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조길룡을 회 대표 겸 재정부위원, 이영범·권수동·정해두를 조사선전부위원, 김남철·정욱·최정기·김순복을 조직교양부위원으로 하고, 회원을 4개 클럽으로 나누어 조길룡·이영범·정욱·김순복을 각 클럽의 책임자로 하고, 클럽별로 회합하여 사회주의연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활동을 계속하였다.

광주사범학교측에서는 7월 초순 송동식·이신형 등 14명은 수피아여학교 뒷산에서 회합을 갖고, 광주고보·광주농업학교의 독서회와 동일한 목적의 독서회를 결성하기로 협의하고, 9월 중순 장재성과 함께 광주형무소 뒷산에 모여 기존의 광주사범학교 비밀결사를 독서회로 정

10) 「광주학생 비밀결사 '독서회사건' 예심종결서 및 동 판결문」

식 개편하였다. 그리고 송동식을 회 대표, 이신형을 조사선전부위원, 강문범을 조직교양부위원, 강달모를 재정부위원으로 정하고, 회원을 5개 반으로 나누어 이신형·황상남·이영백·김재용·박노기가 각 클럽을 지도하기로 하고, 클럽별로 사회주의연구 활동을 계속하였다.¹¹⁾

또한 장재성 등 독서회중앙부 회원들은 독서회원들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독서회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서회원들로부터 1인당 3원씩의 비율로 3백 원을 징수하고 김기권이 5백 원, 나승규가 1백 원을 출자하여 소비조합을 설립할 것을 협의 결정하고, 이에 따라 광주고보 학생들이 90여 원, 사범학교 및 농업학교 학생들이 각 50여 원, 광주여고보 학생들이 30여 원을 출자하고 김기권이 5백 원을 출자하여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장재성의 이웃이 조합이 경영하는 문방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를 독서회원들의 집합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¹²⁾ 한편 광주여고보에서는 장재성의 누이동생 장매성이 중심이 되어 1928년 11월 10명이 역시 '소녀회'라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매월 1회 모임을 갖고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광주시내 각 학교에서 독서회가 결성되어 활동함으로써 이에 참여한 학생들의 현실인식은 보다 날카롭게 다듬어졌을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독서회가 독서회중앙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지도됨으로써 각 학교 학생들의 조직화가 훨씬 용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커다란 구실을 하게 된다.

5.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발

1) 발발 직전의 정세

1928년의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의 맹휴투쟁의 여진은 다음 해인 1929년에 들어와서도 꺼질 줄을 몰랐다. 수십 명의 맹휴퇴학생들과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20여 명의 학생들은 재학생들과 긴밀한 제휴를 갖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하기 위한 전열의 재정비를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학교당국은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처하여 반항기질이 농후한 학생들을 협박하여 자진 퇴학시키는 이른바 '유시퇴학'(諭示退學)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동요를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1929년 3월 23일 광주고보에서는 학년말 종업식장에서 훈화를 하기 위해 등단한 시라이 교장에게 돌연 한 학생이 유시퇴학의 사유를 힐문하자 식장에 도열했던 수백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이에 겁이 난 교장이 훈화를 중단하고 교장실로 도피하자 학생들은 교장실로 쫓아가 교장실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당황한 시라이 교장은 급히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여 김몽길·여도현·김경술·하길담 등 다수 학생이 피검되었다. 결국 피검자 중 앞의 네 학생은 광주지법에서 모두 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¹³⁾

이후에도 광주학생들의 항거는 끊임 줄을 몰랐다. 6월 하순에는 운암역 통학차 내에서 조선인을 가리켜 아만인 운운하는 일인 중학생을 광주고보생 수명이 응징한 일이 있었다. 또 1928년의 맹휴기념일인 6월 26일에는 일부 학생들이 학내에서 동요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즈음 광주고보, 광주농교, 광주사범의 3개교 학생들은 비밀결사 독서회중앙부를 조직함으

11) 위와 같음.

12) 「광주학생비밀결사 '성진회사건' 예심종결서 및 판결문」

13)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74, 54쪽.

로써 광주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더욱 조직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폭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하오 나주역 출찰구를 벗어난 한일 기차통학생들의 충돌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일단의 일인 광주중학생 후쿠다(福田), 쓰에기치(末吉), 다나카(田中) 등 몇 명이 같은 기차 통학생이던 광주여고보 박기옥(朴己玉), 이광춘(李光春), 암성금자(岩城錦子) 등 한국인 여학생들을 차중에서부터 희롱하고 나주역에서 이들을 뒤에서 밀치는 등 행패를 저질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朴準埰, 광주고보 2년생)가 격분하여 출찰구를 나오자마자 후쿠다를 불러세우고 “너는 명색이 중학생이 된 놈이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은 야비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후쿠다는 “뭐라고, 네가 그럼 어쩔테냐. 센징(鮮人)이 까불긴”하고 맞섰다. ‘센징’이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준채의 주먹이 후쿠다의 얼굴을 향해 날았다. ‘센징’이란 말은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 호칭이었고, 이 말에 박준채의 민족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어 박준채와 후쿠다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때마침 기차편으로 광주에 다녀오던 나주경찰서 경찰 모리타(森田)는 이 싸움을 보고 달려와 불문공격하고 박준채를 힐문하고 뺨을 때렸다. 이에 광주고보생들은 일제히 항의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모리타는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학생들을 해산시켰다.¹⁴⁾

그런데 다음날 31일 상학차(上學車)와 하학차(下學車)에서도 박준채와 후쿠다 간에 언쟁이 있었고, 하학차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일인 차장이 달려와 싸움을 말리고 2등차실로 데려가 주로 박준채를 훈계했다고 한다.¹⁵⁾ 다음날인 11월 1일 오후 또 충돌이 있었다. 하학차가 광주역을 출발하기 직전 돌연 일인 광주중학생 30여명이 광주역으로 몰려와 ‘박준채를 내놓아라’고 외쳤다. 이를 본 광주고보생을 비롯한 한인 학생 20여명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개찰구 목책을 사이에 두고 일인 학생들과 대치하였다. 이때 급보를 듣고 달려온 양교 교원들과 역직원,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로 학생들의 충돌은 면할 수 있었다.¹⁶⁾

그러나 이 사건이 있는 후 광주 시내의 공기는 대단히 긴장되어 양교 학생은 몇 명씩 짝지어 다니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긴장은 마침내 11월 3일 폭발하고 말았다. 11월 3일은 일제의 소위 4대 명절의 하나인 명치절이었다. 일제는 이날이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소집하여 소위 명치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광주에서 ‘전남산천백만석돌파경축대회’(全南産蕪百萬石突破慶祝大會)라는 것을 열어 축하분위기를 만들려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참을대로 참아온 광주고보생들의 분노는 거의 폭발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고보생들은 명치절 기념식에서 일본국가 기미가요 제창시침묵으로 저항하고 식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씩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중 일단의 학생들은 광주일보사로 몰려갔다. 당시 광주일보는 일제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신문으로서 그동안의 한일 학생들의 충돌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한국인 학생들의 격분을 사왔던 것

14)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11.3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1999, 11~19쪽에 자세히 서술함.

15) 『조선일보』 1929년 11월 5일자.

16) 『조선일보』 호외 1929년 12월 28일자.

이다. 학생들이 신문사에 몰려가 항의를 하는 도중 누군가가 운전기에 모래를 뿌렸다. 한편 또 다른 일단의 학생들은 우편국 앞에서 일단의 일인 중학생들과 부딪쳐 시비가 벌어졌다. 이들 일인 중학생들은 신사 참배 후 귀로에 광주천 부근에서 광주고보생 최쌍현(崔雙鉉)을 단도로 찌르고 도주해온 자들이었다. 일인 중학생들은 형세가 불리하자 광주역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이때 일인 중학생 수십 명이 이다(伊田)라는 유도교사 인솔하에 야구배트, 죽검(竹劍) 등을 들고 광주고보생 타도를 외치면서 광주역 쪽으로 몰려왔다. 당시 광주역에는 한인 통학생 수십 명이 기차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 급보는 즉각 광주고보 기숙사에 전해졌다.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일제히 뛰쳐나와 야구배트, 학교 창고의 농기구 등을 들고 광주역 쪽으로 뛰어갔고, 광주농업학교생 수십 명도 이에 합세하여 한인학생들과 일인학생들간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광주역전은 일대 수라장이 되었고, 돌발한 충돌 현장에 군중들이 몰려왔다. 이때가 오전 11시경이었다.

이 급보에 접한 광주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려 전 경찰력과 기마경찰대, 소방대에까지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이때 양측의 학생수는 약 2백 명 내외로 대등했으나 사기에서는 한인학생들이 압도적이었다. 마침내 일인 학생들이 패주하기 시작하자 한인 학생들은 사기가 올라 담양가도까지 일인 학생들을 추격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출동한 광주경찰서의 경찰들이 한인 학생들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현장에 달려온 양교 직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일인 중학생들이 먼저 퇴각하자 한인 학생들도 현장에 달려온 장재성의 중용으로 일단 광주고보로 철수했다.¹⁷⁾

광주고보로 돌아온 학생들은 강당에 집결하여 노병주의 사회로 사건 경위의 보고를 듣고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때 오쾌일(吳快一)이 연단에 올라 “오늘의 대승리를 신천지의 동포들에게 알리고 일제 타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의하였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환호하며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고보생들이 일제타도의 시위행진을 결정하자 광주역에서 철수할 때 함께 온 광주농업학교생 최태주(崔泰周)가 광주농업학교생들도 시위대열에 동참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한편 장재성은 이때 교장실과 교무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와타나베(渡邊) 교감에게 오늘의 불상사는 광주중학생들의 계획적인 도발로 일어난 것인 만큼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이 이대로 분산 귀가하다가는 도중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니 전교생이 함께 나가 몇 개 지점에서 방면별로 분산 귀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통학생들은 교직원들이 호송할 것도 제의했다. 이는 장재성이 학생들을 시위에 동원하기 위해 위장 제의한 것이었다. 그러한 속셈을 알 리 없었던 교감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고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인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당시 장재성이 학교당국자들에게 단순히 모범졸업생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데에 힘입은 것이었다.

학교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위행진을 허락받은 학생들은 강당에서 몰려나와 창고에 있던 실습농기구와 각목으로 무장하고 대오를 지어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이때 교문에는 이미 최태주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농업학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시위대열에 합류하였다. 학생들을 호위하기 위해 나왔던 교사들은 학생들이 시위대로 돌변하자 당황했으나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¹⁸⁾

17)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74, 56쪽.

18) 광주제일고등학교동창회, 『광주고보·서중·일고 육십오년사(1920-1985)』, 1986, 171쪽.

시가지로 진출한 시위대는 “신천지에 휘날리는 우리 동포야. 길이길이 기다리던 오늘 왔구나. 무등산에서 단련한 기술로 용감히 적군을 물리치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사기를 북돋웠다. 시위대가 충장로를 지날 때 시민들은 각목, 장작개비를 내놓았으며,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통치마 앞자락에 호빵을 수십 개씩 가져오고 큰 바가지에 물을 떠 오기도 하였다. 또 사범학교 학생들도 시위대열에 합류하였다. 학생시위대는 중심가를 누비며 “조선독립만세” “식민지노예교육 철폐” “일본인 학교 광주중학교를 폐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교가와 응원가를 불렀다.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연도의 일반 시민들도 행렬에 합세하여 시위대는 대군중을 이루었다.

시위대가 독립병원 앞에 이르렀을 때 광주경찰서 고등계 주임 나베지마가 인솔하는 1백여 명의 경찰대가 가로막아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해산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불응하자 나베지마는 다시 학생들에게 들고 있던 야구배트, 장작개비, 농기구등을 앞으로 던지라고 명령했다. 역시 불응하자 그는 장검으로 학생들의 팔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순사들에게도 칼을 빼라고 명령했다. 이에 학생들은 이제 시위도 할 만큼 했고 따라서 잔인한 일본경찰에게 공연한 희생을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각목 등을 앞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학생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않고 양림동 쪽을 거쳐 광주천변을 따라 학교로 전원 무사히 돌아왔다. 이로써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날의 시위는 저녁 5시경에 일단 끝났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강당에 집결하자 와타나베 교감은 “오늘의 사태를 논하기 전에 이처럼 고조된 분위기에서는 수업을 할 수 없다”면서 3일간 휴교를 선언하였다. 학생들은 휴교 중의 비상연락망을 조직하고, 각 방면으로 집단을 지어 귀가하였다. 이 충돌사건 후 일인 학교의 학부형들은 관계 요로에 진정하여 보복적인 강경책을 요구하였고, 불안하여 살 수가 없으니 군대를 주둔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당국도 마침내 강경책으로 방침을 정하여 4일 오후부터 검거선봉이 불어 11일까지 70여 명의 학생들이 검거되고 그중 62명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광주학생들의 봉기는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일제 경찰은 즉각 보도통제를 하여 사건의 언론보도를 금지시켰다. 이에 경성의 신간회 본부에서는 11월 5일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사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 허헌(許憲)과 서기장 황상규(黃尙奎), 회계 김병로(金炳魯)를 광주에 특파하였다. 그밖에 청년총동맹, 학생전위동맹에서도 광주에 와 진상조사를 하였다.

한편 11월 3일 이후 장재성은 강석천(姜錫天)·강석원(姜錫元)·박오봉(朴五鳳)·국채진(鞠塚鎭) 등 광주의 사회단체 간부들과 만나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후속투쟁을 전개할 것과 전국적인 학생시위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광주 및 전조선 학생의 쫓기는 장석천이, 광주학생의 쫓기는 장재성이, 도내 지방학생의 쫓기는 국채진이, 직공 및 노동단체의 쫓기는 박오봉이, 도내 공립보통학교 교사와의 연락은 임종근(林鍾根)이, 외래 동지와의 연락은 강석원이, 운동자금의 조달은 나승규(羅承奎)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¹⁹⁾

이에 장재성은 각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독서회원들을 중심으로 2차 쫓기를 준비하였다. 10일 밤 장재성은 광주고보의 오쾌일(吳快一)·이영범(李榮範), 광주농업학교의 김남철(金南哲)·정욱(鄭昱), 광주사범학교의 이신형(李信珩)·황상남(黃相南) 등과 회합을 갖고 11일 수업

19) 강재언편,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1979, 364쪽

시간 시작과 함께 세 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시위를 감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세 학교는 10일부터 수업이 재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11일보다는 장날인 12일로 거사날짜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12일로 하루 미루어졌다. 장재성은 11일 ‘조선민중이여 쫓겨하라’와 ‘학생대중이여 쫓겨하라’는 등의 4종의 격문을 작성하였으며, 그 안에는 “검거된 학생은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는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장재성은 이들 전단 문안을 오쾌일에게 전달하였다. 오쾌일은 등사판을 이용하여 4종의 전단 약 1천 장을 인쇄하여 12일 아침 김안진·강민섭·조길룡에게 교부하였다.²⁰⁾ 이로써 거사준비는 완료되었다.

12일 아침 9시 광주고보에서는 수업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전교생이 교문 쪽에 집결하였다. 이날 시위의 책임자로 선정된 김향남(金尙南)이 “철창에서 신음하는 교우를 구하자”고 구호를 외치자, 김안진·최상을·김삼석·김동섭·송만수·김홍남·이형우 등이 선두를 이루어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나갔다. 시가로 뛰쳐나온 광주고보생들은 준비한 격문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며 충장로 등 도심가를 누볐다. 3일의 시위처럼 일반 시민이 박수로 격려하고 호응하였음은 물론이다. 학생시위대의 목표는 광주형무소였다. 부당하게 구금된 동료학생들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형무소로 가는 도중 광주여고보와 광주사범학교 앞에 이르러 양교생들에게 시위에 합류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양교에서는 학생들을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여 합류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 있었다. 시위대는 계속 광주형무소로 행진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대부대의 경찰병력이 집결해 있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는 곧 경찰력에 밀려 포위되었으며, 마침내 학생들은 강제 해산당하면서 다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한편 광주농업학교에서도 이날 수업 시작종과 함께 집결하여 조길룡의 구호 선창과 김남철·최정기를 비롯한 10여 명의 인솔로 거의 전교생이 교문을 나와 격문을 뿌리며 광주형무소 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광주고보 부근까지 진출하였을 때 급거 출동한 경찰에게 역시 포위, 해산당하고 말았다.

2차 시위가 있는 후, 광주 시내 한국인 중등학교에는 모두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무차별 검거선봉이 불었다. 광주고보와 농업학교 등의 학생 26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사회단체 간부 등 민간인도 다수 검거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항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30년 1월 9일에는 광주고보생들이 시험에서 백지동맹을 단행하여 류기량·박남철·손동출·정세면·오세출 등 17명이 퇴학을 당하였다. 광주고보는 1학년생을 제외한 전교생이 460여 명이었는데, 그 중 졸업한 학생이 160명 내외밖에 안 되었으니 이 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 3백 명 가까운 학생들이 투옥되었거나 퇴학당했다는 결론이 된다. 2차 시위를 지휘했던 김향남·이형우·김안진 등 24명은 최고 8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6.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적 확산

광주학생들의 시위가 있는 직후 총독부 경찰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일절 금지시켰다. 보도금지가 해제된 것은 두 달 가까이 된 그해 12월 28일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장기간 금지시킨 것은 물론 학생들의 시위가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시위의 확산은 보도통제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보도통제는

20) 「광주학생독립만세시위사건 판결문」

오히려 유연비어를 낳아 타지역 학생들을 더욱 자극했을 뿐이었다.

11월 3일과 12일의 시위운동은 우선 가까운 도내 각 지방의 학교로 파급되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쫓겨난 것은 목포상업학교생들이었고, 이어서 나주 농업보습학교와 보통학교생들이 쫓겨하였다.

목포상업학교는 일인과의 공학제 실시로 학생들의 과반수가 일인이었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은 민족차별의 설움을 어느 학교보다 뼈저리게 느껴왔고, 따라서 민족의식도 그만큼 강렬하였다. 11월 3일 광주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터지자 곧 몇몇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의가 시작되었고, 최창호(崔昌鎬)·이인형(李麟炯) 등이 11월 9일 광주에 가서 장재성을 만나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을 듣고 이에 호응할 계획을 협의했다. 이후 최창호·이인형·임성춘·박홍복·강영수·권영욱·김상원·양재용 등은 몇 차례 회합을 갖고 19일 아침 봉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성춘·이광우·이인형 등은 19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4학년 이상의 일반 학생들에게 광주학생운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봉기할 것을 종용하여 오후 1시 반 50여 명의 학생이 정명여학교 앞에 집결하여 목포 역전으로 행진, 선전비라를 배포하고 붉은색 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그들의 선전비라에는 '2천만 피압박민중 제군이여'라는 제하에 "피감금학생을 탈환하라, 총독부 폭압정치를 절대 반대한다, 치안유지법을 철폐하라, 식민지 해방 만세"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²¹⁾ 이날 시위 현장에서 학생들은 모두 검거되었으며, 그중 이광우 등 14명이 최고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나주 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이 나주역에서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처럼 여겼다. 특히 박준채와 친척이 되는 나주보습학교 학생 유찬옥(柳贊玉)은 학생시위를 결심하고 나주지방의 청년운동을 이끌고 있던 박공근(朴恭根) 등에 지원을 요청하여 11월 27일 장날을 이용하여 보습학교와 보통학교의 학생 130여 명이 보습학교생 홍민후의 지휘하에 나주 시가지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도중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전단을 뿌리고 '조선민중만세' '조선학생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전단에는 '식민지 탄압정치에 절대 반대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획득,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치안유지법의 철폐, 피압박민족해방 만세' 등의 구호가 있었다.²²⁾ 이 사건으로 박공근 등 6명은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그밖에 함평농업학교도 12월 12일 동조 시위를 하려다가 미연에 발각되어 4명이 구속되었다. 또 이듬해 1930년 1월 28일에는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의 시위계획이 발각되어 정옥순 등이 피검되었고, 같은 달 담양군 창평보통학교생들이 시위계획을 했다가 역시 미연에 발각되어 검거되었으며, 강진 대구보통학교생들도 격문을 뿌리고 동맹휴학을 단행했다가 다수가 검거되었으며, 옥과보통학교생들도 시위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되었다.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은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생들에 동조하는 맹휴를 단행했다. 그리고 2월에는 담양보통학교생, 보성보통학교생 등의 시위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고, 순천 농업보습학교생들이 맹휴를 단행했다. 또 목포 정명여학교에서도 시위계획이 탄로되어 최이순·서금복 등 9명이 검거되고 무기한 휴교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²³⁾

광주학생시위운동의 파급은 마침내 전남지방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12월 2일부터

21) 「목포상업학교 독립만세시위사건 예심종결서 및 동 판결문」

22) 「나주농업보습학교, 나주공립보통학교시위운동사건 예심종결서 및 동 판결문」

23)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74, 60쪽.

서울 시내 각 학교와 요소에 광주학생들을 격려하고 일제를 규탄하는 격문이 나붙기 시작하였고, 동맹휴학과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는 다음 해 1월 중하순경 서울 시내를 비롯한 평양·대구·신의주 등지의 전국 학생들의 총궐기와 4월까지의 전국 각처의 맹휴와 시위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의 시위운동으로의 파급에는 신간회·청년총동맹 등 사회단체의 지원과 학생전위동맹 등 학생들의 비밀결사의 움직임이 큰 구실을 하였다.²⁴⁾ 1929년 11월부터 1930년 봄까지 학생들의 시위와 맹휴가 일어난 학교들을 도별, 학교별로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929년 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의 도별, 학교별 상황

도별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각종학교	보습학교	보통학교	사범, 신학교	계
		남자	여자						
경기	7	8	6	8	14	1	1		45
충북		1	1	1			6		9
충남		1		1	2	5	7		16
전북		2	1	2	4	1	4		14
전남		1	1	4	2	3	9	1	21
경북		1	1	1					3
경남		2	2	5	3	1	11		24
황해		1		1	1	1	2		6
강원		1		2			1		
평남	1	2	2	3	7	1	21	3	40
평북		2		2	4		11		19
함남		1	2	4	4	1	10	1	23
함북		1	1	2	4	2	17		27
계	8	24	17	36	45	16	100	5	251

출전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386쪽.

* 고등보통학교(여자) 17개교 가운데에는 여고보 14개교, 일선공학인 고등여학교 3개교의 조선인 여학생들의 시위도 포함됨.

<표 4>에 의하면, 참가 학교 가운데에서 보통학교가 100개교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각종학교로 45개교였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29년 당시 공립보통학교는 1,620개교, 사립보통학교는 78개로 모두 1,698개였으므로 보통학교의 참여율은 5.9%였다. 각종학교는 당시 일반각종학교가 294개교, 종교각종학교가 214개교로 모두 508개교였으므로, 각종학교의 참여율은 8.9%였다. 고등보통학교 가운데 참여학교는 남자고보가 24개교, 여자고보가 17개교(일선공학인 고등여학교 3개교 포함)였다. 남자고보는 모두 24개교(공립 15, 사립 9)였으므로 100% 참여했다. 여자고보는 모두 15개교(공립 6, 사립 9)였는데, 이 가운데 14개교가 참여하였으므로 93.3%가 참여한 셈이다. 실업학교는 공립이 44개교, 사립이 5개교로 모두 49개교였는데, 이 가운데 36개교가 참여하여 80%의 참여율을 보여주었다.²⁵⁾

24) 신간회는 이 사건을 전국적인 민중봉기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12월 13일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갖기로 계획했다가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등이 검거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25) 각급 학교 총수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9년판, 교육부문 참조.

지역별로 보면, 경성이 포함된 경기도가 45개교로 가장 많고, 평양이 포함된 평남이 40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함북, 경남, 함남, 전남의 순으로 많았다. 함북과 함남은 1920년대부터 함흥고보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 학생들의 맹휴가 자주 발생한 곳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맹휴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운동의 슬로건도 점차 정비되기 시작했다. 맹휴나 시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구호는 “구속학생 석방”이었으며, 이어서 “식민지 노예교육 타파”가 등장했다. 초기에는 ‘조선역사 교수’ ‘조선어시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구호가 나왔지만, 점차 ‘식민지노예교육 타파’로 정리되어 간 것이다. 그리고 1930년 1월 15일 중등학교 학생들은 ‘야수적인 제국주의 파괴’ ‘기만적 노예교육 철폐’ ‘약소민족 만세’ ‘대한독립만세’의 구호까지 내놓았다. 1930년 1월 서울의 2차 시위에서의 공통적인 구호는 ‘피압박민족 해방만세’였다. 이는 1929년 12월 초 서울지역 학생들의 1차 시위에서 내놓은 ‘광주학생 석방’ ‘식민지노예교육 철폐’의 구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식민지 노예교육의 철폐’는 ‘민족해방’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슬로건이 이렇게 발전해나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²⁶⁾ 이렇게 하여 ‘광주학생들의 봉기’는 전국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독립운동’으로 발전해나갔다.

7. 결론 -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광주에서 불붙은 학생들의 항일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파급되어 전국에서 300여 개교 최소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또 이 운동으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학생은 광주에서만도 180여 명에 달했으나 전국적으로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나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학교에서의 처벌도 가혹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이가 533명, 권고퇴학이 49명, 무기정학처분이 2,330명, 강제전학이 298명, 자진퇴학이 352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하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생층이 식민지하 조선의 독립운동의 중추세력의 하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1920년대 말 신간회운동을 비롯하여 노동·농민운동 등이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에서 전체 민족해방운동을 다시 한번 고양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구호도 ‘식민지노예교육 철폐’에서 점차 ‘피압박민족 해방’ ‘조선독립만세’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등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운동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대중봉기로까지 확대, 발전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운동이 학생층으로부터 시작되어 초기에 구호도 ‘구속학생 석방’ ‘식민지노예교육 철폐’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3·1운동 당시와 비교하여 일제의 사전경계가 훨씬 엄중했고 신간회가 계획했던 민중대회계획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일제의 탄압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1930년 이후에도 춘천고보의 상록회운동, 대구사범의 독립운동, 부산제2상업학교의 독립운동, 대구상업학교의 태극단 독립운동,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²⁷⁾ 등으로 이어져갔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구속되

26)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400~411쪽.

27)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이란 1938년 광주서중의 朱萬尤,姜漢秀,劉夢龍 등이 서중독서회를 조직

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후에 청년, 노동, 농민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1930년대 식민지하 민족해방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함으로써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제 5년 뒤인 2029년이 되면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한 것이 1940년 '無等會'라 개칭되어 활동하다가 1942년 1월 탄로가 나 검거되어 최고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은 사건이다.

발표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

신웅주
(조선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

신 용 주 *

목차

1. 머리말
2.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 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 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장소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
 - 가.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가치
 - 나.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보존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은 민족운동 내지 항일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광주를 기점으로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시위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사건으로 1929년부터 1930년 3월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3·1운동 이후 우리 민족에 의한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영원히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축 공간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1929년~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존의 문헌을 통해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실증적인 사료를 확보,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역사현장에 대한 건축 공간적 고증을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성과가 정리된 사료¹⁾를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역사현장들을 추적하고, 100여 년 전 역사현장의 분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사료들을 각종 아카이브²⁾에서 검색하여 추출한 후 대표적인 역사현장에 대하여 공간별로 분석하여 역사현장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데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겠다.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 1)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도서관의 메인서가에 비치된 사료와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 자료를 참고하였다. 대표적인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성문당, 1996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 경운출판사, 1995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광주문화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gwangju>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신편한국사, 광주학생운동, <http://contents.history.go.kr/>
- 2) 대표적인 아카이브는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건축도면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아카이브,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아카이브,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 서비스, 조선총독부 관보, 일제강점기 그림엽서 일제강점기 건축전문잡지 등이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³⁾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에 발생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요람은 광주이다. 조선시대부터 광주를 비롯한 전라도 지역은 한국근세 및 근대사를 통틀어 구국활동을 하거나 가장 큰 혁명을 일으켰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임진왜란에 맞서 요충지 역할을 할 때 관민이 힘을 합쳤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하여 탐관오리와 무력 침략한 외세에 대하여 치열한 저항운동을 벌였던 곳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제한적으로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을 허용하였다. 광주의 청년단체 중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광주청년회, 광주청년동맹, 전남청년연맹 등이다. 특히 이 단체와 관련있는 인물 중 강석봉, 강해석, 김재명, 장석천, 지용수 등은 성진회 및 독서회의 결성에 관여하며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였다.(광주향토문화대전, 광주학생독립운동)

한편 한국인들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주된 내용은 우리 민족의 교육, 일본과 차별없는 교육과 고등교육 등이었다. 그 결과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어 일본과 동일한 학제가 채택되었다. 이에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광주에는 1920년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1929년에는 8개의 중등교육기관, 19개의 초등교육기관이 생겨났다.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운동의 방편으로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조직되었던 비밀결사인 독서회의 조직과 동맹휴학의 파동이 광주에도 밀려와 광주학생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광주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1926년 6·10학생운동 이후인 그해 11월 3일 성진회(醒進會)가 조직되면서부터였다. 성진회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의 장재성, 정우채, 왕재일 등 16명이 최규창의 하숙에서 조직한 비밀결사였다.(조선총독부 경무국, 1979, P.361)

광주에서의 동맹휴교는 1920년 사립학교로 출발한 광주고등보통학교가 1923년 공립으로 바뀐 다음 해부터 일어났다. 즉 1924년 봄 광주고등보통학교 4학년생 김창식이 일본인 양화점 주인의 언쟁이 도화선이 되었고, 이어서 그 해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중학간 야구시합의 불상사가 발단이 되어 광주고보생의 동맹휴학이 일어났다. 이 동맹휴교로 구속된 학생들은 그해 9월에 모두 석방되었으나, 동맹휴교의 주동자로 지목된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인 고팡득, 갈채덕, 최현주, 지창수 등은 퇴학처분을 받아 첫 희생자가 되었다.(양동주, 1956, pp.25~26)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 동맹휴교가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26년 성진회가 조직된 이후부터이다. 1927년 5월 하순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2·3학년생들이 ‘한일학생 교육제도의 차이와 시설의 차이’를 지적하고 물리·화학교실의 확충을 비롯한 몇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동맹휴교에 들어갔다. 당시 교장은 시설확충을 해주겠다는 공약을 하여 일단 무마되었으나 해를 넘겨도 공약은 실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1928년 6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항일동맹휴학이 일어났다. 이 동맹휴교의 직접적인 동기는 광주고등보통학교 5년생인 이경채가 광주 송정리 불온문서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면서부터이다. 이경채의 구속 사실을 통고받은 광주고등보통학교장은 그를 19일자로 퇴학 처분했다. 이 사실을 수일 후에 안 학생들은 이경채의 제적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거부로 대항하자 24일 시라이 교장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3) 머리말에서 언급한 주요 사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학부형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당국과 학부형회에서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학생대표들은 25일 동맹휴교를 결의, 26일 2·3·4·5학년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진정서(4)를 학교당국에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교에 들어갔다. (양동주, 1956, pp.35~36)

1928년의 광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교는 그해 10월 초 일단 중지될 때까지 반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희생도 커서 수형자가 16명, 퇴학생이 40명, 무기정학생이 300명이나 되어 얼마나 동맹휴학이 격렬하였던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광주에 있어서 광주고등보통학교와 함께 동맹휴교가 극심하였던 학교는 광주농업학교였다. 이 학교에서는 1928년 6월 27일 보통작물을 담당하던 일본인 교유 모리오카(盛岡)를 배척하는 진정서를 4년생 송성수·김윤성, 3년생 류상렬, 2년생 나석현 등이 주동이 되어 2·3·4년생 150명의 연명을 얻어 히라노(平野)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질책하자 29일 동맹휴교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이 송성수 등 주동자 12명을 퇴학시키고 동조자 10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자, 이에 격분한 맹휴학생들은 폐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와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여 맹휴의 체계적·조직적인 움직임을 실천하려고 하였다.⁵⁾

1929년의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의 동맹휴교는 학교 당국·도 학무과·경찰의 강경 조치로 표면상으로는 종식되었지만 학생들의 반일감정은 더욱 심화되어 갔고 돌파구만 있으면 분출할 정세에 놓여 있었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5월부터 학생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여 벽이나 화장실 등에 '조선독립만세', '조선혼을 고취하자', '6월이 되면 전선적(全鮮的)으로 맹휴하자'라는 낙서가 나붙었다.(국사편찬위원회, 광주학생운동에서 요약)

6월 26일에는 5학년 학생들이 자치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수업을 거부하였고, 전체 학생들이 동요를 일으켜 그 중 일부가 수업을 받지 않고 학교당국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하교하였다. 이날은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중학교 학생간 충돌이 처음 일어났던 날로 일본인 학생들의 조선인 비하 발언으로 기차 내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통학생들의 감정적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동년 10월 30일 다시 한 번 나주역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큰 싸움이 시작되었다.

192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 경 광주에서 통학생을 실은 하행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 통학생들이 출찰구로 나갈 때 광주중학 4년생 후꾸다슈조(福田修三), 스메요시 가쓰오(末吉克己), 다나까(田中) 등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생인 박기옥, 이광춘, 이금자(이와시로 기누코 : 岩城錦子) 등을 '센징(鮮人)'이라 조롱하며 특히 후꾸다가 박기옥의 땀기머리를 잡아당기는 사건이 발생(박준채, 1969)하였으나 나주역 순사가 일방적으로 일본인 편에 섰다.

4) <진정서>

① 교우회의 자치권 인정. ② 물리·화학교실의 신축. ③ 이경채의 제적사유 해명과 무죄시의 복교. ④ 하세가와(長谷川)의 6명의 무자격 일본인 교사의 축출. ⑤ 조선인 敎諭의 채용. ⑥ 조선어문법의 교수. ⑦ 상기 요구조건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시라이교장은 인책 사퇴할 것.

5)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編, 光州學生獨立運動史, 國際文化社, 1974, p. 53

광주농업학교의 동맹휴교에서 작물교사의 배척은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였고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교와 유기적 연관하에 일어났던 반일민족운동이었으니 그것은 이 당시 맹휴학생들이 발표했던 다음과 같은 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격문>

①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② 한일공학제실시는 절대 반대한다. ③ 싸워라! 싸워라! 모국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워라. ④ 모국의 생명은 우리들의 활동에 달려있다. 2천만 동포를 부활시키고 삼천리강산을 빛내는 것은 우리들의 쌍견에 달려 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들의 친구들이여! 금번의 사건은 혁신의 기초, 갱생의 기초다. 각오하자.

10월 31일은 광주로 가는 상행열차에서 박준채에 대한 일본인 학생들의 시비로 충돌할 뻔 했으나 소강되었고, 같은 날 오후 하행열차에서 다시 한 번 패싸움이 벌어졌다. 역시 광주일보의 일본인기자가 일본인 학생들의 편에 서서 조선인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였다.

11월 1일은 광주역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광주중학교 학생 수십 명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 날 사건은 일본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일으켰다. 한일 학생들이 광주역 철로에서 대치하였고, 양교 교사들의 제지와 경찰의 출동으로 격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1월 3일은 메이지(明治) 일왕의 생일이자 전남 산견(産鰯) 6만석 돌파는 기념하는 행사가 크게 열리는 날이었다. 주최측은 두 행사에 조선 학생들도 동원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도 오전 9시에 기념식을 행한 뒤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신사참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본인 학생과 충돌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교사를 배치, 감시하였다.

그럼에도 11시 경에는 수기옥정 우편국 앞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광주중학교 학생들 간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밀리던 광주중학교 학생들은 광주역 쪽으로 도주하였고,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이들을 광주역까지 쫓아갔다. 결국 경찰, 교사, 소방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해산하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장작, 곤봉, 배트 등으로 무장하였다. 이어 가두시위 투쟁을 결의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광주농업학교 학생 300여 명과 함께 독서회 회원들과 5학년 학생들의 인솔 하에 시가지로 진출하였다. 광주역에서 성저리를 지나 광주중학교로 진출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수기동 우편국을 거쳐 도립병원 쪽으로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광주사범학교 학생들도 일부 참여하였다.(광주향토문화대전,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요약), (국사편찬위원회, 광주학생운동에서 요약)

이 사건으로 광주지역의 중등학교들은 3일간 임시휴교령이 내려졌다. 관내 경찰은 한국인 학생을 조사하여 11월 12일까지 72명을 검거하고 62명⁶⁾을 검찰에 송치, 40명이 기소되었다.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일제 당국의 불공평한 처사에 민중들은 불만을 품었고, 언론기관·신간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를 규탄하고 비밀리에 조사단을 파견,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 중 신간회는 허현, 김병노, 황상규 등이 11월 9일 광주에 도착, 광주고보교장과 광주중학교장을 만나서 사건진상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건의 불공평한 처리를 엄중 항의하였다.

한편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수피아여학교, 광주숭일학교 등의 학생들은 편파적인 행정기관의 처사에 격분하고 끝까지 항쟁할 것을 결심, 제2차 시위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제1차 시위운동 직후인 11월 4일~5일 경 광주고등보통학교 출신 장재성은 재광주사회단체의 간부 등과 학생투쟁지도본부를 결성하여 각 학교의 책임자를 정하고 격문의 초안⁷⁾을 작성, 학생들에게 보냈다. (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소화 5년 형공 제176·177호)

11월 12일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에 격문이 살포되었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오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수기옥정 우편국과 궁동의 광주형무소를 거쳐 사범학교까지 행진하였고, 농업학교생들도 광주고보생들과 합류하였다. 11월 12일 연합 시위로 광주고보와 농업학교는 무기휴교에 들어갔다. 이날 동참하지 못한 광주여고보는 14일과 15일 기숙사생들이 독립가를 부르고 만세를 외쳤다. 사범학교생들도 14일 '구속학생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광

6) 광주고등보통학교 44명, 광주농업학교 13명, 광주사범학교 5명

7)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여 대중이여 필기하라. 검거된 학생은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결사·집회·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식민지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주향토문화대전,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요약)

제2차 항일학생시위운동으로 일경에 검거된 학생수는 양교를 합하여 280명이었으니 시위참가 학생 약 550여 명의 과반수가 되며 일경은 이 많은 학생을 유치장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도청 앞 무덕전에 집단으로 학생을 수용하였다. 특히 제2차 시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광주시내 일반 사회단체에 대하여도 검거선봉이 붙어 사회단체간부 100여 명이 차례로 구속되었다.(東亞日報, 1929년 12월 28일, 號外)

제2차 광주학생시위운동이 있는 후, 일제는 광주 시내 중등교육기관에 휴교조치를 내리고 시위운동에 관한 일체의 보도금지령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취해져 그 사이 한국민족은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을 파악하지도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의 민심은 동요되고 일제의 악랄한 정책에 대한 분노는 커져갔다.(국사편찬위원회, 광주학생운동)

2차에 걸친 광주학생들의 항일시위운동으로 정식 구속된 학생은 255명이었다. 그러나 광주학생들은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1930년 1월 9일 광주고등보통학교에서는 다시 백지동맹을 일으켜 17명의 학생이 퇴학당했고, 16일에는 제3차 시위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어 48명이 무더기로 퇴학당하였으며,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생도 백지동맹·비밀결사 등 시위에 관련된 학생 40여 명이 퇴학을 당하였다.(朝鮮日報, 1930년 1월 20일)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기 지역은 5개 학교에서 참여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7개교가, 충청남도는 13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충청북도는 9개 학교에서 참여하였다. 전라남도는 제주를 포함하여 18개 학교가 전라북도는 16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경상남도는 28개 학교가 경상북도는 7개 학교에서 참여하였다. 북부 지방의 경우 평안남도는 39개 학교가, 평안북도는 15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함경남도는 27개 학교가, 함경북도는 27개 학교가, 황해도는 9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렇듯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1930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 해외에도 영향을 끼쳐 중국, 만주 지방, 미주 지역에게까지도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었다.(광주향토문화대전, 광주학생독립운동)

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장소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여 관련된 역사현장을 추출하였다.⁸⁾ 본문에서 다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 흥학관, 광주역, 황금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이다. 역사현장은 사료에 기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경과를 종합하여 주요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들이 살던 집 및 하숙집,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 광주지방법원,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사범학교, 광주수피아여학교, 가두시위가 있었던 길거리 등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현장 외에도 가치 있는 곳이 많다.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므로, 이상의 역사현장에 대하여는 도시사(都市史) 및 건축사(建築史)의 관점에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논문 발표로 다시 다루고자 한다.

표 6.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장소

장소	시기	역사적 사건
광주공립 고등보통학교	1927	학교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물리 및 화학교실을 갖추어 교육의 내실을 기하라는 진정 후 맹휴 감행
	1929.3.23	유시퇴학(諭示退學)을 당한 김몽길, 여도현 등이 미리 학생들에게 무더기 퇴학 낙제처분 절대 반대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등의 내용으로 교장실 포위
	1929. 6 하순	독서회 조직
	1929.6.26	일본인 학생들의 조선인 비하발언 후 고보 학생들의 자치회 행사를 이유로 맹휴
	1929.11.3	무장한 광주중학교 학생들에 대비하여 광주고보의 기숙사 학생들은 몽둥이, 야구방망이와 학교 창고에서 꺼낸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광주역으로 진출
	1929~193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의 주 활동무대
광주공립여자 고등보통학교	1928.11.상순	비밀결사 소녀회 결성
	1929.11.14~15	교내에서 독립가를 부르고 만세 외치며 투쟁
	1930.1.13	수감 중인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3학년생 전원이 백지동맹
공주공립 농업학교	1929.6.29	광주고보와 맹휴
	1929. 6 하순	독서회 조직
	1930.1.20	만세 시위를 계획하다 사전에 적발되어 49명이 검거되고 36명이 송치
홍학관	1929.11.3	광주학생운동 지도부 대책회의 장소
	1929~1930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의한 역사적 공간
광주역	1929.10.30~3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 역사적 장소
황금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1966	전 국민의 성원과 기금모금으로 건축된 최초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

가.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가치

1)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1919년 7월 현기봉, 김형옥, 유강렬, 윤정현 등 전라남도 다수의 유지들이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1920년 4월 6일에 설립이 인가되었다. 제1차로 학생 96명을 모집하여 5월 1일 광주읍성의 객사이었던 광산관(光山館)[옛 무등극장 일대]를 빌려 개교를 하고 이 날을 개교기념일로 정하였다. 2년간 사립으로 운영되던 광주고등보통학교는 2년 뒤인 1922년 3월 관립광주고등보통학교로 되었으며 1만여 평[약 3만 3000㎡]의 교지에 교사(校舍)를 신축하였고 1925년 4월 전라남도에 이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광주고등보통학교, 향토문화전자대전) 이 시기에 있었던 학교의 풍경을 비롯하여 교사(校舍)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8년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학교명을 광주서중학교로 개칭하였다. 1952년 4월 8일 광주제일고등학교라는 교명으로 설립이 인가되었다.



그림 1. 1920년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사(교사) 배치

좌: 1976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우: 1922년 설계도(국가기록원)

1922년에서 1923년 사이에 작성된 설계도를 통해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건축 과정을 분석하면, 북쪽에 있는 교사가 신축되고 이후 서쪽에 있는 교사가 신축되어 ㄱ자 형태의 건물로 완성되었다. 이후 매입된 서쪽의 부지에 기숙사 2동과 식당 및 부대시설이 건축되었다. 이는 초기의 계획에 비하여 시설면에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기 학교건축도면, 국가기록원) 1927년 광주고보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통해 시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사건도 확인된다.

일본과 만주 등지로 수학여행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학교시설의 미비와 민족차별교육을 이유로 맹휴(盟休)를 감행하였다. 오는 길에 평양고보를 견학하였고 시설 면에서 광주고보와 차이가 현저하여 물리 및 화학교실을 갖추어 교육의 내실을 기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당시 교장이었던 시라이(白井) 교장은 각서를 쓰며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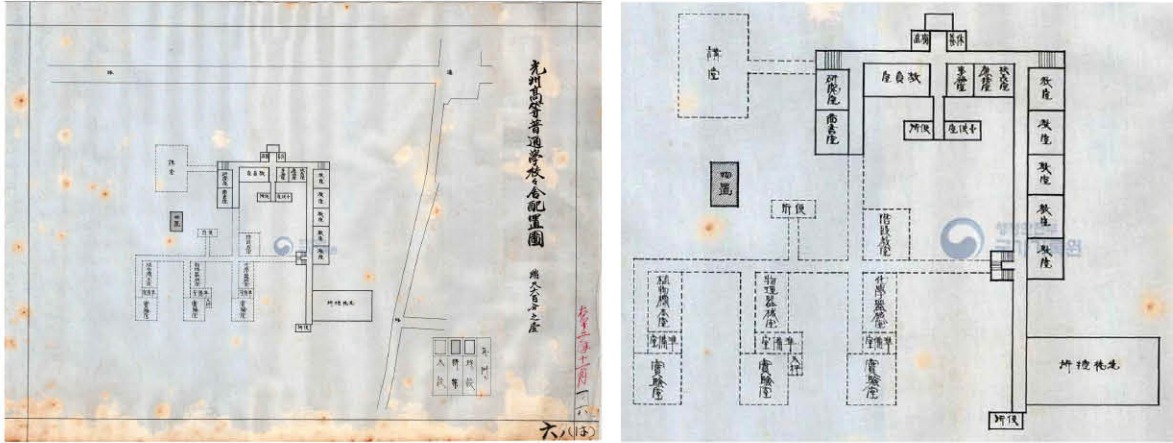


그림 2. 광주고등보통학교 교사배치계획, 1923, 국가기록원
1920년대에 식물실험실,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등의 건축계획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기존의 계획안에서 강당만 지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예산 및 여건 문제로 초기계획이 수정되었고 대부분 신축되지 못했던 것 같다.

‘광주고보 교장실 포위사건’에도 광주고보의 공간이 인용된다. 1929년 3월 23일 광주고보 졸업식장(終業式場)에서 유시퇴학(諭示退學)을 당한 김몽길, 여도현 등이 미리 학생들에게 무더기 퇴학 낙제처분 절대 반대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시라이교장이 식을 시작하려고 하자, 일어나 퇴학의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식장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시라이교장은 식을 중단하고 교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장실로 몰려가 면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하길담(河吉澐) 등이 교장실 문짝을 부수고 창문을 깨 소동을 벌였다.(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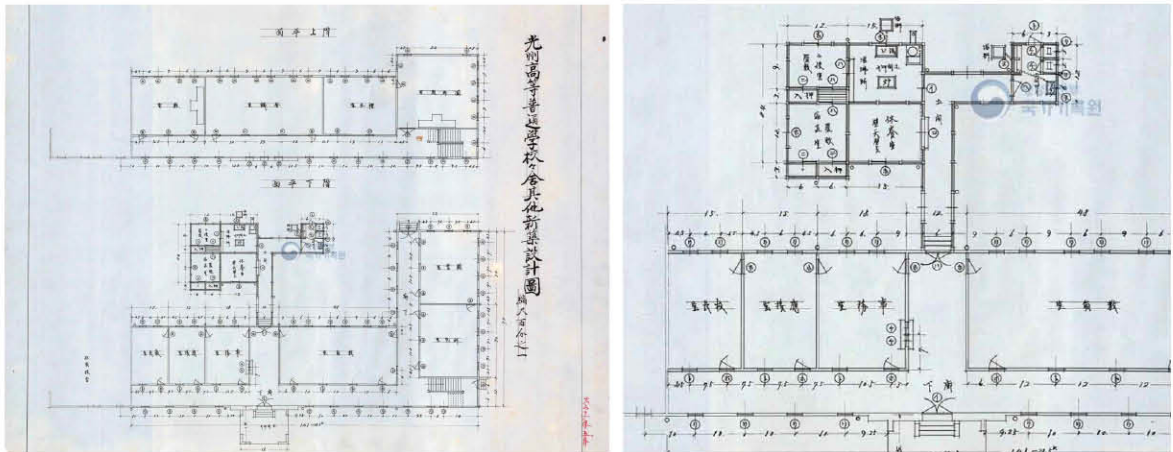


그림 3.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도, 1922~1923, 국가기록원
왼쪽 하단 마지막에 교장실이 있었다

1920년대 신축된 교사는 2차레에 걸쳐 7자의 평면을 갖는 2층 건물로 완성되었고 이 건물의 1층 맨 끝에 교장실이 확인된다. 1층에는 교장실, 응접실, 사무실, 교원실, 연구실, 화서실 등이 있었고, 2층에는 교실, 회의실, 표본실 등이 위치했다. 건물의 뒤쪽으로는 통로로 연결된 부속채가 1층으로 달려 있었는데 내부에는 휴게실, 숙직실, 창고, 탕비실과 변소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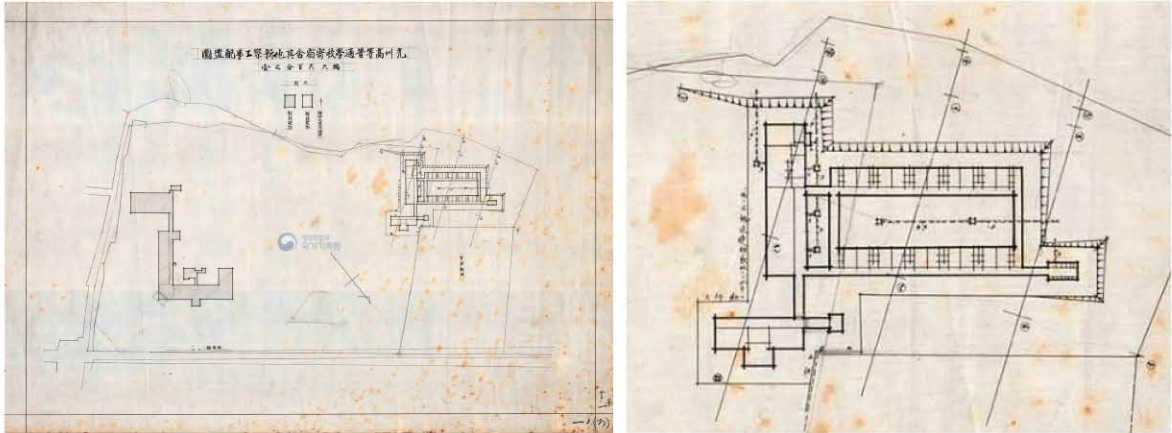


그림 4. 광주고등보통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배치도, 1922~1923,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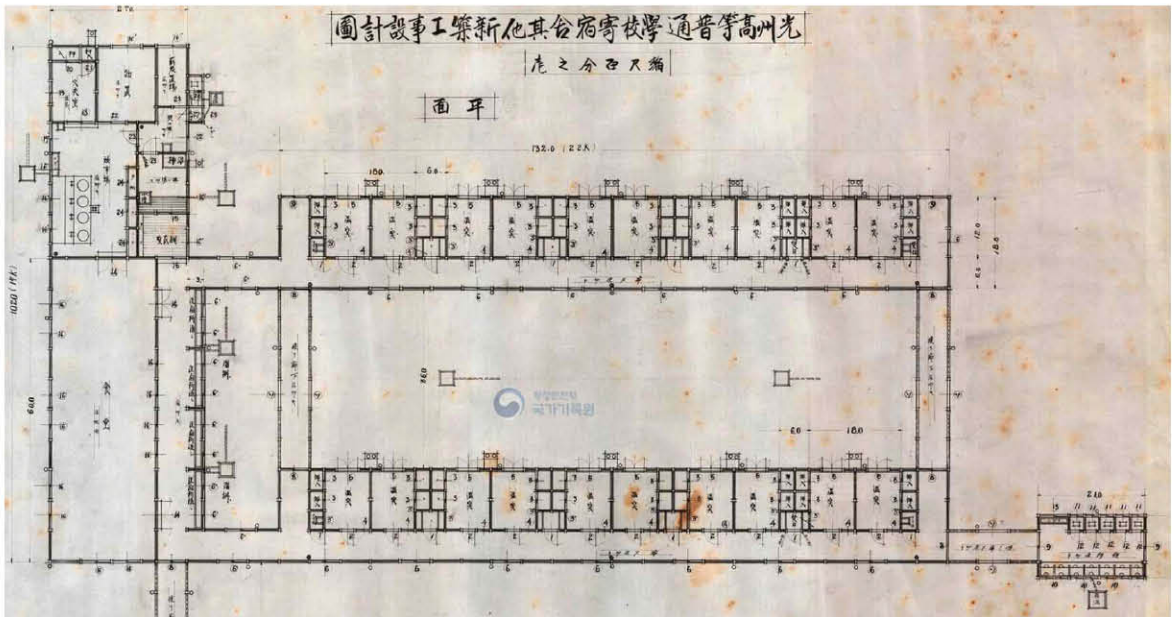


그림 5. 광주고등보통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평면도, 1922~1923, 국가기록원
기숙사의 방은 온돌로 계획되었고 한쪽에는 취사장, 식당, 창고, 반대편에는 변소가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1차 시위가 발발하기 바로 전,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광주신사 앞 천변에서 광주고보 최쌍현에게 시비를 걸어 최쌍현이 단도에 얼굴이 찢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일본인 학생들과 광주고보 학생들이 수기옥정(須奇屋町) 우편국 앞에서 시비가 벌어졌다. 비슷한 시각에 광주중학교 학생들은 무장을 한 채 광주역으로 쳐들어갔고 명치절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학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광주고보 기숙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광주고보의 기숙사 학생들은 몽둥이, 야구방망이와 학교 창고에서 꺼낸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함성을 지르며 광주역 방향으로 뛰어갔다.(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96)

위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현장은 광주고보의 기숙사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기숙사는 20개 실로 각 방당 가로세로 각 4m로 16m²의 크기였다. 기숙사의 각 방당 4명이 생활했다면 총 8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였다.

2)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7년 4월 현준호(玄俊鎬)를 비롯한 지역 유지 및 군민의 요청에 따라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아 5월에 개교하였다. 1928년에는 교사(校舍)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개교 당시에는 수업연한 4년에 50명이 재학하는 여성 중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설립 과정에 관한 문헌자료는 광주의 일본인 여학교였던 광주공립고등여학교의 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몇 안되는 신문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1926년 매일신보와 조선신문의 기사를 보면, 광주에 여자고보교 건설에 드는 비용 7만원 중 4만원은 광주군에 인수하고, 3만원은 광주면, 1만원은 각 면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모집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다. 1922년 창간되어 해방까지 발간된 건축전문잡지 「朝鮮と建築」에도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의 신축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다.

광주에 건설될 광주여고보는 연와조(煉瓦造, 벽돌조) 2층 건축물, 연면적 251평, 4개의 교실과 교원실, 응접실, 재봉실(裁縫室), 도서실 등으로 9일부터 설계에 착수하였다.(1927)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신축공사 입찰은 23일 오전 10시 도회계과에 의해 개최, 개찰의 결과 37,480원에 평양의 노모토 에이타로(野本榮太郎)씨에 낙찰되었는데 설계의 개요는 본관의 경우 연와조 2층, 건평은 125평, 본관 정면에 현관과 좌우에 각 16평의 2동으로 생도승강구(生徒昇降口)외에 변소 8평, 통로 3평, 본관 1층의 중앙은 직원실이고, 기계실, 도서실 및 1개의 교실, 2층은 3개의 교실, 재봉실, 전면 폭 1칸 반의 연결복도, 외면은 정면 현관의 상부의 높이는 52척의 탑옥(塔屋)을 설치하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는다.(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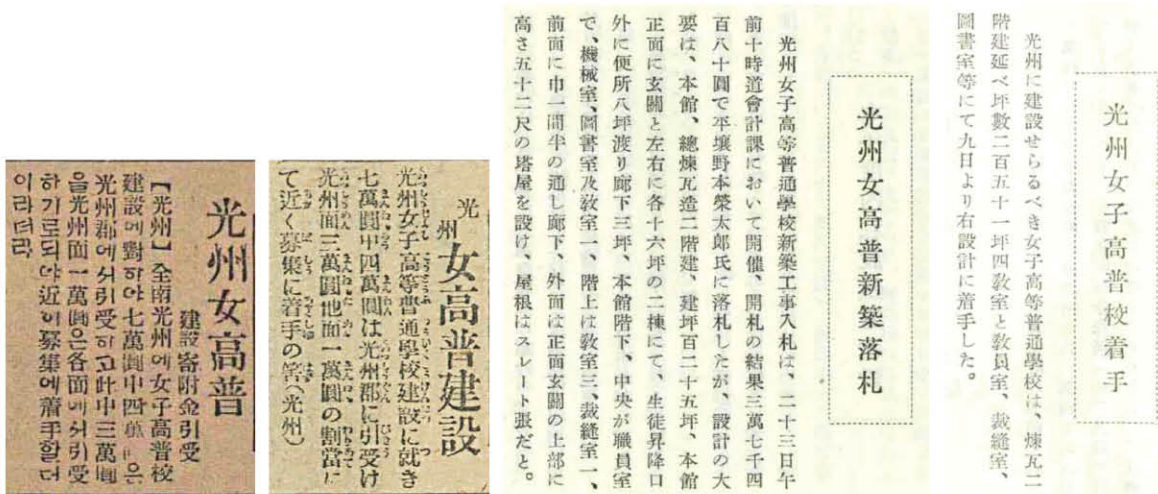


그림 6.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기사

좌부터 매일신보 1926. 11. 4, 조선신문 1926. 11. 13, 朝鮮と建築 1928, 朝鮮と建築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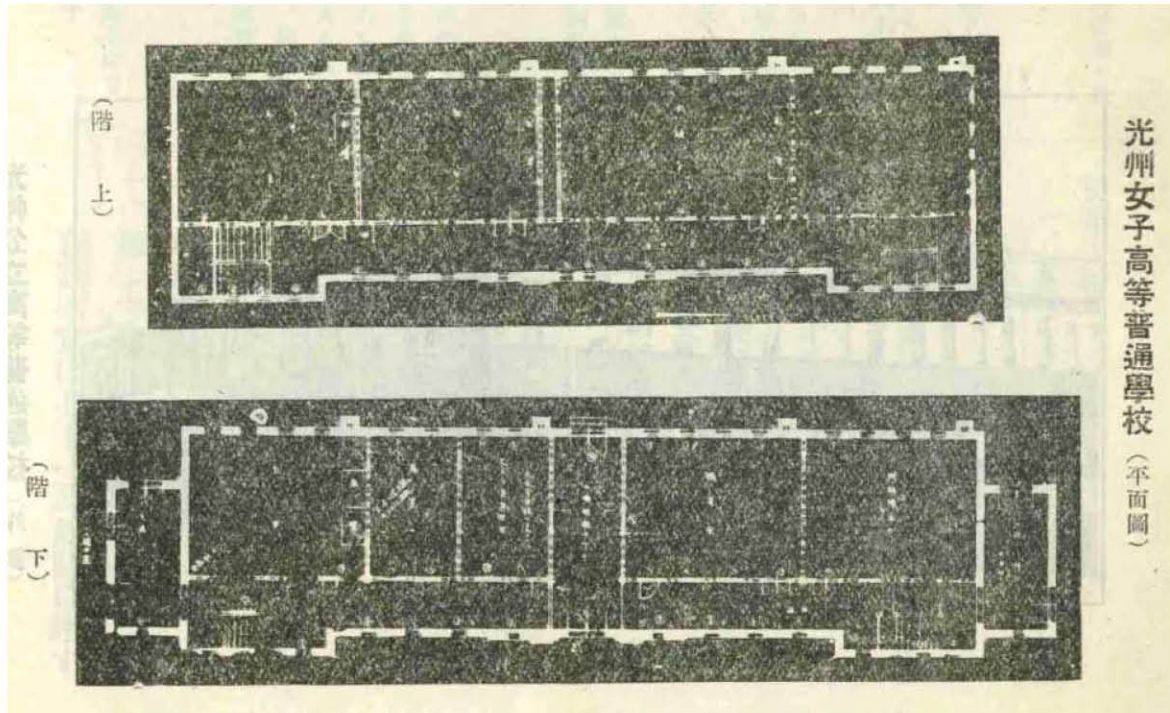


그림 7.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평면도
(1928. 3) 朝鮮と建築

1928년 3월 잡지에 수록된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본관의 평면도는 해상도가 높지 않아 글씨 판독은 어렵지만 현재의 전남여고 역사관과 동일한 평면을 갖고 있다. 생도승강구로 붙었던 좌우측면 출입구의 출입문 위치와 방향이 원형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 증축의 결과물로 알았던 통로는 신축 당시부터 계획되어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크게 자라있는 히말라야 시다는 건축초기에는 식재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외에 변형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림 8,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전경
(1929. 10, 광주학생독립운동 직전) 朝鮮と建築

1999년 4월 30일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로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된 후 2002년 10월 9일, 문화재 관리 보존위원 5명이 선정되었고 문화재 복원을 위한 기금 모금도 시작되었다. 기금이 모인 후 본관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일부 고증을 거쳐 2005년 광복절에 맞춰 옛모습을 되찾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는 역사관으로 개칭되었고 곧바로 역사관 공사가 이루어졌다. 2011년 5월 25일 역사관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1928년 11월 장매성의 주도로 비밀결사 소녀회가 결성되어 민족독립과 여성해방 문제를 토론하며, 독서회 중앙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남학생들과 같이 독립운동 역량을 기르는 데 노력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에서의 격투로 비화된 한·일 학생들의 충돌 이후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광주공립농업학교·전라남도공립사범학교 학생들과 연합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12일의 시위에는 학교측의 경계가 엄중하고 정문이 폐쇄되어 동참할 수 없었으나, 14일 기숙사생들이 교내에서 독립가를 부르고 만세를 외치며 사감실에 돌을 던졌으며, 1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투쟁했다. 1930년 1월 13일에는 수감 중인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3학년생 전원이 백지동맹을 하여 많은 학생들이 퇴학처분을 받았다.

광주지역 1~2차 시위와 백지동맹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38명과 제적당한 9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전남여자중고등학교 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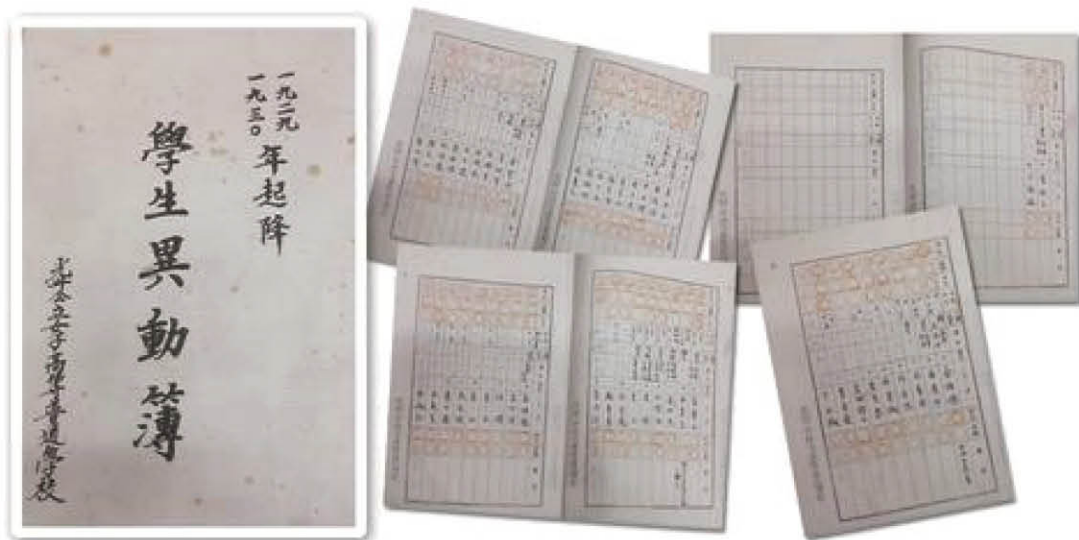


그림 9.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생이동부, 일제강점기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

3) 광주공립농업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는 1909년 4월 독립광주농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6월 전라남도 광주군 부동방면⁹⁾에 사립측량학교 자리에 개교하였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1년 11월에는 독립 광주농립학교에서 광주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912년에는 전라남도 광주군 기례방면¹⁰⁾으로 이전되었다. 1924년에는 3년의 수업연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고, 1926년 11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중학교 학과 과정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다. 이 시기에 광주공립농업학교의 조적조(組積造)¹¹⁾ 교사(校舍)는 신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대 후반에 신축된 광주공립농업학교의 근대식 교사는 광주지역에서 적벽돌이 건축구조재료로 쓰이기 시작했던 시기¹²⁾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광주농업학교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와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학교로 광주고보 학생들과 성진회 결성을 주도했고, 독서회 모임의 주축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에도 동맹휴학, 거리 시위 등으로 항일 운동을 주도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11월 12일에도 연합 시위에 참여하면서 격문을 뿌리면서 시위를 벌였다. 1930년 1월 20일에도 만세 시위를 계획하다 사전에 적발되어 49명이 검거되고 36명이 송치되기도 하였다.(광주농립학교, 향토문화전자대전) 광주공립농업학교는 일제강점기 시절 광주전남지역 최고 수준의 농업전문학교로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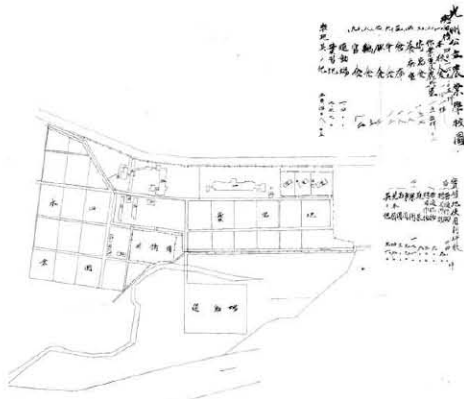


그림 10. 광주공립농업학교 배치도
국가기록원



그림 11. 광주천 개수공사 평면도
좌측 상부에 농업학교 교사와 실습장이 확인됨

9) 지금의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일대

10) 광주광역시 북구 입동 92번지

11) 조적조(組積造, masonry)란 건축 양식 중 하나를 일컫는다.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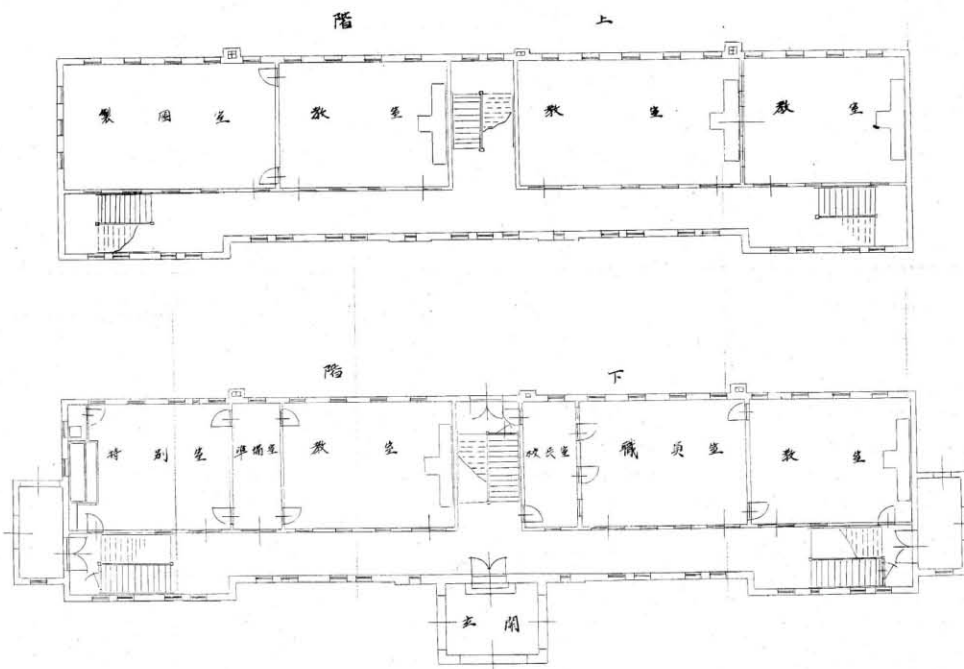
12) 이보다 이른 시기에는 회색벽돌이 쓰였다. 적벽돌 건축물로 광주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홀(1927년), 광주공립여자보통학교 본관(1928년), 광주수피아여학교 소강당(1928년), 전라남도청 구본관(1930년), 전라남도청 회의실(1932년, 공사 도중 붕괴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있다.



그림 12. 광주공립농업학교 전경
일제강점기 초기, e뮤지엄



그림 13. 광주공립농업학교 실습장면
일제강점기, e뮤지엄



光州公立農業學校本校舎平面圖
二階建築瓦造坪百四十二坪

423

0721

그림 14. 광주공립농업학교 평면도(상: 2층, 하: 1층)
국가기록원

광주공립농업학교가 임동으로 이전된 후 1920년대에 건축된 신교사는 현재 사라졌지만 국가기록원의 기록물¹³⁾을 통해 그 제원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에는 증축된 건축물까지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서 교사의 신축시기는 1920년대 초까지 상향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 건축면적은 141평(465.3㎡)으로 2층의 규모로 확인된다. 엽서사진 상에는 적벽돌 조적조로 교사 정면의 중앙부는 당나라 양식이 일본으로 전해져 뿌리내린 가라하후(唐破風)¹⁴⁾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 소형교회 파사드의 볼류트(Volute)¹⁵⁾와 흰색의 회벽마감에 장식을 낸 플루팅(fluting)¹⁶⁾ 기법은

13) 국가기록원, 광주공립농업학교 인정에 관한 건, CJA0004713, 1926년

14) 가라하후(唐破風)는 중앙은 활꼴에 양끝이 곡선형으로 된 일본 전통건축에 적용되는 박공의 한 가지로 현관·문·신사(神社) 따위의 지붕장식

15) 볼류트(Volute)는 곡선이 포함되는 소용돌이 모양의 고전적인 건축장식

본관 뿐만 아니라 교문의 문주(門柱)에도 표현되어 있다. 교사 정면의 외부창은 2개가 1쌍을 이루고, 배면은 20열의 오르내리창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

교사의 정면 중앙에는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양 옆으로 뺀 복도가 있고 복도의 양 끝에는 계단과 창고가 있었다. 1층 중앙계단의 오른쪽은 교장실, 직원실, 교실이 있고 왼쪽은 교실, 준비실, 특별실이 배치되어 있었다. 2층 중앙계단의 오른쪽은 교실 2칸, 왼쪽은 교실 1칸에 제도실 1칸이 있었다. 그 외에 기숙사의 평면도도 확인되는데 1926년 당시에는 일본식 목조건축에 총 15실, 약 93평(30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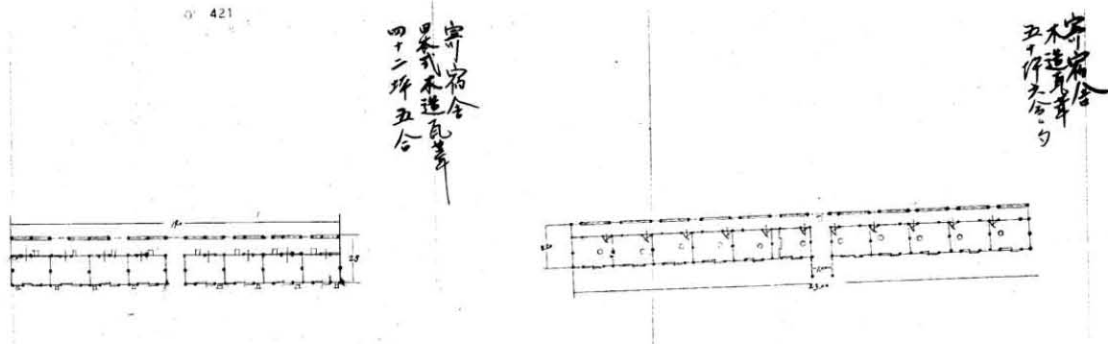


그림 15. 광주공립농업학교 기숙사 평면도, 국가기록원, CJA0004713, 1926년

광주공립농업학교 교사의 위치는 1970년대 항공사진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적벽돌 조적조 교사(校舍)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2-52, 92-53, 92-62, 92-63, 92-72, 92-73, 92-76, 92-105 번지에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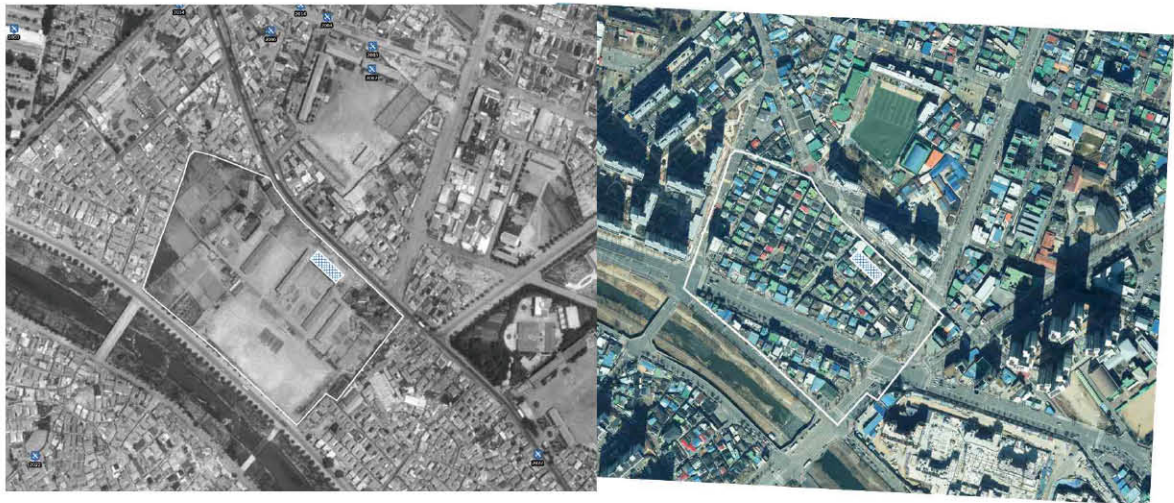


그림 16. 광주공립농업학교 본관의 위치 추정

좌: 1976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우: 2024년 항공사진(카카오맵)

16) 플루팅(fluting)은 기둥의 표면에 수직으로 둥글게 새긴 홈으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건축 등 고전건축에서 주로 사용된 기법

4) 흥학관

흥학관(興學館)은 1921년 광주의 부호 최명구(崔命龜)가 회사한 돈으로 최명구의 동생인 최종윤이 지역 청년들의 문화,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해 세운 건물이다. 흥학관 설립을 맡은 최종윤은 1920년 광주청년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1921년부터는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총무와 기자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당시의 흥학관은 실내 체육과 강연 등 문화 행사가 가능한 흥학관 건물과 건물 앞의 너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흥학관, 광주향토문화전자대전) 흥학관이 신축된 후 실린 신문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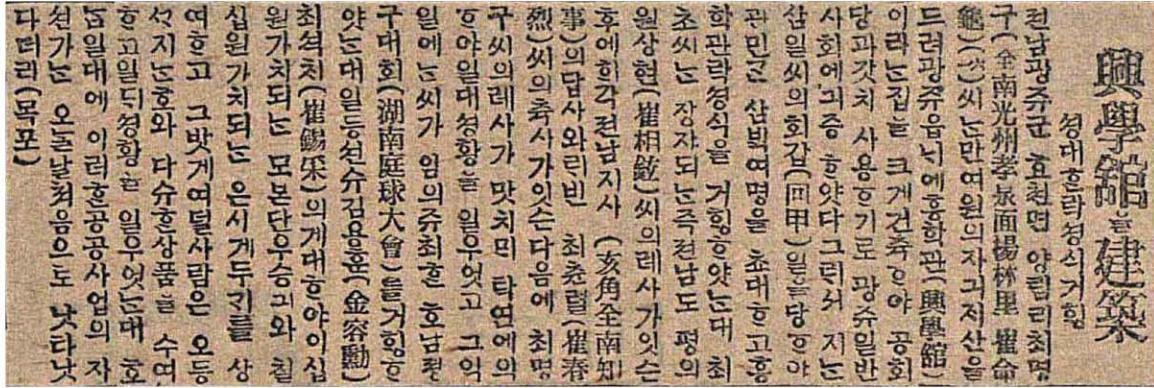


그림 17. 흥학관 건축 후 낙성식 기사, 매일신보, 1921년 4월 15일

흥학관 건축, 성대한 낙성식 거행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최명구씨는 만여원의 자기 재산을 들여 광주읍 내에 흥학관이라는 집을 크게 건축하여 공회당과 같이 사용하기로 광주일반사회에 기증하였다. 그래서 지난 3일 회갑을 맞이하여 300여명을 초대하고 흥학관 낙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최씨의 장자되는 전남도 평의원 최상현씨의 의례사가 있는 후에 이스미 나카조(支角仲藏)전남지사의 답사와 외빈 최춘열씨의 축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최명구씨의 의례사가 있었는데 매우 뛰어나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그의 일에는 최씨가 임의주최한 호남정구대회를 거행하였는데 우승자 김용훈, 최석체에게 수여되는 우승트로피와 칠십원 가치의 은시계 2개를 협찬하고 그밖에 8명은 다양한 상품을 수여하여 일대 성황을 이루었는데 호남 일대에 이러한 공공사업의 자선가는 근래들어 처음이라고 한다.

흥학관 내부는 유도나 권투 교습의 체육 활동을 비롯 광주청년회, 신간회 광주지회, 조노동공제회 광주지회, 광주청년학원 등의 사무실과 집회 장소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광주여자청년회 주도의 여자 야학 및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가 진행하는 야학도 흥학관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넓은 실내 공간을 이용한 각종 강연회도 개최되어 송진우(宋鎭禹), 안재홍(安在鴻), 방정환(方定煥) 등 유명 인사의 강연회가 열렸다. 흥학관 앞의 마당은 연식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 행사장으로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말엽에는 건물과 부지가 광주부청(光州府廳)에 넘어가게 되어, 전시의 광주식량배급조합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활용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초대 광주시의회 의사당으로 활용되는 등 광주 지역 정치사 측면에서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흥학관, 광주향토문화전자대전)



그림 18. 홍학관 (1923년), 남도일보
광주고등보통학교 야구선수단 창단기념
홍학관의 우측 끝이 보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9. 홍학관 (1929년), 광주일보
조선청년총동맹 전남도연합 정기대회
건축형식과 평면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홍학관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의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1929년 11월3일 이곳에서 장석천·장재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운동 지도부 대책회의가 열렸다. 홍학관 회의가 끝나고 졸업생들이 광주고보로 들어가 교사들을 설득해 학생들과 교문으로 함께 빠져나오면서 시위를 시작해 시민들이 가세했다고 전한다.(양성현, 2021)



그림 20. 홍학관의 위치 추정과 서광산정(西光山町)의 일대 모습
(좌 : 광주 하수 개수공사 실시 설계서, 우 : 1915년 지적도)

홍학관의 정밀한 위치파악을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광주 하수 개수공사 실시 설계서’와 1915년 제작 광주 지적도를 참고하여 표기한 결과 서광산정 31대 또는 37대(국유지)로 파악할 수 있다. 홍학관의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해봤을 때 광주군청의 측배면 마당을 공유하여 다양한 행사에 많은 군중이 오더라도 수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5) 광주역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광주역은 1922년 7월에 영업을 시작한 철도의 정차장이



그림 21. 해방이후 광주시가지 전경

광주군청, 흥학관(추정), 물산진열장, 전남도청일대 등이 보인다. e뮤지엄 다. 송정리와 광주간 철도가 개통된 시기에 맞춰 문을 열었다. 대인동에 광주역이 들어설 때에는 주변에 마을이 없었고, 역은 처음부터 광주의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다.

이 광주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격동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철도가 놓인 1920년대부터 광주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1929년 당시 광주에 8개의 중등학교가 설립된 배경도 광주가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였다는 점이다. 많은 수의 전라남도의 학생들도 광주 소재 학교로 통학했는데 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철도였을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광주역 이용 승객은 57만명이었고 이 중 9~10% 가량이 광주로 학교를 다니는 통학생이었을 것으로 추측(조광철, 2018)하고 있다. 열차를 이용한 광주군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자, 인접한 나주군이나 담양군의 학생들이 광주 지역으로 통학하게 되었고, 광주역은 그런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1928년에는 이경채(李景采)가 주도한 항일 격문이 광주역 내에 걸렸고, 1929년 11월 3일에는 통학열차 내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과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경찰들의 차별적 태도를 기화로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다.(배재훈, 디지털광주문화대전)

현재는 광주 동부소방서가 자리하고 있으나 과거 대인동 324번지와 312번지 사이에는 광주역 [당시 명칭은 광주 정차장]이 자리하였다. 당시에는 광주면 성저리로 불리는 곳으로 근처에는 광주읍성의 해자와 연결되는 도랑이 있었고, 북쪽에 동계천이 흘렀다.

1925년 朝鮮의私設鐵道¹⁷⁾에 의하면, 광주역의 전체[用地面積] 면적은 23,796평이었고, 성토하여 다진 땅의 면적[地築面積]은 18,643평이었다. 위의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차장(停車場)의 제원이다. 정차장본가(停車場本家)의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광주역 건물은 길이 21.5칸, 폭 8.5칸으로 면적 182.75평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길이 21.5칸은 39.087m, 폭 8.5칸은 15.453m를 의미한다.

17) 朝鮮の私設鐵道, 鈴木清, 竹内虎治, 南滿洲鐵道株式會社總務部調査課 編, 1925



그림 22. 광주역 전경,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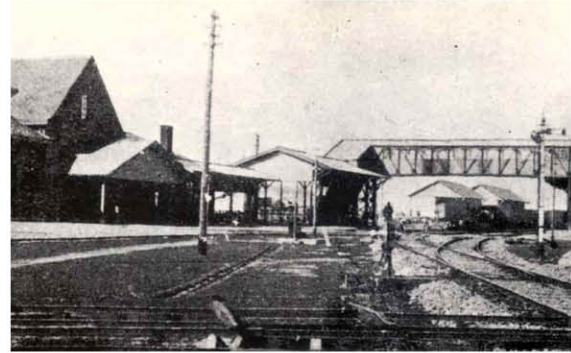


그림 23. 광주역 전경, 광주100년

광주역은 정차장본가 외에도 대합소 24평(길이 21.8m, 폭 3.6m), 화물상옥[물품창고] 45평(길이 18.2m, 폭 8.2m), 영업창고 130평, 창고 15평(길이 9.1m, 폭 5.5m), 기타건물 9평, 화물플랫폼 880평(길이 160m, 폭 18.2m), 여객플랫폼 300평(길이 91m, 폭 10.1m) 등을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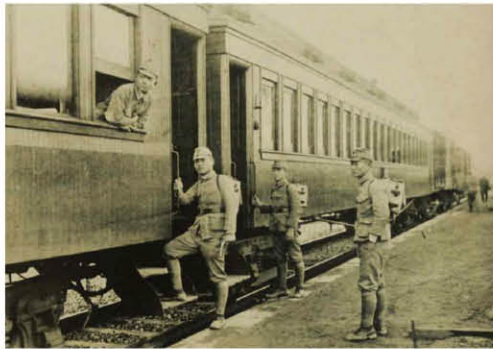


그림 24. 광주의 통학열차(1940년대) 광주갈피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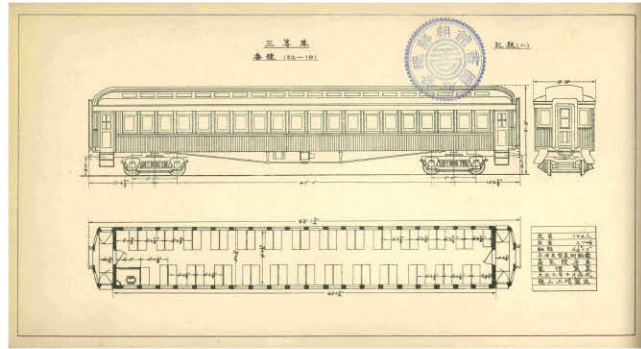


그림 25. 3등객차 입면도 및 평면도 (좌측의 객차 차량형식도, 조선총독부철도국)

개통 당시 광주역의 디자인은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의양풍건축(擬洋風建築)¹⁸⁾ 양식 중 독일의 파흐베르크(fachwerk)¹⁹⁾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지붕은 마름모 형태의 석면타일 슬레이트가 덮여 있고 창호는 오르내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광주역의 서쪽은 대합실, 동쪽은 역무실 등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표구(승차승객의 표 검사 구역)와 집찰구(하차승객의 표 회수 구역)는 분리되었으며, 개표구는 대합실과 맞물려 선로 쪽에 있었고 집찰구는 건물 동쪽에서 지붕 및 슈드에 연장되어 있었던 것 같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했을 때에도 광주역은 이런 모습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2)

광주역 정차장본가[광주역 건물]의 도면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검색과 분석을 통해 1929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비슷한 시기와 규모의 광주 송정리역과 목포역 평면도를 통해 광주역의 내구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8) 의양풍건축(擬洋風建築)은 일본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의 일본에서, 주로 근세 이후 기술을 익힌 도편수(목수의 우두머리)들이 설계·시공한 건축을 말한다. 종래의 목조 일본건축에 서양 건축의 특징적 의장이나, 때로는 중국풍의 요소를 혼합하여, 서민들에게 문명 개화의 숨결을 전달하고자 각지에 건설되었다.

19) 파흐베르크(fachwerk)는 독일의 전통주택을 짓는 방식 중 하나로 나무로 뼈대를 완성하고 뼈대 사이에 벽돌이나 진흙을 채우는 방식을 추구하는 건축이다.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체인 목재가 벽의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고 창문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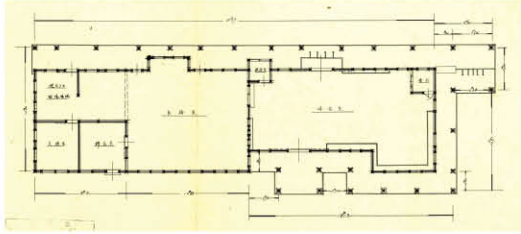


그림 26. 송정리역사 평면도(1913)
철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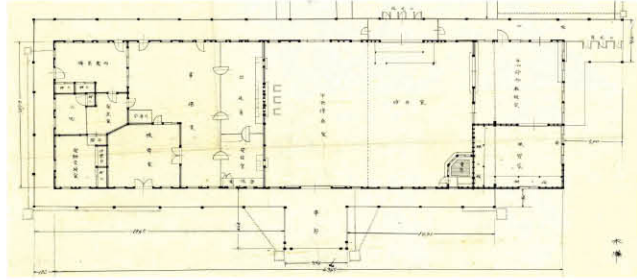


그림 27. 목포역사 평면도(1913)
철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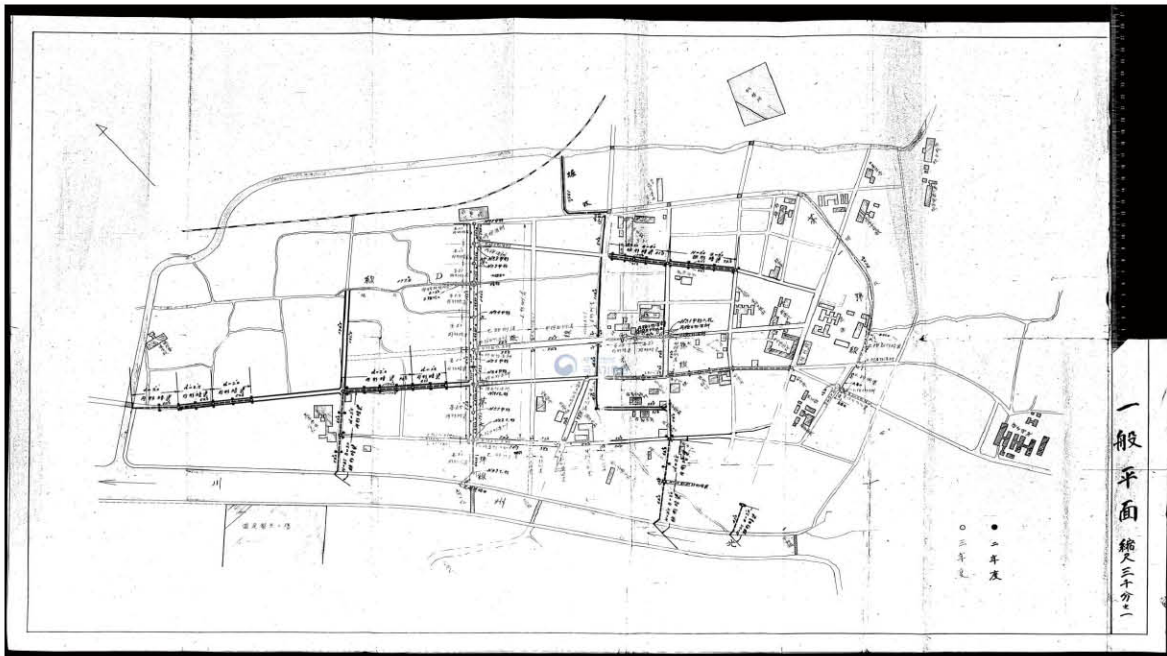


그림 28.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역[광주정차장]과 구성로의 하수도 정비 (1929)
국가기록원, 광주 하수 개수 국고 보조 공사 준공의 건



그림 29. 광주역 광경, 광주 100년



그림 30.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광주역앞

6) 황금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67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에서 개관하였다. 이후 1968년 7월 1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설 도서관을 개설하였으며, 1979년 11월 23일 본관의 5층과 6층을 증축하였다.(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디지털광주문화대전) 회관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4방향의 입면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계획하였다.(아래의 사진은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1967년 국가지원과 전국학생모금으로 건립된 학생회관은 1966년 초 박정희대통령의 지방 순시 시에 국군 장병복지센터로 이용하던 부지 1,147평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한 후, 1966년 4월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방부의 징발재산 해체를 지시하였으며 1966년 10월 7일 광주시가 재무부로부터 부지를 무상 양여받아 등기처리 하였다. 회관의 건립은 전국에 걸친 기부금 모집허가를 받아 1966년 4월 20일 학생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림 31. 광주학생회관 건립공사, 1966년 현장 뒤에 1961 신축된 산업은행(구 식산은행)



그림 32. 광주학생회관 건립공사, 1966년 영부인 육영수여사 현장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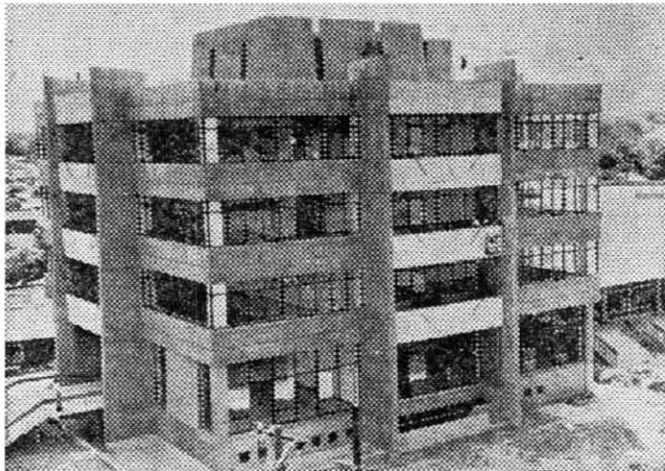


그림 33. 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전경 동아일보, 1967년 11월 3일



그림 34. 구) 광주학생회관 정문 조선일보, 1967년 11월 2일

1967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한 지 38년 만에 회관을 개관하여 학생회관 재산 일체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인계 신청하였고 1967년 11월 4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승

인되었다. 당시 인계대상 재산은 부지 1,147평, 회관 연면적 925.2평, 강당 280.4평 등이었다. (국가기록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 2000)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총공사비 8,200만원으로 1966년에 착공하여 건축면적 125평의 4층 건물로 계획하였는데 1, 2, 3층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4층은 강당으로 사용하였다.(동아일보, 1967. 11. 3.) 기념식과 준공식은 광주서중(현 광주일고)의 기념탑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효상 국회의장, 부의장, 문교부장관, 각 시도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대표 등 1만5천 명이 참석하여 햇불 점화식 등이 이루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致謝)를 통해 “민족의 기상과 정기를 내외에 과시했던 광주학생의거는 기미년 3·1운동과 더불어 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이라고 밝혔다. 이후 황금동의 기념회관에서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황금동에 위치한 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건립은 대통령,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의 행정부서를 비롯하여 국민의 성원과 기금모금으로 촉발되었다. 1950년대 광주지역에 3곳의 기념탑 건립 사업 이후 1960년대 대대적으로 추진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성역화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장소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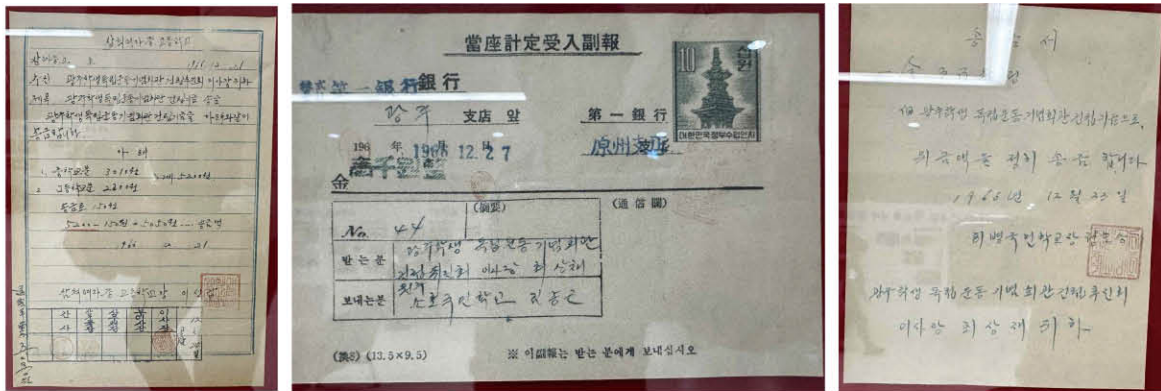


그림 35.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건립 모금운동 증명서류, 1966
좌부터 강원 삼척여자중고등학교, 강원 원주 소초국민학교, 강원 원주 취병국민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나.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보존

1)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문화유산 지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현장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는 매체를 통해 지정 또는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역사 현장은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 시각적 가치 등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심대하여서 그 주체성을 보존할 만 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문화유산은 정부, 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자 등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갖는 집단 기억과 가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유산은 현재 우리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해석에 따라 변화된다. 문화유산을 문화의 산물로 인식하기보다는 문화화(文化化, Enculturation)되어 가는 과정의 인식으로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현장 역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전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를 지녀야 할까? 다양한 가치기준이 있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과 활동 무대였던 유형적 자산이 광주의 도처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문화유산의 정의 중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장소(places), 유적지(site), 구역(district), 유구, 건축물, 구조물(structure) 및 특별한 가치를 지닌 물건(유물)이 사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선사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 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생활 등의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나야 하며,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 국가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한다.

2) 문화유산 지정 사례 검토

2024년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몇몇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사적 중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대상을 지정된 가치 중심으로 기술코자 한다.

인천 팔미도 등대(仁川 八尾島 燈臺)는 1903년에 세워진 국내 현존최고(最古)의 근대식 등대로서,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당시 연합군함대를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6·25 전쟁의 국면을 일시에 뒤바꾸는 데 기여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가 있다.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 군산세관 본관(舊 群山稅關 本館)은 1908년 군산항에 군산세관의 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당시 감시계 청사 및 감시 망루 등 다수의 시설물들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이 남아 있다.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건물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龍山神學校)는 1892년에 프랑스인 코스트 신부가 설계한 반지하 1층·지상 2층의 벽돌건물로서 한국 최초의 신학교 건물이며, 중앙에 현관과 지하층 출입구를 두고 좌우에 1층 현관에 이르는 계단을 설치했다. 오늘날의 용산신학교는 학교가 혜화동으로 이전하여 성모병원분원으로 사용하다가, 성심회에서 수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래의 건물 일부에 증축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건물로서, 매우 중요한 건축사적 의의를 갖는다.

장흥 석대들 전적 (長興 石臺들 戰蹟)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 (현 강진군 강진읍, 국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율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낳게 한 전적지이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로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한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적인 장소이다. 정읍황토현전적지(사적)와 공주우금치전적지(사적), 그리고 장성황룡전적지(사적)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 지정된 전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울 경교장(서울 京橋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선생이 1945년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1949년 6월 26일 암살당할 때까지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의 양관으로 전면 분할의 비례가 아름답고 1층의 출창(出窓)과 2층의 들임 아치창을 이용한 단아한 외관이 일품이며, 김해경(시인 이상)이 졸업한 경성고공 출신으로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김세연(金世演, 1897~1975)이 설계하여 1930년대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다.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舊 大邱醫學專門學校 本館)은 한국 근대 의학교육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전체와 세부 구성이 치밀하고,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수준 높은 건물로서 근대건축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사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공주 우금치 전적 (公州 牛禁峙 戰蹟)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최후의 격전을 벌인 장소로 동학농민군이 반봉건·반외세 기치를 걸고 마지막 항전을 이루어냈던 곳이다. 한국 근대사의 한고비를 이루는 무대가 된 뜻깊은 장소이다.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은 1919년 3월 1일 처음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3·1운동의 출발지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곳이다.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舊 西大門刑務所)는 1945년까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과 박해를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은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독립의 역사를 지니며 그후로는 민주화와 정치적 변화의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서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존과 자주정신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으로 매우 뜻깊은 곳이다.

정읍 황토현 전적 (井邑 黃土峴 戰蹟)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격전지이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보여준 개혁정신과 민족자주정신은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구 서울역사(舊 서울驛舍)는 일제 강점기 당시 물자와 인력수급 등 전쟁 물자 공급을 위한 기본 운송수단으로서 역할을 위해 일본이 지은 역사 건물로, 사이토 마코토 글씨를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정초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대륙침략의 발판으로서 일본이 자행했던 한국 침탈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구 목포 일본영사관(舊 木浦 日本領事館)은 유달산 기슭에 위치하며, 붉은 벽돌을 이용한 2층의 르네상스 양식 건물이다. 건물 평면은 장방형으로 중앙 바깥쪽으로 현관을 두었고, 내부 바닥을 나무로 구성하였으며, 우진각 지붕으로 이루어졌다. 대리석으로 치장한 벽난로와 당시 사용하던 거울 등이 원형 그대로 잘 남아있다. 일제 침략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교훈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서울 舊 러시아公使館)은 고종 27년(1890)에 지은 르네상스풍의 2층 벽돌건물로 일본군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고종이 세자와 함께 피신하여 있던 곳이다. 이 기간 친일파인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친러시아적인 박정양 내각이 조직되었으며, 서재필이 주도하는 독립협회가 결성되었다.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심하게 파괴되어 탑과 지하2층만이 남아있었으나, 1973년에 복구되었다. 한쪽에 탑을 세웠으며, 정문은 개선문 양식이다.

3)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 가치 증진과 보존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유산 지정에 따른 주변 사유재산의 손해 내지는 개발행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나은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언젠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을 비롯하여 관련법에서 말하는 가치평가 기준은 역사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를 의미한다. 역사적 가치는 인물유적, 역사현장, 지역특성 등을 의미한다. ‘인물유적’은 역사적 인물과 관계있는 공간이나 건축물로서 한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간(空間)으로 역사적 가치로 기념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위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가치를 발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물과 관련된 공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으로 각인되고 기억되겠지만, 1929년의 역사적 사건과 가치를 100여 년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현장에는 착실하게 팻말로 사실 관계를 기록하여 두었으나 개발논리로 인해 역사 현장은 대부분 사라져 버린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역사적 현장’이 그나마 살아 있는 곳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본관(현, 역사관)과 1950년대부터 조성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비, 황금동 광주학생회관 등이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교사(校舍), 광주공립농업학교의 넓은 부지와 적벽돌로 지은 본관, 광주 흥학관과 이들 ‘역사적 현장’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옛날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아득하게 전해질 뿐이다.

‘지역적 특성’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지역의 특성이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거나 일반대중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지역색은 매우 뚜렷했고,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을 뿐 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숭고한 정신이 깨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학술적 가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도시와 건축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역사적 현장’에 대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중요한 정보의 보유’ 또한 ‘학술적 가치’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시대의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은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했을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드문 문

화유산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일어난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학생 중심으로 시작된 후 각종 청년단체, 노동단체, 신간회, 해외 독립운동단체, 해외 피압박민족해방운동관련 옹호 지지운동단체, 반제동맹이나 중국공산당, 중국국민당의 각종 기관들, 해외조선인들이 만든 재만한족연합회와 같은 기성단체를 포함하면 규모나 역할, 국제적 성격은 1929년 세계정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광주학생독립운동, 우리역사넷)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중요한 사건,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가치(價値) 근거

가치기준	가치 근거
인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과 관련 인물이 알려져 있으나 대표성을 띠거나 위인으로 평가받는 인물 부각이 필요 ex)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이승만), 서울 구서대문형무소(김구,윤봉길, 유관순 등), 정읍 황토현전적(전봉준), 서울 구러시아공사관(고종)
역사적 현장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본관, 학생독립운동기념탑(3곳+2곳), 황금동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에 대한 성역화 필요 추가로 역사적 현장의 적극적인 복원(홍학관), 역사적 현장의 보호와 홍보(광주역, 광주공립농림학교 터,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건물터 등)
지역적 특성	광주에서 광주의 학생들에 의해 발생하여 전국, 해외로 확산된 운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를 통한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던 항쟁
학술적 가치	방대한 사료를 통해 역사적 공간에 대한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내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시작부터 시간순으로 광주 관내의 역사적 공간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수집과 분석 필요
시대의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광주 학생들은 당시 사회운동, 청년운동 등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 수용력 표출함과 동시에 식민지 교육 체제를 반대하고, 민족 교육을 주창하며 필기한 민족 독립 항쟁이라는 대표성과 희소성 내포

4. 맺음말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 지역의 학생이 주도하여 일으킨 항일독립만세운동으로 3·1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민족운동 가운데 하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던 해에 광주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광주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만주를 비롯하여 일본 등 해외까지 파급되었다. 194개교 54,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규모나 영향력에서 결코 3·1운동에 결코 뒤지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단순히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정책과 세계대공황,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의 활발한 전개 속에서 응축되어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저항운동이었다.

5년 후면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은 그간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이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달성한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가치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2024년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공간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일이다. 1929년 학생운동 당시 가두 시위 행진이 있었던 학생운동의 역사적 산실로서 학술조사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공

간, 전남도청 - 도립병원 연결도로(현, 문화전당로)의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 한쪽의 역사적 건축물들이 대거 철거되는 일이 있었다. 현행법상 진행되어야 하는 기본 지표조사는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근대기부터 현재까지의 광주와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지상의 도시 건축공간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3,000세대의 누문동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 주변 공간들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직 찾지 못한 많은 역사현장이 존재할까?

문화유산의 가치는 과거로부터 지켜온 노력에 발굴된 가치를 더하여 빛이 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현장은 광주의 기념물로 지정해 둔 몇몇 장소만 남을 것이 자명하다. 더 늦기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역사현장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 매진할 때이다. 이런 종류의 일은 기념사업회, 학자, 시민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광역지자체(광주광역시청)와 기초지자체(해당 각 구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은 주도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여 맞이하자. 남은 시간동안 역사현장에 대한 학술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100년의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현장도 재현해야 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유산으로 지정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박물관 건축도면 아카이브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아카이브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 서비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조선총독부 관보
광주 향토문화대전
일제강점기 그림엽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염사업회, 광주학생독립운동자료, 1995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96
조광철, 광주갈피갈피(광주드림)
배재훈, 디지털광주문화대전, 옛광주역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역, 2022
양성현, 흥학관 광주사람들, 한겨레신문기사, 2021
조선총독부 경무국, 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 1979
양동주, 抗日學生史, 靑塔出版社, 1956
朴準塚, 光州學生運動, 新東亞, 1969
朝鮮の私設鐵道, 鈴木清, 竹内虎治, 南滿洲鐵道株式會社總務部調査課 編, 1925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編, 光州學生獨立運動史, 國際文化社, 1974

● 발표2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

김종순
(전남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

김종순(전남대 호남학과 박사수료,
전 나주시청 문화예술과장)

1. 머리말
2. 문화유산과 기념시설
3. 기념행사와 학술연구
4. 맺음말

1. 머리말

나주는 호남의 젖줄이며 전국 4대강의 하나인 영산강이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곡창지대이다. 구석기 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여 대형옹관으로 상징되는 마한의 토착문화가 강성한 지역이다. 백제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에는 영산강을 통해 새로운 문물들이 전해졌으며 라말려초의 격동기에는 가장 활발한 역사가 전개된 지역이었다.

고려 개국 이후로 나주는 역사의 전면에서 전라도의 정치·경제·군사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주와 함께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인근 도시인 광주로 무게의 축이 옮겨가²⁰⁾ 나주는 정체기를 지나서 쇠락의 시간을 지나다 최근에 발전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주의 전통역사경관은 훼손되었고 나주객사 금성관을 비롯하여 목사내아, 주사청, 정수루 등 일부 관아 건물만 남았다. 나주인들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나주의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옛 영광에 걸맞은 도시로의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나주군에서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분리되어 1981년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95년 나주군과 다시 합쳐 나주시로 되면서 나주읍내²¹⁾에 있었던 문화유산의 복원 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나주읍성의 남문이었던 남고문²²⁾이 1993년 복원된 이후 나머지 동·서·북문터에 대한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와 2007년 나주목관아와 향교가

20) 1896년 현재와 같은 도제로의 지방행정제도가 개편되면서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에 있었던 전주 관찰부 남원관찰부 지역은 전라북도(도청 소재지 전주), 나주관찰부와 제주관찰부는 전라남도(도청 소재지는 광주로 정해져 나주는 중심도시의 역할을 넘겨주었다.

21) 과거 나주읍을 이루던 지역 가운데 읍성이 있었던 지역 내를 지칭한다.

22) 성문의 이름은 성문을 나가면서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등을 보이기 때문에 되돌아본다는 뜻으로 남고문(南顧門)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온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역사문화도시²³⁾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일본제국주의 지배시기에 나주는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정착하여 새로운 식민지수탈의 전초 기지로 영산포가 발전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치소공간이었던 나주읍내는 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여 1913년 7월 1일 호남선 개통으로 나주역이 영업을 시작하여 물류유통과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였다. 광주로 진학하여 열차를 타고 통학하는 통학생들이 많았다. 이러한 통학 열차라는 공간에서 한일간의 학생들의 다툼이 있었으며 1929년 10월 30일 광주역을 출발한 기차는 오후 5시 35분경 나주에 도착하여 30여명의 승객들이 개찰구를 빠져 나올 때 광주중학교생 후쿠다 슈조 다나카 스에요시 등이 한국인 여학생 박기옥 이광춘 암성금자 등을 밀치는 광경을 보고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가 항의하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나주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것이다. 그 역사적 장소가 현재까지 보전되고 있는 나주역이다.

10월 30일 이후 31일 통학열차 안의 사건, 11월 1일 광주역에서의 한일 학생들의 충돌, 11월 3일 광주고보생들의 1차 봉기, 11월 12일 2차 봉기에서 나주출신 학생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1월 27일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의 봉기와 이듬해 2월 10일 2차 봉기에 이르기까지 나주지역 내에서도 줄기찬 항쟁이 이어졌다. 학생운동에 참여한 주역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는 등 고초를 당했으나 1930년대 나주 민족운동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나주역은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영산포역과 함께 폐역되고 나주시청 앞쪽에 새로운 나주역이 건립되어 2001년 7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폐역 조치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했다. 나주시는 폐역이 되기 전인 1999년 10월 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논문집을 발간하고 2000년 12월에는 나주역사를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후에는 나주역 일대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나주반 전수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등의 시설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의 현장인 나주역을 중심으로 역사 현장의 보전에 대한 그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제안까지 해보고자 한다.

2. 문화유산과 기념시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은 현존하고 있는 유적은 당시 학생운동의 현장이었던 구 나주역과 11월 27일 나주학생들의 시위 현장이었던 나주협동상회, 금남금융조합, 나주 정미소

23) 문화도시란 개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문화도시는 나주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시의 특색을 극대화하여 도시를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등이 있다. 학생운동 이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나주학생독립진원기념비, 나주학생운동기념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등이 있다. 나주인들의 의지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건립한 시설은 학생운동 이후에 건립한 것으로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1) 구나주역

구나주역은 1913년 7월 1일 호남선의 한 구간으로 학교 ~ 나주간의 종착역으로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10월에는 나주 송정간의 중간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에서의 역사건축 시설은 갑을병정의 4종류의 표준설계를 토대로 그 지역에 적합한 역사를 건축하도록 하였다. 호남선은 1910년 전후에 건설에 착수하여 목포역과 군산역은 갑(甲)형, 그외 중간역은 을(乙) 또는 병(丙)형의 역사로 지었다. 당시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²⁴⁾

표1. 일제강점기 역사건축시설의 설계기준

연대	유형(표준평수)	특징
1900년 전후	갑(50~60평) 을(48평) 병(38평) 정(30평)	임시 군용철도감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갑을형의 역사는 극히 소수이다. 유형별 표준평수는 부속건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진다. 규모:목조단층건물 재료:한국산 사용 지붕:아연파형철판 내외벽:흰색회반죽마감, 허리부분 널빤지 붙임 창틀:2중내외 쌍여닫이문
1910년 전후	갑 을 병	경원선 호남선 건설시에 표준 설계를 재정비 크기 구조에 의해 분류 호남선의 목포역, 군산역은 갑형, 그 외 중간역은 을 또는 병형
1920년 후반	난(暖) 한(寒)	
1937년	난(暖) 한(寒) 엄동(嚴冬)	목조 심벽이 많음 혹한 지방의 우물 및 상옥은 벽돌조, 콘크리트조, 블록조 2중창, 쌍여닫이문
1938년	-	1,2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과의 구별을 폐지 집찰 상옥을 폐지

1900년 전후 : 조선총독부철도국 「조선철도사 제1권」 참고, 그 외 선교회 「조선 교통사」 참고

1913년 나주역사는 58.5평으로 을 또는 병의 표준평수보다 면적이 컸다. 1923년에는 역사 북쪽에 소화물 보관창고 4평을 증축하였다. 1925년 10월 23일 역사가 신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 이때에 현재 남아 있는 나주역사의 모습과 유사한 지붕에 박공면을 나타낸 형태와 지붕의 기와도 아연파형철판으로 변경하였던 것으

24) 김흥기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구 나주역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2004. 8 p28~29 전제

로 추정된다.²⁵⁾ 이렇게 변형된 나주역사의 모습은 현재 보존되어 있는 모습인데 1929년 나주역 사건 당시의 모습으로 확인된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의 증언)



사진1. 옛나주역

사진2. 2024년 현재 나주역사

(사진출처 사진으로보는 근대한국, 서문당)

옛나주역사는 1963년 4월 1일 구내확장과 및 호남나주비료공장 전용선이 부설되어 비료생산에 필요한 무연탄을 비롯한 원료수송과 완제품의 수송을 담당하였다.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인하여 구나주역과 영산포역이 폐역되고 시청 앞 송월동에 새로운 통합 신역사가 신축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현장인 나주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과 나주시는 나주역사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 사적지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가문화유산청(문화재청)에서는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운동으로 나주역사만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과 나주시는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여 2000년 12월 29일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새로운 신나주역사에서 영업이 개시되면 구나주역사는 철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어 전라남도에서는 신속하게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²⁶⁾ 문화재 지정은 나주역사가 영업을 하는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2001년 7월 10일 새로운 신역사로 이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구나주역사에 대한 대대적인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역사 내부에는 열차시간표와 역무원의 사무공간을 재현하여 놓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단선철도일 때 역사와의 연락을 주고받던 통신시설과 그와 관련된 설비들을 구할 수 없어 모형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2)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007년 구나주역사에 대한 전면 보수가 마무리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의 역사를

25) 김홍기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구 나주역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2004. 8 p31

26) 당시에 전라남도청 김희태 문화재전문위원의 노력이 매우 컸다.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나주는 진원지일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에 참여한 김진섭·김종섭·이계춘·오쾌일·이영범·정우채 등 핵심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며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러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보훈청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였다. 당시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0% 시비가 70% 사업이었다. 3,665백만원의 예산으로 2007년 4월 6일 시작하였으나 기념관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일송정)을 짓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어 중요한 기계·전기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쪽에 설치하여 결론적으로 기념관 사업은 2,440백만원이 소요되어 당초 대비 1,225백만원의 기념관 건립예산을 절감하였다.²⁷⁾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부지는 옛나주역사 부지로 나주시에서 매입하였다. 기념관 부지는 10,273㎡(3,108평) 건물은 1동으로 846.12㎡(255.95평)이다. 2개의 전시실과 로비·사무공간·수장고를 갖추고 있다. 2층 제1전시실은 “민족항쟁의 땅 나주”라는 주제로 식민시대의 나주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층 제2전시실은 나주역에서의 사건과 11월 27일 나주 학생들의 시위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명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학생운동에 대한 공식명칭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인데 왜 나주라는 이름을 넣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나 나주는 학생운동의 진원지이고 특히 나주의 학생들이 나주에서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명명하였던 것이다.

기념관은 나주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었으나 인접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받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광주기독교청년유지재단에서 운영하다가 2012년 11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면서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념관을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상시 기념관 운영은 물론 매년 10월 30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과 ‘나주1929 AR앱 체험’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 ‘비단골역사탐험대’ 등 여러 종류의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2018년 나주시에서는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나주역 광장에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을 추진하였다. 10.30 기념탑 건립은 “우리나라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발상지인 나주역 광장에 건립하여 후배들의 나아갈 향로를 밝혀줄 등대이기를 기대하며”라는 목적을 염원하고 있다. 횃불 형태의 기념탑은 꼭대기에 3분의 학생상이 있고 둘레석에는 나주출신으로 확인된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자와 1929년 11월 27일 나주 학생독립운동

27)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산의 국비는 80% 시비는 20% 사업이었다. 국비부담이 많은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중요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참여자 대표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사진3.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사진4.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4)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 기념비

나주시 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원비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교의 나주지역 후배들의 모임인 동문회에서 주도하여 건립하였다. 나주향교 전교를 지낸 김영환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다가 재 나주서중 일고 동문회와 광주농고 등의 동문들과 시민의 정성을 모아 1981년 10월 30일 제막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4.82m이다.

표2.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시설

명 칭	종 류	건립년도	위 치	비 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탑	1954	광주제일고등학교내	기념탑건립위원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	비석	1959	광주자연과학고내	광주농고동창회 건립
광주학생독리운동여학도기념비	비석	1959	전남여자고등학교내	기념비건립기성회 건립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비	비석	1981	나주시 경현동	나주서중·일고동창회

				광주농업고등학교 교동창회 등
광주학생독립 운동기념관	기념관	2005	화정동	1967년 황금동 에 건립 2005년 이전
광주학생독립 운동기념탑	탑	2008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건립



사진5.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비 앞면



사진6. 뒷면

5)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공립보통학교

11월 27일 나주지역 학생들의 학생독립운동은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중심이었다. 당시의 나주공립보통학교는 1907년 5월에 전라우영의 관청 건물을 활용하여 개교하였다. 1908년 8월 당시의 교원은 일본인 2명, 조선인 2명 학생은 130명 이었고 1910년 3월말에는 3개학년에 3학년 교원인 일본인 1명 조선이 4명으로 남학생만 189명이 재학중이었다.

나주농업보습학교는 1926년 10월에 군민들의 부담으로 설립되었다. 남문정 본원사 뒤쪽 밭

으로 학교부지를 정하고 개학일자를 9월 1일로 예정하였다가 10월에 개교하였다. 현재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 건물은 찾을 수 없다. 1929년 11월 27일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대 행진 코스를 살펴보면 현재의 나주초등학교 정문을 나와서 중앙교를 건너서 한 조는 바로 좌회전하여 옛신협쪽 길로(구본정) 다른 한조는 직진하여 옛오약국(본정)에서 좌회전하여 협동상회 앞에서 만나 군청방향으로 행진하여 나주시장에서 시위를 한 후 사매기 방향으로 행진하여 천주교쪽에서 나주우체국방향으로 행진해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해산하였다.

학생들이 행진한 코스에는 현재까지도 협동상회 건물과 바로 앞에 있었던 금남금융조합 건물이 남아있다. 1진과 2진이 모여서 시위를 하였던 나주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나주목 동헌의 정문이었던 정수루는 지금도 있다.

6) 나주협동상회와 나주금남금융조합

나주협동상회는 나주로 142-5(중앙동 51-4)번지에 있으며 현재는 개인소유의 건물이다. 나주신간회에서 운영하던 곳으로 신간회 관련 6개 사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협동상회 자료는 나주신간회 지회 평의원과 총무(상무)간사를 역임 했던 박준삼씨와 연관되어 있는 남파고택에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나주협동상회는 신간회 나주지회에서 1929년 4월 설립하고 6월 개점한 협동조합·소비조합의 성격이 섞인 상점이었으며 고권(股券)을 발행하고 회원제로 운영되었다.²⁸⁾ 나주협동상회는 상회장 김창용과 이사장 양장주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하였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1938년 폐쇄되었다.

현재 협동상회 건물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 되어야 할 유산이다.

금남금융조합은 1920년대 나주지역의 금융기관은 18은행 나주지점과 조선식산은행 영산포지점 등 서민금융기관은 나주군내에 5개소가 있었다. 이곳 구금남금융조합 건물은 192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곳은 일제에 의해 건설된 나주목 읍성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이 나주군청 앞에서 좌측으로 꺾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나주읍내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금남금융조합은 1907년 7월에 설립한 조합으로 당시 나신면·영산면·금천면·왕곡면·세지면·다시면·문평면·삼도면 일부와 노안면 등 9개 면을 관할하는 조합이었다. 조합장을 비롯하여 25명의 관계자가 근무하였으며 조합원은 한국인 1,101명, 일본인 130명 이었다. 당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농업자금 96,264엔, 상업자금 419엔, 구채상환 140,892엔으로 총 237,575엔이었다. 예금고는 139,242엔으로 1919년 설립한 나주금융조합보다 규모가 큰 조합이었다.²⁹⁾

28) 한규무, 「일제강점기 나주협동상회의 설립과 운영」 『역사학연구』 제84집, 2021. 11.

29) 『전남사정지』 나주군 금융편

금남동사무소 자리에 있었던 옛 18은행 나주지점 건물과 비슷하나 규모면에서는 작다. 건물은 앞쪽에 여신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이 뒤쪽에는 조합장 등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에 나주읍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병원으로 사용되었다. 건물의 외부와 시설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나주지역의 대표적인 금융조합건물로서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24호로 2011년 7월 26일 지정되었다.



사진 7. 나주협동상회 모습

(『호남평론』 3-8, 호남평론사, 1937.08. 31쪽)

사진 8. 협동상회 상품 포장지

(남파고택 박경중 제공)

7) 나주정미소

나주정미소는 지금은 기능을 상실하고 나주읍성 도시재생 관련 시설로 탈바꿈하여 활용되고 있다. 정미소 정문 앞에 있는 사무소 건물이 나주농업보습학교 2학년 유찬옥과 나주 신간회지회 회원이면서 나주청년회원이던 박공근 박동희 양영택 등이 11월 11일 학생운동 협의를 가졌던 건물이다. 현재 원래의 모습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조치 중이다. 현재 정미소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나주시이다.

3. 기념행사

1) 10월 30일 기념행사(나주시민의 날)

나주시는 1980년 나주군과 분리되어 금성시로 되었으나 1986년 다시 나주군과 나주시가 합쳐져서 나주시가 된 도시이다. 나주는 임진전쟁 때 김천일이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의향이 며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 6.1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불리우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이다. 특히 나주농업보습학교 학생들과 나주보통학교 학생들은 나주가 학생운동의 진원지인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각성을 통해 시위를 전개하였다.

나주인들은 이러한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의 진원지의 의미를 담아 10월 30일을 나주시민의 날³⁰⁾로 정해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각 부문의 시민의 상 시상,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3년 3월 31일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신설하여 변화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나주시 주관으로 학생독립운동 진원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추진해왔으나 이는 학생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는 아니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다.

2008년 개관한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나주시가 직접 직영하지 않고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활동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2년 나주학생독립운동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³¹⁾하여 이 단체에서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2014년 8월 1일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10월 30일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과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념식, 헌정음악회, 특별기획 전시 및 체험행사를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참고로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3. 2023년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사업현황 예시

사업	프로그램	내 용
연구	나주출신독립운동가 자료조사 독립운동 통합 아카이브 구축사업 나주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나주출신 독립운동가 출판사업	나주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조사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통합 아카이브 연계 나주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신청 등 나주저항시인 유관 도서 구입 배부 등
기념	학생독립운동 94주년 기념행사 헌정음악회 특별기획전시 및 행사	학생독립운동 94주년 기념행사 추진 94주년 헌정음악회(사)뮤지크바움 삼일정 104주년 기념식 협조 학생독립운동 기념 전시작품 순회전 진행 그림대회 수상작 메타버스 전시 진행
교육	찾아가는 역사교실 도전! 역사골든벨을 울려라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 독립역사학습서 제작 배부	나주교육지원청(19회 403명) 죽림동 도시재생센터(23회 464명) 나주학생을 대상으로 진행(450명) 관내 초등학교 대상 나주학생독립운동 주제 그림그리기 대회(594명) 학습서 온라인 게재
홍보	전국기념관 박람회 부스운영 청소년용 리플렛 배부	기념관 홍보 나주관련 행사 홍보 기념관 곤람객에게 배부
체험	방문객 체험 나라사랑 체험마당 운영	태극기 그리기, 태극기바람개비만들기, 학생 독립운동모자 만들기, 옛 교복 입어보기 등

30) 나주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제 2조

31)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설립은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졌으나 나주농업보습학교 학생으로 11월 27일 학생시위를 주도한 이창신의 아들 이명환 등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

	전자앱 관람체험	방문객 대상 나주역 3D 퍼즐 및 기념관 에코백 채색 나주 1929AR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전자 리플릿(퀴즈)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	----------	---

3)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 헌정음악회

독일어로 ‘음악 나무’라는 뜻인 무지크바움(대표 조기홍)은 2004년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클래식 전문단체를 결성하였다. 무지크바움은 음악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음악으로 ‘역사’ 기리는 풀뿌리 문화운동을 하면서 2013년 3월 1일 사단법인 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으로 법인 등록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클래식 애호가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시작한 수백회가 넘는 ‘하우스 콘서트’ 뿐만 아니라 나주 남평 출신 안성현 선생을 기리는 ‘안성현 현대음악제’ ‘3·1운동 100돌-대한독립의 꽃 유관순’ 학생운동 · 광주항쟁 · 위안부 · 세월호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념 · 추모 · 헌정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현대음악과 미디어아트, 그리고 인공지능의 융복합을 통한 21세기 나주를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 디지털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활동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다.

특히 무지크바움은 해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됐던 옛 나주역에서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2009년 ‘제1회 기억의 의무 - 1929년 10.30 그날의 합성-’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음악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표4. (사)무지크바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 헌정음악회 개최 현황

년도	헌정 음악회 주제	비 고
2009	제1회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 헌정음악회 기억의 의무 - 1929.10.30. 그날의 합성-	10.30. 18:30분, 나주驛舍
2010	제2회 꺼지지 않는 불꽃 “나주”	”
2011	제3회 역사의 합성	”
2012	제4회 백야 白夜 1030	”
2013	제5회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	”
2014	제6회 역사의 지문	”
2015	제7회 여명을 향하여	”

2016	제8회 향전	”
2017	제9회 역사의 붉은 동백꽃	”
2018	제10회 자유	”
2019	제11회 검은 수요일	”
2020	제12회 역사(驛舍)의 멈춘 시간 5시 40분	”
2021	제13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2022	제14회 어두운 역사 빛으로 만나는 시간	”
2023	제15회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
2024	제16회 타는 목마름으로 - 1929.10.30. - 항거	”



사진 9. (사) 무지크바움이 2022년까지 공연한 포스터

4. 학술연구

1981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비를 건립한 이후에 나주역 사건에 대한 나주인들의 인식은 각인되어 있었으나 학생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호남선 복선화로 인한 나주역 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주시에서는 1999년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70주년 학술연구를 의뢰하여 70주년이 되는 10월 30일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연구는 왜 나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나주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주에서의 학생운동과 근대교육, 일본인 자본가의 동향, 나주의 근대도시 발달과 공간의 이중성 등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³²⁾ 이러한 성과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2001, 경인문화사)라는 제목의 출판되었다. 학술대회를 계기로 2000년 나주역사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99년의 70주년 학술대회 이후 10년이 지난 2009년 나주시는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항일 독립운동과 나주’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지 못하지만 10년 주기로 해야겠다는 나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발표된 논문들은 「일제하 식민지 영산포의 상인과 지주」(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일제하 나주지역의 수리조합 설치와 군민의 대응」(이승일, 한양대 사학과), 「한말 나주지방의 의병」(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1920년대 전남지방 청년단체와 청년운동」(이기훈 목포대 사학과), 「광주학생운동과 나주지역 학생들의 활동」(김성민, 국가보훈처) 등으로 나주지역 항일 민족운동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은 『항일민족운동과 나주』 책자로 발간되었다.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나주학생독립운동의 계승과 해방공간’이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90주년 학술대회는 나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의 행적을 살펴 학생운동 이후 이어져 오는 나주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1920년대 나주지역의 청년운동」(한규무 광주대), 「교과서 속 광주학생독립운동 기술과 역사학습」(김남철 완도고), 「나주 민립중학교 설립과정과 주체」(이계형 국민대), 「나주학생독립운동 인사들의 해방공간 활동과 그 향방」(노영기 조선대), 「1946년 나주지역 제 기관·단체의 현황과 인물」(김덕진 광주교육대) 등 5편의 논문이 발표 토론되었다.

나주시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나주학생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나주의 독립운동 역사와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가 미흡함에 따라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에는 『나주독립운동사』를 전남대학교 윤선자 교수에게 의뢰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나주독립운동의 배경과 나주의 의병운동과 계몽운동, 1910년대 나주의 항일비밀결사와 3·1운동, 1920년대 나주의 민족운동(청년·노동·신간회·교육·학생), 1930년대 민족운동, 나

32) 당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찬승 「11·3 학생독립운동과 나주」, 박만규 「한말 일제시기(1895~1929) 나주지역의 근대교육」, 김민영 「일제하 나주·영산포 지역 일본인 자본가의 동향 - 1920, 1930년대를 중심으로」, 고석규 「나주의 근대도시 발달과 공간의 이중성 - 1929년 나주역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주인들의 국외독립운동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나주출신 독립유공포상자와 현충시설 등을 신고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독립운동가 연구 사업으로 2022년 5월 14일 ‘조선 저항시인과 탈식민주의’를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세계를 향한 조선 시인들의 강렬한 저항의 역사를 조망하였다. 와타나베 스미코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지배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종사한 ‘국민문학’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단재 신채호의 혁명문예론」(김주현), 「조선 식민지시기의 아나키즘 독립운동」(가메다 히로시), 김정훈 교수는 「독립정신 추구한 나주지역 시인 문학과 의의」 등 4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김정훈은 나주 출신 저항시인 정우채와 이석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특히 조선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시인이자 봉황 출신 이석성(이창신)의 시 ‘우리들의 선구자 말라테스타를 애도한다’(1932.8)를 발굴해 소개하였다. 2023년에는 나주시의 지원으로 김정훈이 편저한 『朝鮮の 抵抗詩人』³³⁾이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한편 나주시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2029년 학생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행사 학술대회 나주학생독립운동 자료집 발간 등을 준비하고 있다.

5. 맺음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가 나주이다. 한국전쟁 휴전 후 1953년 국회의 결의로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결정되었다. 학생의 날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국회의원이 나주출신 김종순의원이었다. 학생독립운동은 참 나주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의 현장인 나주역은 호남선 복선화로 인한 폐역이 되면서 나주시의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진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나주역사의 보존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들어서고 인접하여 나주청소년수련관과 중요무형문화재 나주반 전수교육관 등이 건립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문화유산에 대한 점적인 관심에서 선적으로, 더 나아가 면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역사문화유산은 유·무형의 인간 활동을 담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문화 환경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이 속에 나주지역의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선적이고 면적인 관점에서 보존과 계승의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나주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광춘 생가 - 나주 보통학교 - 남파고택 - 나주금융조합, 협동상회 - 나주정미소 -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 기념비 등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문화자원화와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독립운동

33) 이 책은 이석성(이창신의 필명), 정우채, 박준채, 윤동주, 이상화, 이육사 등의 작품과 연구논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기념공간은 젊은 세대들은 기억의 경험,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지 못하기에 기억과 감동의 전달이 어렵다, 현재를 살아가는 나주인들을 위한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기억기념과 집단기억의 예술로서 공공의 기억을 되살리고 배제된 경험을 시각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³⁴⁾

또한 새롭게 건립되는 기념시설이 역사문화적 환경에 조화되도 더 나아가서 적극적 활용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퇴락해가는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역사 기념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아카데미한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매년 진행해오는 10.30일 기념식도 좀 더 시민의 품속으로 한걸음 들어가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여건에 따라서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나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나주인들이 먼저 선양하고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기초는 나주지역의 학생독립운동 참가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연구하여 나주의 정신을 미래화하는 방안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전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겠지만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상을 담아내는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에 이 일에 적합한 전공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학생운동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또한 학생독립운동을 현창하고 계승하는 일은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운동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작고하셨거나 나이가 많이 드셨기에 후세들이 어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각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나주의 학생운동 계승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민간단체인 '(사)뮤지크바움'이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 옛나주역사에서 헌정음악회를 16년 동안 중단없이 해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방법도 모색해 본다면 진정한 계승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6년 후면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나주시에서 100주년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직하여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해 본다.

34) 김허경, 「기억기념과 집단기억의 예술 모뉴먼트와 메모리얼」 『감성연구』 제22집 2021, p 170

참고문헌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 김정훈, 『朝鮮의 抵抗詩人』, 명석서점, 2023.11
-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나주학생독립운동의 계승과 해방공간』, 2019.11
- 나주시사편찬위원회, 『나주시사』, 1권, 2006
- 박찬승 외 『나주학생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 박찬승 외 『항일민족운동과 나주』, 나주투데이, 2009.12
- 윤선자 외, 『나주독립운동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2
- 『사진으로 보는 근대한국 상 산하와 풍물』, 서문당
- 전남사정지, 1930
- 김허경, 「기억기념과 집단기억의 예술 모뉴먼트와 메모리얼」 『감성연구』 제22집 2021,
- 김흥기,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구 나주驛舍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2004.8
- 김현익, 「호남호국기념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역사학연구』 제81집, 2021.02
- 이동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학생/작가의 문학적 행로」 『문화와 융합』 제43권 8호9통권 84집)
- 박찬승 「전남지방의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전남사학』 9
- 윤선자 「광주여자보통학교 학생들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역사학연구』 제89집 2023.02
-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평가와 향후과제」 『호남문화연구』 제43집 2008.12
- 이향희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역할」 『재외한인연구』 제62호, 2023. 08
- 한규무 「일제강점기 나주협동상회의 설립과 운영」 『역사학연구』, 제84집, 2021.11
- 한규무·정찬욱 「광주학생운동과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독서회」 『한국학논총』 제57호

발표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 방안

장우권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방안

장우권(wk1961@jnu.ac.kr)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장, 문헌정보학과 교수)

차례

1. 서론
2. 광주학생독립운동
3. 해외 평가
4. 국제 연대 방안

1. 서론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역사적 동인(動因)과 시공간(時空間)에서 발생
 - 19세기말 동학(농민)운동에서 1919년 3·1운동으로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발전
- 1929년 11월부터 1930년 4월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국내에서 국외로 확산
 - 간도, 북평, 상해, 무한, 청도, 봉천, 해림, 길림, 하얼빈, 연해주, 미주 호놀룰루 등 재외조선인(대한제국인)과 국내의 조선인과의 문제 인식과 연대활동
- 보도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재외조선인사회에 학생독립운동 소식이 일파만파(一派萬派)로 퍼짐
 - 상해지역, 북평지역 신문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제2의 5·4운동, 제2의3·1운동으로 부름
- 광주학생사건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조선총독부 경무국이나 학무국도 사태 수습이 안되자 확산방지에 전력을 기울임
 - 초반의 강력한 탄압책에도 대규모 시위운동이 연달아 일어나자 구속자들의 처벌수위를 낮추고 회유하거나 근신 처분
 - 경무국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재외조선인 사상 조직과 결합해서 대규모 유희항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 내무성 경시청에서도 동경시내에서 재외조선인 수백명을 긴급히 체포
- 외무성은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재외조선인과 중국인의 동요나 반발을 경계
- 현재는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확립과 발전으로 확대(민족과 국가의 자존과 자주)

◆ 이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 특히 해외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해외언론의 보도와 평가 등을 조사하여,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국제적 연대방안을 찾고자 함

2. 광주학생독립운동

▪ 독립운동의 주체

- 학생(學生)은 역사적 전환기 마다 능동적 주체자(能動的 主體者)였으며 상아탑(象牙塔)의 숭고한 교육과 학문의 이념을 행동으로 나타냄
- 특히 1920년대 학생중심의 독립운동. => 6·10만세운동(1926) 광주학생독립운동(1929)

▪ 학생운동의 형태와 식민지 인식

1) 학생단체의 조직

- 3·1운동 이후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식민지 현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이의 타개책을 모색
 - 즉 민족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민족주의의 구성체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고 이를 실천으로 옮겼음
- 1920년대 조직하여 활동한 학생단체의 수는 (표 1)과 같이 전체 392개

<표 1> 1920년대 학생단체의 수

연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합계
친목단체	8	36	66	54	11	69	51	37	26	15	373
운동단체	4	-	3	3	1	6	2	-	-	-	19

- 특히 운동단체는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고 활동목표가 항일투쟁에 있었음
-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지하조직으로 결성하여 학생의 의식 수준을 급 성장
 - 대표적 => 경성학생연맹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 창립 강령과 주요 활동 내용(표 2)

<표 2> 京城學生聯盟과 朝鮮學生科學研究會

학생운동조직	창립	강령	활동
京城學生聯盟	1925.11	“과학사상의 연구, 보급과 당면문제의 自決, 미래 사회 진위의 역군될 필요한 훈련을 기함”	· 서울파 사회주의 인사 지원 · 반종교활동에 치중 · 부분적 활동에 머물
朝鮮學生科學研究會	1925.11	“사회과학 보급, 학생의 사상통일과 상호단결, 인간본위 교육의 실시, 조선학생 당면문제의 해결”	· 고려공산청년회와 연계 · 6·10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 (학생운동의 주도적 단체로 부상) · 재일 신흥과학연구회 등의 조선학생회와 연계

2) 朝鮮學生科學研究會와 讀書會

- ▶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서울지역 각 학교에 독서회 결성 추진과 지원
- ▶ 중앙고보, 배재고보, 휘문고보, 보성전문학교 등에 독서회(讀書會)을 성립
- ▶ 1927-1929년간 전국 각 중등학교에 사회과학연구 연구를 목적으로 한 독서회가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식민지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계기
- ▶ 각 지방의 독서회 조직과 활동내역
 - 1927. 부산제2상업학교 독서회: 식민지 현실의 타개책을 논의
 - 1928. 북청농업학교독서회: 독서력의 양성, 학식 교환, 참고서 이용 등(학교 당국 허가 받음), 전교 학생대회 개최, 전교생 약 70명을 선출하여 독서토론 진행, 학교교실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사회과학을 학습
 - 1928. 이리농림학교 마르크스 사회과학연구회 조직
 - 1929. 강릉공립농업학교 28명의 학생들이 독서회조직, 사회주의 서적 회람강독, 광주농업독서회, 광주고보독서회, 광주사범독서회 등

- ▶ 독서회는 개별학교 단위로 조직, 지역 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조직으로 결성,
 - 대구의 신우동맹, 광주의 성진회, 진주의 동무사 등
- ▶ 대도시, 고보, 농교, 사범학교 등 각종 중등학교가 설립된 지역
 - 학생들의 유대관계로 인해 연합조직이 발달, 이들은 맹휴나 시위운동도 연합하여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음

3) 동맹휴학

- ▶ 동맹휴학(同盟休學)은 학교에 대한 불만과 식민통치에 대한 거부와 독립을 회구하는 민족적 염원의 발로
- ▶ 동맹휴학의 지속적인 항쟁은 항일독립정신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귀결. 동맹휴학횟수는 400여건으로 나타남

<표 3> 1920년대 맹휴 건 수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합계
횟수	23(33)	52	57	14(24)	48	55	72	83	404*(424)**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考察』(1929), p.10.
 ** (424) 朝鮮總督府警務局, 『高等警察報』(1936), pp.40-41.

➤ (표 4)는 동맹휴학의 원인과 조치

<표 4> 동맹휴학의 원인과 조치

동맹휴학의 원인	동맹휴학의 조치
① 학교설비·교칙·학과·기타에 의한 맹휴 - 졸업생의 자격인정, 국어사용 요구, 도서실의 개방 요구, 운동장의 확장, 우수교원의 증원 및 보충 등 학사운영의 제반사항 ② 교원배척에 관한 맹휴 ③ 학교 내부에서 생긴 일에 관한 맹휴 ④ 학생 간에 생긴 일에 의한 맹휴 ⑤ 지방 문제에 관한 맹휴 ⑥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의 영향을 받은 맹휴 - 조선인 차별의 철폐, 일본인 교원을 조선인 교원으로 교체할 것, 조선어과 신설 존중 및 시간 증가 요구, 학우회·교우회의 자치 요구, 학교 내 집회·연론·출판의 장유 요구, 일본 신민화 교육정책 반대 등 상당히 다양화	· 1920년대 맹휴 404건 중 학교당국 수용 33건(85) · 회유와 설득, 주동자 처벌 (7,674명; 학교 처벌 6,809명, 재판 172명, 훈계 등 693명 모두 865명)

4) 동맹휴학에 대한 언론의 태도

- 언론은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 (표 5)의 동아일보 논조에서 잘 나타남
 -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자제 촉구에서 학무국의 반성, 진일보

<표 5> 동맹휴학에 대한 언론의 인식 태도

논설 제목	논설
· 맹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 · 「同盟休校問題(一)」 (동아일보 1920년 6.16, 17일자)	“..학생의 맹휴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간의 일시적인 충돌로서 이해관계가 아닌 쌍방간 양해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 이라 하며 학생에게는 자제를 촉구하고 학교당국에게는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숙고하여 반영하라고 함
· 「學生諸君에게 告하노라-同盟休校의 惡習(中)」 (동아일보 1922.2.12.일자)	이전의 논조와 판이하게 일방적으로 맹휴 행위를 맹비난하면서 학생의 자제를 촉구
· 「이것이 重大問題」(1924.6.2.일 자) · 지금까지 학생일변도의 비판에서 다소 후퇴하여 사회와 학교가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	“각 학교에서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학생이 지각없이 경거망동을 책망할지언정 옹호할 생각이 적고 학교당사자의 체면을 존중하여 엄숙히 처벌함을 지당하다고 수긍하는 아니할 지언정 무리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 학교당사자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幼子문제 같이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폐단이 아주 많지 아니 한가”

<p>·「同盟事件과 教育者의 責任-德育 缺陷이 그 原因」 (1927.8.28.일자)</p>	<p>“각 학교 맹휴의 인과관계에서 첫째는 교육자의 책임이다. 교육의 근본적 의의가 인격의 향상과 능력의 발전에 있다고 하면 교육자 자신부터 완전한 인격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맹휴의 원인이 심중팔구 교사의 불비이거나 인격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학교당국자가 충분히 반성 자각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맹휴가 일어난 경우 학생을 사법경찰의 손에 넘겨 시비선악을 가리려는 것은 교육의 파멸을 의미한다. 둘째는 학생의 자중이다...”</p>
<p>·「盟休頻發과 教育行政의 失敗」 (1927.8.31.일자)</p>	<p>“맹휴의 이유로 설비의 불충분, 불량교원의 배치, 민족감정의 무시를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경거망동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그 원인으로 보아 교육행정의 실패이다.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학무당국의 실책은 첫째 민족적 사상·감정의 무시에서 비롯되었으며 학교에서 학생에게 민족적 열등감을 야기시킨 것은 교육행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둘째 불량교사의 채용이다. 인경으로 교도하고 덕망으로 가모하시켜야 할 교육자가 치자의 태도로 임하고 정략으로 교도하는 추태는 교육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셋째 설비의 불충분이다. 현재 조선은 신문화의 동경과 각성한 대사회가 횡류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중의 열망에 순응하여 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학무당국이 맹휴를 촉발하였으니 반성을 촉구한다.”</p>
<p>·「盟休學生의 司法處理」 (1928.8.27.일자)</p>	<p>“맹휴의 빈도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은 제쳐두고 젊은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는 상황은 학교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의 적용도 범위와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대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와 학문의 독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선은 학교 내에서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중등학생에게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다. 맹휴의 원인은 조선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교육방침과 교육행정의 결함에도 禍因이 되고 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으나 자유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p>

5) 식민지 인식과 학생운동

- 학생들은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자각하여 깊이 고민하고 이를 위한 행동으로 그 타개책을 모색하였으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짐(표 6)

<표 6> 학생들의 식민지와 사회인식

<p>·「국경의 비오는 밤」: 압록강에 민족의 비애를 담음</p>	<p>“아, 푸르게 흐르는 압록강이여, ... 백의민들의 눈물은 한없이 흐르고 있다. 저쪽은 중국이요 이쪽은 조선이다. 오직 그 사이에 생활하는 백의민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부자유를 받아 얼마나 원한이 많은 세상을 건너고 있는가. ...만주의 광야에는 기백만의 동포가 있다. 그곳에는 얼마나 백의민들의 원한이 있는지 너는 아는가. 만주에 표랑하는 동포들의 비가를 생각하지 않는가... 암흑의 조선에도 광명이 비추고 있다. 백의민들의 동포여, 우리들도 잘 살아 보자. 그리하여 삼천리 무궁화의 들녘에서 영원히 영원히 타인의 간섭없이 생활하자.”(孤憶, 「국경의 비오는 밤」, 『培材』제10호, 1926.12.)</p>
<p>· 식민지 민족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자각</p>	<p>“純粹한 白衣族을 계승할 자도 우리들이요 황폐한 權域을 개척할자도 우리들이다. 만철하고 강한 팔과 다리로 개척의 삼을 굳게 잡고 自作自給, 自製自決, 自助自強하여 결코 기왕의 간섭자나 감독자를 필요치 않고 황폐해진 이 강산을 빛나게 하지 않으면 아노된다.”(李錫奎, 「스스로 나아가는 역군이 되자」, 『培材』제10호, 1926.12.)</p>
<p>·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거나 세계정세를 논함</p>	<p>「농부의 閑話」(『위문』제2호, 1924.6.), 「도회와 농촌」, 「국민성과 평화」(『송실』제4호, 1926.11.), 「농촌문제와 우리들의 각오」(『배재』제11호, 1928.3.), 「현대와 우리」(『고창』제4호, 1928.4.), 「조선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의 이론 체계서론」(『송실전문학교 학생기독청년회』1928.6.), 「사회제도는 불가변적이 아니다」(『桂友』제4호, 1928.8.), 「우리의 급무는 경제?교육?」(『오산』제2호, 1929.6.) 등 (朝鮮總督府警務局 圖書課, 『出版物より觀たる朝鮮人學生の思想的傾向』(1931.5).)</p>

■ 광주학생독립운동

1) 성진회와 독서회

➢ 광주지역학생들은 1926년 '醒進會'라는 비밀결사와 1929년 '讀書會中央本部', '學校讀書會'를 조직하여 학생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표 7), (표 8)은 성진회, 독서중앙본부 조직과 활동을 잘 보여줌

<표 7> 성진회 조직과 활동

조직	창립	목적	활동
醒進會	1926.11	조선민족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해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 (예심종결서·판결문)*	· 회원: (광주고보) 장재성, 왕재일, 국순엽, 안종익, 김창주, 최용석, 최규창, 김광용, 정우채, 임주홍; (광주농교) 정남균, 정동수, 문승수, 정종석(충북육전), 김한필(경북상주), 박인생 · 사회과학연구의 정진, 비밀업수, 한글신문의 숙독, 동지의 획득(결의사항) · 매월 2회(1·3주 토요일)씩 회합, 수명씩 각 동지의 하숙에 회합. 이반자가 생겨 1927.3월 자진해산 · 경찰과 검찰은 성진회가 형식상 해산했으나 실질적으로 독서모임을 지속하여 1929년 독서회로 연결되었다고 봄(성진회 확대과정) · 재판기록*

<표 8> 독서회 중앙본부 조직과 활동

조직	창립	목적	활동
讀書會中央本部	1926.6	마르크스주의 연구실행에 의하여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실행	· 장재성의 지도하에 김상환, 김보섭, 윤창하, 송동식, 강달모, 조길룡, 김순복 참여 · 활동: - 부원은 매주 1회씩 회합하여 협의,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눔으로써 사회과학 연구의 밀도를 높임, 비밀 유지에도 효과적 - 각 학교별 독서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이를 통괄하는 고서회중앙부를 설치함으로써 독서회의 통일적인 운영을 도모함 - 독서회 중앙부의 경우 각 학교별 독서회(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등)와는 달리 출판부를 두어 각 학교별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등사하여 공유하도록 함 - 독서회 조직과정에는 장재성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회과학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직 결성을 독려 - 소비조합의 결성도 추진 - 독서회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 - 1929년 초순 장재성의 병집 옆에 문방구점을 열고 경영은 김기권이 전담 - 독서회원의 모임 및 토론장소로 활용 · 장석천, 나승규 등 기성 사회인사들과도 연계된 활동 · 1929 9-10월에 모두 해산 - 장재성의 지시, 왜 해산하였는가에 대해 의견 분분 - 위장해산 등에 대한 이유 *1929년 말까지 광주지역 전 중등학교에 비밀독서회가 결성됨(유사시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근간이 됨) *1929.11.3 학생시위 이후 대규모 학생 검거사태가 벌어짐 * 독서회원들을 중심으로 11.12일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추진('독립운동사자료집'13, pp.1611-1700; 김성민 2013)

2)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한일학생간의 집단충돌사건이 발단이 되어 광주 학생 뿐 아니라 전국 194개교 5만4천명의 남녀학도들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고 총궐기 했던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노예 교육에 쌓이고 쌓인 민족적 울분을 전국적 규모로 폭발시킨 3·1운동 이후 민족 해방 운동이었다.”

- 광주학생운동 참여학교 숫자는 조선총독부 기록상 194개교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됨)
- 2006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의해 320개교로 중간 집계
 - 그 후 2010년 8월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에 의해 358개교
- 종전의 학생운동에 참가한 연인원이 54,000명이라고 했던 통계치
 - 최근에는 65,000명까지 늘어남
 - 당시 상해와 만주지역 항일운동단체, 중국 국민당 및 중국 공산당이 작성한 일부 자료는 과장된 면도 있지만 참여자 수를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해 50만명이상으로 추산했고, 모스크바의 프라우다지도 70만명으로 추산
- 제1-3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의 원인과 주요 (표 9-11)

<표 9>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 사건과 1차 광주학생독립운동

전개 과정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교육자들의 억압, 무시, 차별, 우민화 정책 •일본인 학생들과의 충돌 1차(1929.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역에서 후쿠다가 박기옥을 희롱한 것을 보고 박준채의 언쟁과 격투. “후쿠다! 너는 멍새이 중학생이면서, 여학생들을 희롱하냐”, “뭐리구 조센징 놈이 뭐리구 따붙어...”, “후쿠다, 내일은 학교를 쉬지 말라...” •박준채-후쿠다간 충돌 2차(1929.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날 일을 사죄하라고 요구, 후쿠다가 이를 거부와 격투 ‘일본인차장의 통학승차권 압수와 2등실로 연행, 대부분의 일본인 승객들 박준채 비난, 이날 저녁과 다음날 광주와 나주학생들과 주민들 많은 공분 야기’ •광주중학생들의 계획적 시비와 충돌(1929.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학생들의 대합실 언쟁과 싸움 대치 “오늘은 싸움을 하려면 하자” 한·일 학생들 선로를 가운데 두고 대치, 광주중과 광주고보 양교교사들의 경찰과 사태 수습 후 귀가’ •나주역 열차통학생 갈등(192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지사가 양교교장을 불러서 기자 통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감독을 지시 ‘광주고보생 일부, 광주고보 내에 항일늑서 부착, 양교 교사 학교길 동행 감시’ •1차 광주학생독립운동(1929.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명치절, 전남지역 누에고치 6만석 돌파 축하식 거행 - 명치절 기미기요 침묵, 가두시위(행진가), 광주고보학생과 광주중학교 학생 충돌 - 투쟁방안 논의와 제의: 독서회 회원 오재일, 이형우, (장재성도 참석) - 오후에 광주고보생 200명 독서회원인 김병기 주도로 시위 행진, 광주농업학교생 300여명 독서회원인 김보섭, 김상환, 김무삼, 최항남 등 주도로 교가와 운동가 부르며 시가진출, 광주사범학교생 일부 합류 “신천지에 휘날리는 우리 동포야 / 길이길이 기다리던 오늘이 왔구나 / 무등산에서 단련한 기술로 /용감히 적군을 물리치세” (광주농업학교 행진가) - 시위 주동학생 대규모 검거 착수(편파적 한인 학생만)

<표 10>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1929년)

전개 과정과 내용

- 1929.11.11
 - 오전. 장재성, 장석천, 박오봉, 강석원, 나승규 등 시위운동 계획 협의
 - 장재성은 일반 민중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조선 민중이여, 일어나라」 전단 원고 작성
 - 12일 수업개시 시간에 거사하기로 최종 결정
 - 11일 밤. 장재성, 장석천, 강석원, 박오봉, 국제진 등은 조선만의 집에 회합하여 광주의 시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
 - 오래일은 고보 독서회원인 김홍남과 강민섭과 함께 4종의 선전 전단 4,000부를 인쇄
- 1929.11.12
 - 농업학교에서 독서회원인 김남철, 박종주 등이 조깅용을 통해 받은 격문을 살포하여 시위를 촉발, 고보에서 장석천의 지시를 받은 김항남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독려와 시위운동 개시, 시가행진과 격문 살포
 - 「조선 민중아 일어나라!」 ㉠ 청년 대중아, 죽음을 초월하여 투쟁하자. ㉡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 검거자를 탈환하자. ㉣ 재향군인단의 비상소집을 절대 반대한다. ㉤ 경제망을 즉시 철폐하라. ㉥ 소빙대청년단을 즉시 해산하라. ㉦ 만행의 광중(光中)을 즉시 폐쇄하라. ㉧ 기성의 학부형 위원회를 문쇄하라. ㉨ 학부형회를 즉시 소집하라. ㉩ 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 「학생 대중아 일어나라!」
 - ㉠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 검거자를 즉시 석방하라. ㉢ 교내에 경찰관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 조선인 분위의 교육제도를 학립시켜라! ㉥ 민족문화와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 1929.11.13-14
 - 광주여고, 광주사범학교 등의 교내 항쟁과 수업거부, 맹휴 활동 전개 등으로 임시 휴교
- 1929.11.26-27
 - 26일 나주공업보습학교와 나주공립보통학교 학생들 모임(유찬옥, 박공근, 박동근, 양영택 등). 27일에 정오에 나주읍내 중심가 시위를 모의하고 “조선민족 및 학생대중만세” 전단 2,000장을 등사 ㉠ 식민지 탄압정책에 절대 반항하라. ㉡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 획득. ㉢ 관료적 교관의 배격. ㉣ 조선인 분위의 교육제도 시설. ㉤ 치안유지법에 절대 반항하라!
 - 27일 정오 농업보습학생 47명과 공립보통학교 5-6년생 130명이 교문을 나와 연합시위에 나섬

<표 11> 제3차 광주학생독립운동(1929-1930년)

전개 과정과 내용

(서울지역)

- 1929.12.5-7.
 - 12월 5일에 제2고보 3-4학년생 300여명은 “광주학생이 석방될 때까지는 공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의 제지로 여의치 못하자 맹휴를 벌였음.
 - 12월 6일에 중등학교 학생 180여명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위에 나섬
 - 12월 7일에 제1고보 3-3학년생들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교문을 나와 ‘제1고보학생만세’, ‘광주 조선학생 만세’ 등이라고 적힌 대형기를 3개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임
- 1929.12.9-16.
 - 12월 9일에 경신학교(400여명), 보성고보(700여명), 중앙고보(700여명), 휘문고보(400여명)와 남대문 상업학교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시위로 발전과 1200여명 학생의 검속
 - 12월 10일에 기독교청년학과, 근하여학교, 배재고보, 숙명여고보, 협성실업학교, 휘문고보 학생들이 교내에서 만세시위를 벌임
 - 12월 11일에는 경성여자사립학교, 동덕여고보, 실천여학교, 진신여학교, 진명여고보 학생들이 맹휴를 벌이자 학교 측은 즉시 휴교, 경성농업학교, 고등예비학교, 법정학교, 전기학교 학생들도 맹휴
 - 12월 12일에 경성의전의 조선인 학생 전부가 3개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맹휴, 법학전문학교 2학년생들과 세브란스의전학생들도 이에 동참, 학생들의 동요를 우려 보성전문, 연희전문은 조기방학
 - 12월 13일에 배화여고보, 간이공업학교, 중앙보육학교, 청운동보통학교 등이 맹휴
 - 12월 16일에 선린상업학교 조선인 학생 전부가 맹휴

(지방)

•1929.12.2-20.

- 12월 2일 충남공주고보 2-4학년생 200여명은 학교 측과 도(道) 학무과에 6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맹휴에 들어감.
- 12월 10일에 경기 개성 송도고보생들이 맹휴.
- 12월 12일에 인천상업학교생들이 맹휴, 평북 선선 신성학교생들 맹휴와 시가 시위시도, 전남 함평농잠보습학교 학생들이 함평보통학교생들과 장날시위를 계획했으나 적발과 검거, 학생들의 맹휴.
- 12월 13일에 개성공립상업학교와 개성학당상업학교 학생들이 맹휴.
- 12월 14일에 함남 원산의 루씨여고보생들 맹휴시도, 일본인 학교인 원산여고보 조선인 학생 일부 맹휴, 송실전문생들 시험 때 백지답안 내고 귀가
- 12월 16일에 원산상업학교 4학년생들이 맹휴와 백지동맹, 평양의 광성고보, 송인학교, 농업학교학생들 백지답안 제출, 함남 함흥고보 「싸워라 조선인 학생대중이여」 진단과 교내시위
- 12월 17일에 평양의 송실학교, 농업학교 학생들의 백지동맹, 평양의 12개 중 9개 학교에서 백지동맹과 맹휴, 함흥농업학교 학생들의 격문 1만 여장과 구호, 가두시위 계획과 발각
- 12월 19일에 함북 경성고보 「조선 피압박 민중에게 격함」 격문 뿌림(박영식), 강원 춘천고보에서 전교생 400여명이 모이자 「해방운동을 위하여 결사각으로 휴교를 단행하라」 격문을 뿌리고 만세를 부른 뒤 귀가
- 12월 20일 경남 동래고보생들은 "구급 광주학생의 무조건 석방", "가해자를 엄벌할 것"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
- 12월 21일 강원 춘천고보생들 백지동맹

(전국)

•1930.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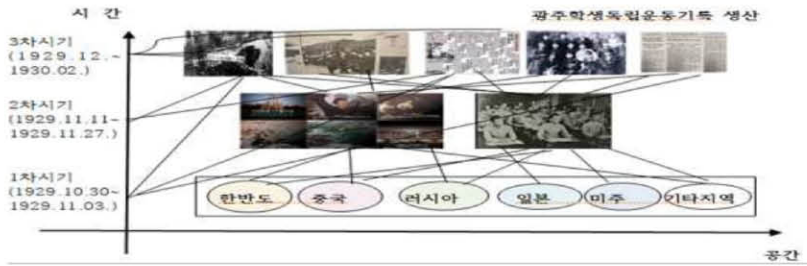
- 1월 9일에 광주고보, 광주여고보, 농업학교학생들 백지동맹
- 1월 15일 오전 서울 각 학교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돌입. 서울 시내 15개 중등학교(남학교 5, 여학교 10) 3천여 명의 학생이 만세시위에 참여

•1930.1-2월 학생운동

- 경기도 송도고보, 호수돈여고보 등, 강원도 철원보통학교, 원주보통학교 등, 충청남북도 당진 석문보통학교, 홍성공업전수학교, 청주고보, 청주농업학교 등, 전라남북도 창평보통학교, 정명여학교 진주여고보, 고창고보 등, 경상남북도 부산 제2상업학교, 진주여고보, 대구고보, 영주보통학교 등, 평안남북도 송의여학교, 상수보통학교, 평안북도 신의주고보, 오산고보 등, 함경남북도 함흥고보, 인흥보통학교, 함경북도 경성농업학교, 회령보통학교 등, 황해도 명신학교, 해주고보 등

<표 12>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기록의 범위와 생산자

범위	내용
시간적 범위	㉞일본인 학생들과의 충돌 1차(1929.10.30)부터 ~ 1차 광주학생독립운동(1929.11.3) 시기 ㉟2차 광주학생독립운동 시기(1929.11.11. ~ 11.27) ㊱3차 광주학생독립운동시기(1929.12. ~ 1930.2)
공간적 범위	광주학생독립은 공간적 범위를 정할 수 없음. 그 이유는 수많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한반도와 그 외(만주, 중국, 러시아, 미주 등)에 글로벌적으로 확산
활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하여 일제침략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등을 포함하는 거국적 독립운동 활동
생산자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단체와 기관



3. 해외 평가

3.1 전체

- 1929년 11월 20일 프랑스조계지에서의 임시정부는 조선의 학생독립운동 실태를 각급 사회단체에 알림
- 상해를 비롯해 만주, 북평, 연해주 지역에서도 조선학생독립운동에 관한 기록은 점차 증폭
- 광주학생운동 발발이후 상해임시정부,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도, 상해한인반제동맹, 상해한인여자구락부 등이 일제의 학살과 총독정치 철폐를 주장하며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선언
- 1929년 12월 이후 중국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상해청년반제도맹 등을 비롯한 각계단체가 일본을 규탄
- 1월 22일 천진에서는 대독립당 명의로 일본조계 거주 조선인들이 격문을 살포
- 북평에서도 조선학생연합회, 북평한족동맹회 등이 1930년 2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격문을 만들어 살포
- 봉천에서는 왕청문사립고등보통학교의 학생대회, 화흥중학교 학우회의 격문, 남만주 한인청년총동맹의 격문, 반석현청년동맹의 격문을 살포했다. 길림지방에서 여길한인학우회, 재만한인반제국주의동맹, 근합농민조합의 격문, 조선공산당만주총구, 동성 한인반일본제국주의동맹, 재만반제동맹, 재만농민동맹 등도 잇따라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옹호와 반제투쟁을 선언

- 중국국민당 절강성, 하남성, 산서성 당부는 한중연대와 조선원조를 주장했으며, 북경과 미주일대의 중국인들도 광주학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반제운동을 위한 한중연대를 적극 옹호
 - 중국공산당, 대만청년단에서도 지지옹호선언
 - 간도 중국인학생도 광주학생운동 옹호운동
 - 길림대학 문법학원 학생 30여명과 길림중학교 학생 17명은 학생원조를 결의했고, 하얼빈특별구립제2중학 학생들이 영미를 풍자하는 가장행렬로 체포
- 광주학생운동 직후 중국과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의 재외조선인과 중국인들의 조선학생운동에 대한 지지와 옹호
- 상해보, 상해국민일보, 항주'국민일보, 남경중앙일보, 무호민국일보, 한구중산일보, 복건민국일보, 청도국민일보, '북평일보, 대동보, 국제협보에 실린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

3.2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재외조선인의 활동

<표 13> 중국지역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재외조선인의 활동

지방	활동	일시
상해	재류 조선인의 책동 (상해보)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 - 1929.12.30. 선전문 배포 ·재중국 한인청년동맹 제1구 상해지부 - 1929.12.31. 선언문 배포
	한인 각 단체 연합회 조직 및 연합대회의 행동(상해보)	·1930.1.3.-4. 결의 / ·1930.1.11. 조선학생사건의 전말보고 ·1930.1월 중순 - 상해한인 각 단체연합회 배포(선전문)
	한인 각 단체 연합회에 관한 선언문	·재중국 한인청년동맹 제1구 상해지부 발행 - 1930.12-11.7회 게재 ·중국본부 한인 청년동맹 상해지부의 격문 - 1930.1.10.-11. 3회 ·유호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의 격문 - 1930.1.10.-11. 2회 ·재 상해한인 여주 구락부의 선언(1월 11일) ·상해 한인 학우회의 격문 - 1930.10.-11. 2회 ·상해청년 반제 대동맹의 격문(1월 11일) ·상해 한인 각 단체 연합선언(상해보. 1월 13일) ·유호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의 격문(상해보) - 1930.1.18.-28. 3회(조선혁명운동 속보) ·상해 각 단체 연합토론회 개최(상해보) - 1930.1.18. ·유호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의 운동경과 보고(상해보) - 1930.1.23. ·상해 한인 각 단체 연합회 사업보고(상해보) - 1930.1.27. ·獨立戰報(상해 한인 각 단체 연합회 기관지)의 기사(상해보) - 1930.1.27.
	한인 각 단체 연합회 해산	·상해보 - 1930.2.26.

한구		·재무한(武漢) 조선인 독립운동 기념 선언(한구보) - 1930.3.1.
청도		·한국독립당원의 격문(청도보) - 1930.2.5.
천진	조선대독립당 격문(천진보)	·천진 일본조계 거주 조선인이 배부 격문 1930.1.22.
	북평조선인 각 단체 연합회 선언	·북평 거주 조선인 배부, 중국신문에 게재 - 1930.2월 초순
	북평조선학생 연합회 선언	·북평보. 격문, 선언 배부 - 1930.2.8.
봉천	북평한족동맹회 조직 및 그에 관한 격문	·1930. 2월 중순 '북평한족 동맹회' 조직과 격문발송 - ①학생, 학부형과 그 외 동포에 관한 것 ②해외재류 동포에 관한 것 ③중국동지에 관한 것 ④독립당 조직에 관한 것
	왕정문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 대회(봉천보)	·1930.1.24. 학생대회 개최와 결의
	국민부 학생운동 상황 시찰원 파견(봉천보)	·1930.1.27. 두 사람을 조선에 밀파- 김상현과 김석손(평양과 신의주)
	화흥중학교 학우회 격문	·(봉천보) 1930.2월 초순 - 격문 배부
	남만한인청년동맹 격문	·(봉천보) 1930.1월 격문 송부
	반석현 청년동맹 전문	·1930.1월 하순. '재만 2백만 동포에게 고한다' 연명격문

길림	연길 한인학우회 격문(길림보)	·1929.12월 하순. '반 일본제국주의 선언'과 배부
	재만 한인 반제국주의 동맹	·(길림보) 1930.1.2. '재만 한인 반제국주의 동맹' 선언
	근합농민 조합의 격문(길림보)	·1930.1.20. 격문 배부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 격문	·(길림보) 1930.1.13. 격문 배부
	해구 여성동맹 격문(길림보)	·1930.1.14. 격문 배부
	재만 농민동맹집행 위원회결의	·(길림보) 1930.1.25. 후원 결의
	재만 조선인 반 일본제국주의 동맹 공동선언(길림보)	·1930.1월 하순. - '재만 조선인 반제국주의 동맹', '북만조선인 청년 동맹', '근합 농민조합', '해구여성동맹'의 공동선언서
	동성 한인 반 일본제국주의 동맹 선언문(길림보)	·1930.1월 하순. 선언문 배부
	재만 농민동맹 격문(길림보)	·1929.12.25. 격문 배부
하얼빈	재만 조선인 반 일본제국주의 동맹 조직	·1930.1월 하순. 선언, 강령, 규약 제시
	한족 총연합회 조사원 파견	·하얼빈보. 해림(海林) 한족교회 조사원 4명을 선발 - 조선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상황을 시찰. 1930.1.21. 조선으로 월경하여 조사
	하얼빈지방 조선인 단체 선언	·1930.1월 하순. 선언서 배부

용정촌에서의 학생 시위운동 (간도보)	.학생 시위운동 - 제1회. 1930.1.28. 연합 시위운동(은진중학교, 명신여학교, 동아소학교 등) - 제2회. 1930.2.5. 대성중학교, 동흥중학교. - 제3회. 1930.2.12. 대성중학교, 광명여학교 - 제4회. 1930.2.13. 영신중학교 - 제5회. 1930.2.29. 사립 해성, 영신, 동흥 소학교 - 제6회. 1930.2.26. 공립 간도 중앙학교
졸업식 기회 삼아 학생운동 계획	.간도보. 졸업식 당일. 용정촌 사립 동흥, 대성, 은진 각 중학교학생들 대대적인 시위운동계획
두도구에서의 학생 시위운동	.간도보. 1930.2.7. 재 두도구 신흥학교 보습과 생도
두도구부근에서의 학생 시위운동	.간도보. 1930.2.22. 두도구 분관 부근 사립 선인(鮮人)한생
노도구에서의 학생 시위운동	.간도보. 1930.2.9. 노도구의 사립 중흥학교 생도
의란구 학교 학생의 시위운동 계획	.간도보. 의란구학교 학생. 시위운동 계획(2월 15일 주모자 검거)
학산동 보통학교 학생 시위운동	.간도보. 1930.2.15.
이도구 부근 학생시위운동	.간도보. 1930.2.21. 수성촌, 어랑촌, 중남구 학생
천보산 학생 학부형 시위운동	.간도보. 천보산 보조서당 학생들과 학부형 시위동계획(2월 16일 주모자 6명 검속)
국자가 조선인 학생 시위운동	.간도보. 사립 송신학교 학생. 1920.2.19. 선언문 배포
간도지방 좌경단체의 책동	.간도보. - 재동만 조선인청년총동맹의 선동(1929.12.26.) - 고려공산청년회. 1930.1.17. 선언문 배부
동성한인 반일본제국주의 동맹 선언문	.간도보. 1930.2.6. 왕청현 중국관민학교 등에 '반일선언문' 송부
조선학생사건의 삼일운동 (간도보)	.조선국민혁명당,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재건설위원회(길림), 재영고탑고려공산당청년회 만주총국, 재용정촌 동만조선인 청년총동맹' 등 3월 1일 기념일을 기해 시위운동 계획(격문배부)
삼일운동에 관한 격문(간도보)	.고려공산당 청년회 만주총국 동만 위원회. 1930.2.15.-16. 용정촌 각 학교 등에 격문배부 계획
학생운동 성원(간도보)	.두도구 부근(1930.2.27.) / 이도구 부근(1930.3.2.) .간도 총영사관 소재지(1930.3.1.)
공산주의 운동자 책동(간도보)	.조선공산당(1930.2.4.), 한족총연합회(1930.3.1.), 대성, 동흥중학교한 시위운동의 지도(1930.2.16.)

<표 14> 중국 대만지역, 소련, 미국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제외조선인의 활동

대만	대만 청년단 선언(상해보)	.1930.1.11
	하문재주 대만적 학생의 조선독립원조협의(하문보)	.1930.2.7. 하문집미 대만인학생회(廈門集美 臺灣人學生會). 상해 한인 각단 체연합회로부터 서신 송부.
포조 (원동)	재포조 고려 공산당 결의	.간도보 - 1929.12.28. 간부회의 개최와 선전원 파견 결의
	조선문 신문 '선봉'의 기사	.1929.12.30. - '암흑에서 폭발한 조선학생대 학살 사건'
	재 포조 조선인 공산당원의 입선	.1930.1월 상순에 포조를 출발하여 경성으로 향함
호놀룰루	재노령 고려공산당의 행동	.1930.1.16. 조선 광주사건의 경과 보고와 학생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의생자에 대한 구제금을 모집 등 자금 조달방법을 결정
	재류 조선인 회의(호놀룰루보)	.1930.1.26. 조선 학생검거 반대에 관한 결의
	재류 조선인의 독립선언기념회 개최(호놀룰루보)	.1930.3.1. 독립기념회 개최. 조선학생사건(광주학생사건)을 미국대통령과 국제연맹에 호소할 것을 결의 - 신문에 발표와 중국의 조선 교민단체에도 송부
샌프란 시스코	.조선인의 회합과 결의 - 1930.2.14.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인의 정의와 동정에 호소하기로 결의	

□ 한인 각 단체 연합회에 관한 선언문(상해)(上海韓人各團體聯合會配布の宣傳文(上海報))

<p>작년 11월 3일 일본제국주의자는 의기양양하게 소위 명치친황 기념절을 경축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날 오전 12시 한국 전라남도 광주군 고등보통학교 학생 7~8명은 거리에서 같은 지역 중학교 일본인 학생 10여명과 마주쳤다. 그때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바윗고 아단을 치는 연사를 하자, 한국인 학생들은 이에 분개하여 힘척하였다. 이것이 충돌로 이어져 쌍방의 학생들이 모여 수백명이 집합하였고, 육박전에 이르게 되어 양쪽에서 중·경상자 십수명이 나왔다.</p> <p>현지경찰서는 즉각 긴급 총동원령을 내리고, 소방대와 재향군인 및 검사국원까지 소집하여 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진압방법이 한국 학생만을 체포하는 것이었고, 완전히 비이성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일본인 상인들 수 백명도 일본학생 측에 가담하여 한국학생을 향해 시위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에 한국학생들은 더욱 분노하여 현지 농업학교, 사범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한국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다섯 열로 진을 나누어 혁명가를 부르고, 전 시를 시위운동의 장으로 만들었다.</p> <p>이에 전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한국인 학생과 합세하자, 무장군경과 충돌하였으며, 체포자와 부상자 수백명이 나왔다. 같은 달 12일은 위의 각 학교 한국학생들이 제2차 대시위운동을 거행하여 격렬하게 선언전단을 살포하며, 혁명가를 불렀으며, '타도 일본제국주의', '한국독립만세' 등의 슬로건을 외쳤다.</p> <p>이에 일본의 무장 수비군대는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40여명을 사상하고, 2백여 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게다가 그들은 호남선(광주, 경성간)의 철도교통을 차단하여 학살 소식이 확대 되지 못하게 하였다.</p>	<p>昨年十一月三日日本帝國主義者ハ意氣揚々トシテ所謂明治天皇記念節ニ慶祝ヲ舉行シタルカ其ノ日午前十二時韓國全羅南道光州郡高等普通學校ノ韓國學生七、八名ハ街路上ニ於テ同郡ノ中學校日本學生十餘人ニ遭遇シタル際日本學生ハ韓人學生ニ對シ故ナク冷嘲熱罵ノ言辭ヲ弄シタル爲メ韓國學生ハ大ニ憤慨シ理ヲ以テ詰責シ遂ニ衝突シ双方ノ學生ハ繼々數百名集合シテ肉搏戰ヲ演スルニ至リ互ニ輕重傷者十數名ヲ出スニ至リタルニ依リ同地警察署ハ直ニ緊急總動員スルト共ニ消防隊在郷軍人及檢査局員等ヲ召集シ協力シテ鎮壓ニ當リタルカ其ノ鎮壓方法ハ只韓國學生ヲ逮捕スルノミニテ完全ニ蛇蝎ノ眞面目ヲ暴露シタルノミナラス日本ノ商民數百名モ日本學生ニ加擔シ韓國學生ニ向ツテ示威ノ態度ニ出テタリ此ニ於テ韓國學生ハ愈々憤怒ヲ加ヘ同地ノ農業學校、師範學校、女子高等普通學校ノ韓國學生全部ハ絶叫シテ起テ五列ノ長蛇陣ヲ作りテ革命歌ヲ高唱シ全市ヲ大示威運動ヲ爲シタル韓國人全市民モ亦出テ韓人學生ニ助勢シ至ル所ニ武裝軍警ト衝突シ被捕及負傷者百餘名ヲ生シタリ同月十二日上記ノ各學校韓國學生ハ第二次大示威運動ヲ舉行シ頗ル激烈ナル宣言傳單多數ヲ撒布シ且革命歌及「打倒日本帝國主義」「韓國獨立萬歲」等ノ「スローカン」ヲ高唱シタリ守備ニ當レル武裝日本軍隊ハ遂ニ示威群集ニ向ヒ發砲シ四十餘名ヲ射殺シ負傷者二百餘名ヲ出シタリ之ト同時ニ彼等ハ湖南線(光州、京城間)ノ鐵道交通ヲ遮斷シ以テ大殺戮ノ消息ノ擴大ヲ防止セリ</p>
--	--

□ 왕청문 사립 고등보통학교 학생대회(봉천보)(旺淸門私立高等普通學校學生大會 (奉天報))

<p>흥경현 왕청문사립고등보통학교 및 동학교 졸업생 60명은 1월 24일 학교에서 학생대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하였다.</p> <p>(1) 광주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축하문을 보낼 것</p> <p>(2) 전 조선학생대회에 금 300원의 운동자금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국민부 중앙간부에 청원할 것</p> <p>(3) 조선학생 사건을 남만주 학생들에게 선전할 것</p>	<p>興京縣旺淸門私立高等普通學校學生及同校卒業生六十名ハ一月二十四日同校ニテ學生大會ヲ開催左ノ決議ヲ爲シタリ</p> <p>(1) 光州女子高等普通學校ニ祝賀文ヲ送ルコト</p> <p>(2) 全朝鮮學生大會ニ金三百圓ノ運動資金送付方ヲ國民府中央幹部ニ請願スルコト</p> <p>(3) 朝鮮學生事件ヲ南滿洲學生ニ宣傳スルコト</p>
--	--

□ 조선문 신문 '선봉'의 기사(포조보)(朝鮮文新聞「先鋒」ノ記事(浦潮報))

<p>12월 30일 발행된 선봉지는 조선통신으로 '암흑에서 폭발한 조선학생 대학살 사건'으로 제목하고, 인도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에 대하여 무장경찰과 소방대가 감압적으로 조선인 학생을 총살한 일본 중학교교장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한 조선인 학생 30명이 총살되었다는 표제를 올려 광주에서의 학생총동 사건을 경과를 기록하였다. 일본인 중학교교장이 교실에서 조선인 3명을 총살하자,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 학생들이 삼, 낮 등의 농구를 가지고 중학교에 쳐들어갔으나 일본경찰은 학생 30명을 총살했다는 기사를 올렸다.</p>	<p>十二月三十日發行先鋒紙ニ朝鮮通信トシテ「暗黒ヨリ爆發セル朝鮮學生大屠殺事件」ト題シ人道上ヨリ起テタル學生運動ニ對シ武裝警官ト消防隊トヲ以テ強壓シ日本中學校校長ハ鮮人學生ヲ銃殺シテ處罰セラルルコトナク却テ之ニ反抗シタル鮮人學生三十名ヲ銃殺サレタリト表題ヲ掲ケ光州ニ於ケル學生衝突ノ經過ヲ記シ日本人中學校校長ハ教室ニテ朝鮮人三名ヲ銃殺シタルカ朝鮮人學生ハ之ヲ知り「スコップ」、鎌等ノ農具ヲ携ヘ右中學校ニ押寄セタル處日本警官ハ學生三十名ヲ銃殺シタリトノ記事ヲ掲ケタリ</p>
---	---

□ '호놀룰루' 재류 조선인 독립선언 기념회 개최(호놀룰루보)「ホノルル」在留朝鮮人ノ獨立宣言記念會
開催(ホノルル報)

<p>'호놀룰루' 재류조선인은 조선학생 운동 응원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지만, 3월 1일 동지역의 전도 기념관에 칠백 명이 참석하여 독립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조선학생사건(광주학생사건)을 미국 대통령과 국제연맹에 호소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문을 신문에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의 조선교민단에게도 송부하였다</p>	<p>ホノルル」在留朝鮮人ハ朝鮮學生運動應援資金ヲ募集シツツアリシカ三月一日同地轉道記念館ニ七百名參集シ獨立宣言記念會ヲ催シ朝鮮學生事件ヲ米國大統領及國際聯盟ニ訴フルコトヲ決議シ同決議文ヲ新聞ニ發表シ同時ニ華府鮮人僑民團ニ送付シタリ</p>
---	--

3.3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중국인의 활동

<표 14> 중국 정치 및 사상단체와 일반 중국인의 행동

1	상해 공산당계 각 단체 연합 시위운동	·상해보 - 1930.1.18.-19. 연합시위운동
2	중앙당부의 통전(청도보)	1930.2.6. 중국국민당중앙진행위원회
3	강소성 당부의 결의	·1930.2.7. '한국국민당에 동정을 표하고, 독립운동 달성을 기도한다는 전보 발송할 것' 결의
4	절강성 당부의 행동(항주보)	·1930.1.30. '조선독립운동 원조를 결의하고, 재 상해 대한독립당에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요지의 통보를 발신'
5	한구 특별시 당부의 통전(한구보)	·1930.2.19. 각지에 통전을 발송. "...이미 50여만 명의 한국 인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실로 한국 인민 최후의 분투이며, 또한 한민족의 존망을 건 최대 규모의 투쟁"
6	산서성 당부의 성명	·1930.2.10. '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 조선학생운동 후원, 조선학생 사건 중국신문에 게재
7	산둥시 당부로부터의 광둥성 당부 앞 전보	·산둥보. 1930.2.19. 조선독립운동 원조를 청원하는 전보 발송
8	청도시 당부의 통전(청도보)	·1930.2.4. 통전을 정치단체와 신문에 발송
9	천진시 당부의 통전(천진보)	·1930.2.2. 통전을 국민정부 중앙당부와 기타 전국 발송
10	천진현 당부의 선언(천진보)	·1930.2.16.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원조 선언'
11	하북성 당부의 통전(북평보)	·1930.2.4. 중앙당부와 각지에 통전 발송
12	하북성 청년연합회의 통전(북평보)	·1930.2.5. '조선인 독립운동 원조' 통전 발송
13	천진총공회(天津總工會)의 통전	·천진보.1930.2.6. '한민의 혁명운동에 일치 원조' 희망
14	북평류일파체포동포원조회(北平留日被逮捕同胞援助會) 선언(북평보)	·학생운동 원조 선언 - 1930.1.14. / ·독립운동 원조 선언 ·요녕 국민 외교협회에 접수된 선언서(요지)(북천보)
15	중국 청년 반제 대동맹 요녕성분회 선언	·북천보. 1930.1.22. 선언서 배부
16	봉천 중국 대학생들의 연동(봉천보)	·1930.1.28.
17	봉천 외교후원회 연동(장춘보)	·1930.2.16. '한국에서의 교육 및 사상의 압박'
18	길림 지나인 학생의 연동(길림보)	·1930.2.9. 길림대학 문법학원 학생과 각 중학교 학생 '조선인 학생원조변법' 결의
19	하얼빈 청년 반제국주의 대동맹의 선언	·하얼빈보. 1930.2.4. 선언서 배포(살포)
20	하얼빈 중국 학생의 가장행렬	·하얼빈보. 1930.2.13. 하얼빈특별구립 제2중학교 가장행렬 개최
21	하얼빈 중국인의 조선인과 공동행동	·하얼빈보. 1930.2.15.시가지의 전신주에 선전문 붙이고, 시내 각지에 살포

□ 한구 특별시 당부의 통전(한구보)(漢口特別市黨部ノ通電(漢口報))

2월 19일 각지에 발송한 통전의 요지 “...이에 한국 인민들이 반일 독립운동을 야기시켜 여러 종류의 운동에 참여하는 등, 이미 50여만 명의 한국 인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실로 한국 인민 최후의 분투이며, 또한 한민의 존망을 건 최대 규모의 투쟁이었다. 일본인들은 제 마음대로 조선인을 유린하였으나, 한국 인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야심에 일침을 가하였다.”	二月十九日各地ニ發セラレタル通電ノ要旨左ノ如シ “...爲メ韓國人民ノ一般的反日獨立運動ヲ惹起シ目下此ノ種運動ニ參加シタル韓國人民ハ既ニ五十餘萬人算スルニ至レリ右運動ハ實ニ韓國人民最後ノ奮闘ニシテ又韓民存亡ノ最大關鍵タリ日本人ハ斯ク擅ニ朝鮮人ヲ蹂躪シタルモ韓國人民ノ不撓不屈ニシテ前仆後繼ノ精神ハ儘ニ日本帝國主義侵略ノ野心ニ一擊ヲ加ヘタルモノナリ...”
--	--

□ 하얼빈 지나 학생의 가장행렬(假裝行列)(하얼빈보)(哈爾濱支那學生ノ假裝行列(哈爾濱報))

하얼빈특별구립제 2중학교(哈爾濱特別區立第二中學校)는 2월 13일(원조절 당일) 일본과 영국의 조선 및 인도에 대한 압박을 풍자한 가장행렬을 개최하였으나, 지나 당국이 주모자를 체포하였다. 이같은 행동을 금지시켰다.	哈爾濱特別區立第二中學校ハ二月十三日(元宵節當日)日本及英國ノ朝鮮及印度ニ對スル壓迫ヲ諷刺セル假裝行列ヲ催シタルカ支那當局ハ首謀者ヲ逮捕シ一面同種ノ行動ヲ禁止シタリ
---	--

<표 15> 중국 신문의 보도 및 언론

1	상해 '신보(申報)	·1930.2.5. '한국민중의 복국운동' ·1930.2.7. '한국독립운동의 진상(韓國獨立運動真相)' 조선학생사건 보도
2	상해 '국민일보(國民日報)	·1930.2.12. '경성특전(京城特電)' - 경찰부 경찰동원, 통신여성의 수색, 남한지방의 농민폭동, 국외 독립당의 집결
3	중국공산당기관지 '소호보'	·소호보(小瀛報), 조선광주학생운동 개재
4	상해 '국민일보'	·1930.2.15. - 북평특별시 당무위원회에서 발생한 한국독립운동 원조통전 - 육합현 당부 집행위원회에서 발생한 한국독립운동 원조통전 ·1930.2.16. '경성특신(京城特信)'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통치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1930.2.22. '약소민족 혁명을 원조하자' ·1930.2.28. '인도, 한국독립운동 원조' 통전을 게재
5	항주 '국민일보'(항주보)	·1930.2.7. 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의 선언문 ·1930.2.8. '한국 독립운동으로 중국혁명을 논함' ·1930.2.9. '한국임시정부의 감사문' ·1930.2.10. 하북성 당부와 천진시 당부의 한국독립운동 원조 통전 ·1930.2.13. '한국독립운동 전국에 만연'
6	남경 '중앙일보(中央日報)	·남경보, 1930.2.6. 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의 선언서
7	무호 및 안경 '민국일보'	·民國日報(무호보), 1930.2월 중순. 비방논설, 격문과 원조 통전
8	한구 '중산일보(中山日報)	·한구보, 1930.1월 하순. "오십만의 학생들과 천도교들은 조선독립운동을 일으키자..."
9	무한일보(武漢日報)	·한구일보, 1930.2.25. 천진시 당부의 통전을 접수, 조선학생의 독립운동원조 사실, 천진현 선언
10	복주 '복건민국일보(福建民國日報)(복주보)	·1930.2.12. - 천진특보(天津特報), 천진 대독립당의 선언서 - 1930.1.19. 북평시보(北平時報), 학생대회 개최, '내지 조선학생운동의 후원 혁명자금 모집을 결의, 중국 각지의 한인에게 통전 - 한경특보(韓京特報), 산서성 당부의 조선독립 원조 ·1930.2.13. '인도, 한국 독립을 원조한다' ·1930.2.19. '호상한교연합(滬上韓僑聯合)은 항일' ·1930.2.20. 21. '한국혁명 적극원조' - 산서성 집행위원회 통전 - 장도특별시 당부 지도위원회, 통전 '한국혁명운동 원조' - '한민이여 일어나라'(20, 21) ·1930.2.22. 강소성 당무 정리위원회, '한국국민당 복국운동을 원조'
11	청도 '국민일보'(청도보)	·1930.1월 하순부터 2월 초순 - '조선학생사건', '한국독립운동 개황'
12	천진발행 지나 신문	·천진보, 1930.2.6. 천진총공회는 국민정부와 기타 당부 및 각 단체에 통전 발송과 신문 게재
13	'북평일보'(북평보)	·1930.1.26. "한인들의 이번 독립운동에 대하여..."
14	북평 '신신보(新新報)	·1930.2.4. '한인의 독립운동과 지나 민족의 해방운동'
15	봉천발행 신문(봉천보)	·1930.1.28. 요녕신문, 동삼성민보, 도삼성 상공일보보 등 각 중국신문, 전후 수회에 걸쳐 '천한 반일 운동구 폭발' 등...개재
16	장춘 '대중보'(장춘보)	·1930.1.21. '여길 한인 학우회에서 배부한 '반일 제국주의 선언문' ·1930.2.22. '일본에서 돌아온 지나인의 이야기'
17	하얼빈 '국제연보'(하얼빈보)	·1930.1.23. 조선에서의 교육정책(사설) ·1930.2.18. '조선민족 절멸의 독액' ·1930.2.19. '조선독립운동 원조' 연금모집 결의 ·1930.3.4. '조선문제에 관한 일본당국에 보인 것'

□ 중국공산당 기관지 '소호보(小滬報)'(상해보)(中國共產黨機關紙「小滬報」(上海報))

<p>12월 17일에 발행한 중국공산당 기관지 소호보(小滬報) 지상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p> <p>한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극적정신(항일정신)이 점점 격렬하여졌다. 11월 3일 명치절 때, 한국인 학생들을 강요하여 광주신사를 참배케 하였다. 한인이 설립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 수명이 일본인 학생들보다 먼저 아신사에 참배하였다는 것에 야유를 당하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쌍방 학생 5백명이 격투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인 고등보통학교 학생 41명만이 구인되자, 한인 학생들은 경찰의 불공평한 조치에 분개하여 동맹휴교를 하는 한편, 혁명학생들은 이 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제국주의 시위운동을 일으켜 '소련을 옹호하라', '지나의 러시아국 공격에 대한 일본의 원조에 반대하라', '일본제국주의의 동북 3성 침략에 반대하라' 등의 선전빠라를 각지에 살포하였다.</p> <p>일본정부는 이에 관련된 학생을 공산당원으로 간주하여 이백오십여 명을 체포하였다. 12월 9일 경성 남학생과 경성여자사범학교 학생들은 반일 운동을 열어, 공산당선언문을 살포하자, 일본관헌은 총출동하여 한인이 설립한 학교를 수색하고, 20세 미만의 학생 구백여 명을 체포하였다.</p>	<p>十二月十七日發行中國共產黨機關小滬報紙上ニ左ノ要旨ノ記事ヲ掲載セリ</p> <p>韓人ノ仇日精神ハ益々激烈トシリツツアリ十一月三日ノ明治節ニ際シ韓國學生ヲ強要シテ光州神社ヲ參拜セシメタルカ韓人設立ノ光州高等普通學校學生數名ハ日本學生ヨリ朝鮮人學生ハ我神社ニ參拜スルカト擲擧セラレタルニ原因シテ雙方學生五百人爭鬪ヲ演スルニ至リ韓人高等普通學生四十一名拘引セラレタルノミニテ韓人學生ハ警察ノ不公平ナル處置ニ憤慨シ同盟休校ヲ爲シ一方革命學生ハ此ノ機ニ乘シ大ニ反帝國主義ノ示威運動ヲ起シ「蘇聯ヲ擁護セヨ」「支那ノ露國攻撃ニ對スル日本ノ援助ニ反對セヨ」「日本帝國主義ノ東三省侵略ニ反對セヨ」等ノ宣傳ビラ隨所ニ撒布セラレタリ</p> <p>尙日本政府ハ此等ノ學生ヲ共產黨員ト看做シ二百五十餘名ヲ逮捕シタルカ十二月九日京城男子學生及京城女子師範學生等反日運動ヲ行ヒ共產黨宣傳文ヲ撒布スルヤ日本官憲ハ連ニ總動員ヲ爲シ韓人設立ノ學校ヲ搜索シ二十才未満ノ學生九百餘名ヲ逮捕セリ</p>
--	---

3.4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외국 신문의 보도

<표 16> 외국 신문의 보도

노령	'하바로프스크' 극동 집행위원회 기관지(하바로프스크보)	·1930.1.8. 도쿄 특파원 통신 "...최근의 조선학생사건(朝鮮學生事件)에서는 이천명의 조선인 학생을 체포하였고, 도쿄에서는..."
뉴욕	뉴욕보	·뉴욕에서 발행한 여러 신문에서 대부분이 일본신문의 전보를 그대로 보도함(온건) ·1930.2월 초순 뉴욕의 미국공산당기관지 '데일리워커(Daily Worker)' 및 가지 선전기사 게재
모스크바	지역신문	·1930.3.5. 소련 '프라우다' "...집단지 반일운동은 작년 10월말 경 일선(日鮮)학생간의 투쟁이 원인이 되어 시위운동이 일어나..."
신한민보		·1930.2.27. 쿠바 마탄자스에서 보내온 '내지 학생운동을 열정적으로 지지하자, 마탄자스 동포들의 열성'

□ 뉴욕의 신문(紐育ニ於ケル新聞(紐育報))

뉴욕에서 발행한 여러 신문에서는 대부분이 일본신문의 전보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대부분이 온건한 내용이었고, 2월 초순 뉴욕에 있는 미국 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Daily Worker)'에서 몇 가지 선전기사가 게재 되었으나 일반인들의 주목을 이끌지는 못하였다	紐育發行ノ諸新聞ハ概ネ日本新聞ノ電報ヲ轉報シ居リ記事概ネ穩健ナルカ二月初旬同地共產黨機關紙「デーリー、ワーカー」ニ幾分宣傳的記事掲載セラレタルコトアリシモ一般ノ注意ヲ惹クニ至ラス
--	---

□ 모스크바지역신문(莫斯科ニ於ケル新聞(莫斯科報))

3월 5일 소련 '프라우다'신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게재 "...집단적 반일운동은 작년 10월 말경 일선(日鮮)학생 간의 투쟁이 원인이 되어 시위운동이 일어나, 경성에서는 경찰관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나왔으며, 그 외 구급자가 수천에 달하였고, 이 시위운동에 노동자가 가세했으며, 주목할 만한 '정치범의 즉시 석방을 요구한다', '피압박민족 독립만세'..."	三月五日發行「ブラウダ」紙上ニ左ノ要旨ノ記事ヲ掲載セリ "...ラサルモ集團的反日運動ハ昨年十月末頃日鮮學生間ノ爭鬭ニ原因シ示威運動ヲ起シ京城ニ於テハ警察官ト衝突シ死傷者ヲ出シタル外拘禁者數千ニ及ヒ同示威運動ニ労働者ノ加ハレルハ注目スヘキコトナリ「政治犯人ノ即時釋放ヲ求ム」「被壓迫民族ノ獨立滿歲」..."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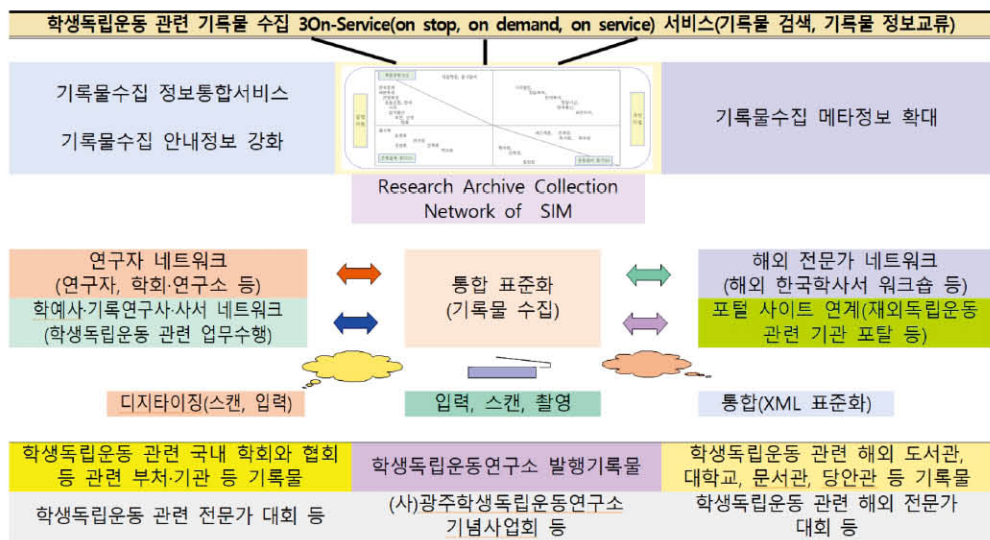
4. 국제연대 방안

<표 17> 학생독립운동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과정	내용	참여
학회, 협회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와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독립운동분야의 교육과 기념, 연구, 교류협력과 소통 등 •학생독립운동분야의 역사지식자원 교육과 연구, 교류협력과 소통 등의 역사지식자원 관련 학회: 역사문화학회, 역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향토사연구회, 호남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등 •한국도서관협회: 관종별 도서관 역사지식자원개발과 DB구축, 역사지식자원전문가(사서 등) 교육과 서비스 •학생독립운동분야의 기록물 수집·정리·DB구축·아카이브 교육과 연구, 서비스 관련 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학예사협동조합: 기록전문가, 학예연구서(학예사), 시민, 기록관, 아카이브를 연결, 기록관리와 학예 관련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협력과 소통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을 비롯 전국 각 지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사)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미술관 전문·학예인력 교류협력 소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회·협회 주최 세미나 등 참여
학생독립운동 관련 전문가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 서비스, 학생독립운동 역사지식정보자원(해외한국학도서·출판·역사 문화 등) 수집에 관한 발표와 홍보관 설치·소통 •전국기록인대회: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수집에 관한 발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홍보관

<p>국의 전문가 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학사서글로벌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INKSLIB), 북미 한국자료위원회(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CKM), 유럽 한국자료전문가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Korean Resources Specialists, ENKRS) 등 •해외한국학 서서들과 교류하여 네트워크 형식으로 체계적인 정보제공, 경험공유, 인적교류 구축 등을 통해 지식자원(기록물 등) 수집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한국학 사서 워크숍
<p>해외 도서관(대학), 도서관, 당안관, 언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日本國會圖書館, 國立公文書館,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圖書館, 東洋大學 東洋文化研究센터, 中央大學, 東경YMCA2.8記念資料館, 法政大學 大原社會科學研究所, 光復會 東京支會, 在日韓國民團, 在日韓人歷史資料記念館, 高麗博物館, 국립대전현충원, 鄉友會(東京), 佐賀大學 朴慶植文庫, 러시아극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사할린주 국가고문서도서관 등, 카자흐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우즈베키스탄 국립중앙기록보존소, 북경, 요녕성, 길림성, 흑룡성, 상해, 남경, 중경지역 등의 당안관, 朝鮮總督府文書, 警視廳記録綴, 地域誌(東京 京都, 大阪 神戸), 地方公文書, 內務省, 司法省 등 기관문서, 治安報告, 査察記録, 特高月報, 植民地時代 縣廳기록자료, 思想月報, 思想彙報, 特高月報, 社會運動通信 등,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京都新聞, 京都市出, 京城日報, 九州日報, 大阪每日, 大阪朝日, 労働農民, 労働通信, 萬朝報, 名古屋新聞, 無産者新聞, 社会運動通信, 自由連合新聞, 福岡日日, 北國新聞, 新愛知, 神戸新聞, 神戸又新日報 등, 애국신보(연길), 先鋒, 레닌기치, 고려일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기관 MOU, 관련 기록자료 발굴
<p>학생독립운동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학생독립운동 및 단체 간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자원(기록물 등) 정보수집의 장(場) 마련 및 지식자원 수집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독립운동 네트워크 참여
<p>코리안 디아스포라·학생독립운동 통합네트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통합 코리안 디아스포라·학생독립운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국과 동포사회간 유대를 강화 하고 코리안 디아스포라·학생독립 운동가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식자원 수집의 장(場) 마련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네트워크장에 적극 참여

<표 18>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관 MOU와 네트워크 기반 국내외 기록물 수집



참고문헌

- 光州學生獨立運動 時史, 光州 (社)光州學生獨立運動紀念委員會, 2009.
- 光州學生獨立運動回고會 編, 光州學生獨立運動史: 光州 國際文化史, 1974.
- 김기주, "광주학생운동 이전의 항일 투쟁유학," 광주학생운동의 전개양상과 의의, 광주학생운동 8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2009.11.2.), 한국독립운동연구소·전남대학교·호남사학회, pp.1-45.
-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서술, 역사공간, 2013.
- 송성진,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학생운동 조직의 발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7집(2006), pp.193-232.201.
- 김효일, 일제하 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 김홍길,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월 광주항쟁의지 네트워크"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2009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기획대담, pp.1-26.
- 사중복외, 장우권, "재중 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문명스에 관한 연구," 한국중북아논총, 제9권, 제1호(2004), pp.173-201.
-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 윤경호, "자료의 한상과 1928년의 학생공산당사건" 역사비평, 1988년 겨울호, pp.355, 346-369.
- 이명규 외, 재외한인의 문화정보자원과 실제 서술, 집문당, 2005.
- 張鼎綱,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8, 1994.
- 장우권 외,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연구연찬, 학생독립운동 학술연구의 흐름과 동향, 광주, 통일출판문화원, 2014.
- 장우권 외 공역, 제2의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조선학생사건에 대한 재외조선인의 행동과 중국인의 동조, 광주, 통일출판문화원, 2014.
- 장우권 외 편,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신문기사선집, 광주, 통일출판문화원, 2014.
- 장우권 외 편역,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 광주, 통일출판문화원, 2014.
- 趙秉世, "한국근대 학생운동 조직의 성격변화" 한국민족주의 발전과 독립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3.
- 吳在彦,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鏡社, 1979.
- 李龍松, 朝鮮社會思想運動沿革史, 1933.
- 二記表, 在日學生團體의 內面, 開辦, 72(1926), pp.36-41.
- 二月會思想運動史, 思想運動, 제3권, 제2호(1926.2), pp.36-41.
- 朝鮮總督府警務部, 高宗實錄, 1936.
- 朝鮮總督府警務部, 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考察, 1929.
- 朝鮮總督府警務部,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各種人生保護事業任の真摯に於ける内閣工務に決したる影響, 朝鮮前督府, 昭和5年 二月.
- 許江南, 二 改訂增補朝鮮民族獨立運動史, 1979.

- ❖ 해외 언론 보도와 평가는 필자 등(학생독립운동 연구소)이 2012년 연구자료 수집과정에서 일본외무성 아세아국에 소장된 외무성 비밀문건을 입수하여 해제
- 이 보고서는 1930년(소화5년)에 외무성 아세아국장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가 작성한 글이며 제목은 '소화5년(1930) 재외 조선인의 「3·1」운동 개황에 관한 건(昭和五年在外朝鮮人「3·1」運動概況ニ關する件(1930.3.22.))'

감사합니다.

● 발표4

● ┌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유산 지정 및 활용방안
└ ●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 유산 지정 및 활용 방안

노 성 태(남도역사연구원 원장)

제 I 장, 사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

1. 사적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적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던 장소, 핵심 인물의 생가 및 거주지, 한·일 학생들의 충돌 장소, 시위 준비 및 시위 장소, 일본 경찰과의 충돌 장소, 체포되어 구금된 장소, 재판을 받은 장소 등이 있다.

그리고 그 사적지에는 표석이나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주요 사적지에는 학생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기념탑 등 기념시설이 건립되어 있다. 사적지나 기념시설의 일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본장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요 사적지와 안내시설, 기념관과 기념탑 등 기념시설은 어떠한지 현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정리작업이 있어야 어떤 사적지나 기념시설을 시·도 및 국가지정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흥학관 터

1921년 광산동 100번지 일대에 광주 유지인 최명구(崔命龜, 1860~1924)가 회갑 잔치를 기념하여 만원을 기부, 청년들의 수양 공간으로 건립한 건물이 흥학관(興學館)이다.

당시 흥학관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박선홍이 쓴 『광주 1백년』³⁵⁾에 잘 묘사되어 있다. 박선홍은 『광주 1백년』에서 “흥학관에서는 고하 송진우·민세 안재홍·소과 방정환 등의 초청 강연회와 각종 사회단체의 집회는 물론 웅변대회와 음악·연극이 공연되고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밤에는 야학을 개학하는 등 이 지역 항일문화계몽운동의 전당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광주청년회·노동공제회 광주지회·전남노동연맹·광주신간회·광주청년학원 등 각종 단체의 사무실로 쓰였고, 그 간판들이 줄줄이 걸려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흥학관에는 광주청년회, 광주청년동맹, 광주노동공제회 등 10여 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었다.

특히 흥학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큰 의미를 지닌 장소였다. 1924년 광주고보생과 재광일본인과의 야구 경기로 야기된 광주고보생 맹휴 당시 흥학관은 재광 학부모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장소였고, 전남학부형대회를 개최하여 도민대회를 결의한 장소였다.

35) 박선홍, 『광주1백년』 2권, 43~44쪽, 금호문화, 1994

또한, 홍학관은 성진회 결성의 핵심 인물인 왕재일을 길러냈고, 성진회 결성을 도왔던 강해석 등 광주 청년들이 등지를 틀었던, 성진회 결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홍학관은 1929년 11월 3일 패싸움에서 시작된 한·일 학생 간의 싸움을 일제 타도를 위한 시위로 전환시켰던 긴급회의가 열린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11월 3일의 1차 시위 이후, 12일의 2차 시위 및 전국으로의 확산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은 홍학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장석천과 장재성 등이었다. 장석천과 장재성, 국채진, 강석원, 박오봉은 11월 4~5일경 12일의 광주 2차 시위와 전국으로의 확산을 모의하고 실천하였다. 이들은 홍학관에 사무실을 두거나 홍학관에서 활동하던 광주청년동맹, 광주소년동맹 및 전남청년연맹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즉 홍학관은 광주만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지휘 본부이자 산실이였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광주 독립운동 사적지 중 한 곳인 ‘옛 홍학관 터’에 사적지 표석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2021년, 동구청에서도 인문 산책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홍학관 안내판을 세웠다.

(2) 김기권 문방구점과 장재성 빵집 터

1929년 문을 연 김기권 문방구점과 장재성 빵집은 독서회 회원들의 비밀 모임 장소였다. 1928년 광주고보 5년생인 이경채가 ‘자본주의 사회 파괴’ 등을 기재한 3종의 선언서를 작성하여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보 앞 전봇대 등 10여 곳에 붙이고 그 선언서를 각 중등학교 및 경찰서에 우송하였다가 체포되자, 학교 당국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권고퇴학시켰다. 이에 광주고보생들이 맹휴투쟁으로 맞서자 학교 당국은 27명을 퇴학시켰는데, 그중에는 광주고보생 김기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9년 6월 독서회중앙부가 결성된 후 소비조합(문방구점) 설립을 결의하고, 광주고보 독서회 회원들이 60원, 김기권이 500원을 출자하여 1919년 9월 초순 장재성의 빵집 옆에 문방구점을 열었다. 경영은 500원을 출자한 김기권의 몫이었다.

독서회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장재성 빵집과 김기권 문방구점은 독서회원들의 모임 및 토론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고 장재성과 김기권이 체포되면서 장재성 빵집도 김기권 문방구점도 문을 닫게 된다.

일제가 장재성 빵집과 김기권 문방구점을 현장 조사한 검증조서에 의하면 빵집과 문방구점이 있던 건물 2층은 3개의 방이 있었는데, 가장 큰 10칸짜리 방에는 탁자 1개가 놓여 있어 실제 회의 장소³⁶⁾로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재성 빵집과 김기권 문방구점이 위치했던 금남로 3가(20-2번지 일대)에는 1969년 한국은행 광주지점 건물이 세워졌고, 이후 2003년 금남로공원이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광주 독립운동 사적지 중 한 곳인 ‘옛 장재성 빵집과 김기권문방구점 터’에 표석을 설치하였다.

36)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173쪽

(3) 장재성·장매성 생가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한 상징적 인물은 장재성(1908~1950)과 그의 누이 장매성(張梅性, 1911~1993)이다. 그 두 남매가 태어난 생가터가 광주군 부동방면 금계리 97번지(현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97번지)이다.

장재성은 광주고보 5학년이던 1926년, 광주 최초의 비밀결사인 성진회를 결성하였고, 1929년 6월 독서회중앙부를 결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독서회중앙부 책임비서가 된다. 광주고보 등 학교별 독서회를 결성한 후 금남로 공원(현 금남로3가 22-1번지)에 장재성 빵집을 열었는데, 그가 연 장재성 빵집 2층은 독서회원들의 모임 및 토론 장소로 활용된 비밀 아지트였다.

뿐만 아니다. 장재성은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생학생들의 시위가 발발한 후 토교(동문다리)에서 한·일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오늘 광주역에서 적과 싸운 것은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또한 대승리였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자”라고 설득, 오후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1차 시위가 끝난 직후 광주·전남 청년운동의 리더였던 장석천 등과 학생투쟁 지도 본부를 결성하고 광주 조선인 학생 지도를 담당하였다. 장재성의 지도 아래 각 학교 독서회 회원들이 모의하고 준비한 시위가 11월 12일 광주에서의 제2차 시위다.

장매성은 장재성의 누이로 1928년 11월 초순 결성된 광주여고보 독서 모임인 ‘소녀회’의 핵심 인물이다. 이는 소녀회 사건으로 구속된 10명 중 장매성이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재성과 장매성이 태어난 금계리 97번지(현 금동 97번지)는, 당시 남매가 살았던 집터에 벽돌 건물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집으로 가는 골목 입구와 집터에 2022년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4) 옛 나주역 터

옛 나주역은 1929년 10월 30일, 일본 중학생 후쿠다 등이 박기옥·이광춘 등을 밀치면서 충돌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11월 3일 시위의 주요한 발단이 되었다.

1929년 10월 30일 오후 4시 45분 옛 광주역을 출발한 열차가 오후 5시 35분경 옛 나주역에 도착했다. 개찰구에서 광주중학교 스에요시, 후쿠다 등 3명의 일본인 학생이 광주여고보 박기옥·이광춘·암성금자 등 여학생을 밀치는 사태가 벌어졌다³⁷⁾. 이를 본 박기옥의 4촌 동생 박준채가 후쿠다를 꾸짖었고, 후쿠다와 박준채가 연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후쿠다가 “조선인인 주제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격분한 박준채가 후쿠다를 구타하여 격투가 벌어졌다.

37) 나주역 사건은 일인 학생이 한인 여학생인 박기옥의 땀을 잡아당기며 희롱했던 사건은 아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이설(異說)이 있지만, 박찬승이 『11·3 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11~21쪽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이 사건은 10월 31일 통학 열차 안에서 다시 충돌이 일어났고, 11월 1일에는 통학생 전체로 확산되었다. 옛 나주역 충돌 사건으로 한·일 학생들 간의 분위기는 매우 살벌해졌고, 11월 3일 최쌍현 등이 광주천변에서 일본 중학생에게 칼을 맞으면서 광주역에서 대규모 싸움으로 확산된다. 이후, 시위는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독립운동이 된다.

1913년 옛 나주역은 호남선 개통과 함께 나주시 죽림동(60-172번지)에 문을 열었고, 지금 남아 있는 역사(驛舍)는 1925년 준공된다.

이곳 옛 나주역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라는 의의가 있어, 2000년 전라남도 기념물 로 지정되었다. 옛 나주역 역사는 2007년 중순에 전면 개·보수를 거쳐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역사 앞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2019년 건립된 기념탑이 서 있다.

(5) 장석천 거주지

장석천(張錫天, 1903~1935)은 1929년 11월 3일 학생들의 싸움이 일어나자 학생투쟁본부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조선청년총동맹 및 신간회와 협력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킨 핵심 인물이다.

장석천은 1903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 마을에서 태어나 완도 고금보통학교(현 고금초등학교)를 졸업한다. 1918년 서울의 중앙고등보통학교(중앙고보)에 진학한 후 보성고보로 전학하였고, 보성고보 졸업 후 수원고등농림학교(수원고농)에 진학한다. 1926년 6월, 교사(校舍) 신축 등을 요구하면서 동맹휴학을 전개한 후 무기정학을 당하자, 학교를 그만둔다. 그리고 그해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상과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지만, 4개월 뒤인 1926년 10월경 학업을 중단하고 광주로 돌아온다. 그때부터 그는 청년운동, 독립운동에 온 힘을 쏟는다. 장석천은 1927년 4월 전남청년연맹 집행위원장이 되고, 1928년 12월에는 신간회 광주지회 상무 간사가 된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간의 충돌이 일어나자, 학생들의 2차 시위 및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투쟁지도본부’를 출범시킨다. 이때 장석천은 광주 및 전조선 학생의 지도를 장재성은, 광주 조선인 학생의 지도를 맡는다.

장석천은 11월 17일 상경, 조선청년총동맹 집행위원장 차재정 등을 만나 서울의 학생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 12월 2일 서울의 각 중등학교에 격문이 살포되었고, 시위는 12월 5일 경성제2고보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지속되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신간회 집행위원 겸 광주청년동맹 위원장인 장석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장석천이 마지막 거주했고,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핵심 학교인 광주고보(현 광주제일고등학교) 정문 쪽인 광주군 누문리 93번지(현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93-1)지다. 광주일고 교문 쪽 담벼락에는 장석천의 거주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6) 광주고보 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핵심 학교는 1920년 사립으로 개교한 후 1922년 관립학교로 개편된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고보)다. 처음 광주 광산관에서 문을 연 후, 1922년 현 누문동에 교사(校舍)를 짓고 이전한다.

누문동 시절인 1926년 11월에 장재성·왕재일 등에 의해 성진회가 결성되었고, 1929년 6월에는 김상환·김보섭 등에 의해 무등산 중머릿재에서 광주고보 독서회가 결성된다.

또한 누문동 시절인 1924년 6월에는 광주고보와 재광주일본인 선발팀과의 야구 경기로 인해 맹휴투쟁이, 1928년 6월에는 이경채 사건으로 인한 맹휴 투쟁이 전개된다. 그리고 1929년 11월 3일과 11월 12일 1·2차 시위가 전개된다.

광주고보생들이 항일 역량을 기르고 시위를 모의했던 당시의 건물과 강당은 1947년 화재로 전소되었지만, 당시 교사 터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다. 기념탑은 전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54년 건립되었는데 탑의 하단에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음각되어 새겨져 있다.

1999년 4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과 주변은 ‘광주학생운동발상지’라는 이름으로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기념탑은 2002년 11월 국가보훈부에 의해 학생운동 현충 시설로 지정된다.

(7) 광주여고보 터

광주여고보(광주공립고등여자보통학교, 현 전남여고)는 1927년에 개교한 조선인 여학생 중등 교육기관이다. 1927년 일본인 여학교인 광주공립고등여학교(광주고녀, 1923년 개교)의 교실 한 칸을 빌려 개교한 뒤, 1928년 현재의 위치인 장동에 새 교사를 지어 옮기게 되는데, 현재 ‘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주여고보생인 장매성 등 11명은 1928년 11월 초순 박옥련·고순례 등과 함께 전남사범학교 뒷산에 모여 비밀결사인 소녀회를 결성하였고, 1929년 11월 3일 1차 및 12일의 2차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다.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1930년 1월 8일 개학 후 치러진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을 전개했다. 백지동맹에는 이광춘 등 3학년 전 학생이 참여하였고, 이광춘·권순례 등 15명이 퇴학을 당한다³⁸⁾.

소녀회 사건으로 11명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장매성은 2년, 박옥련·고순례 등 10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1928년 건립된 광주여고보생들의 보금자리였던 옛 본관은 소녀회 회원들이 활동하던 공간이었고, 항일역량을 축적한 공간이었으며, 1930년 1월 백지동맹으로 일제와 맞선 독립운동의 터전이였다.

현재 ‘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 역사관’으로 꾸며진 옛 본관 건물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위가 일어난 4개 학교 중 당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그리고 본관 건

38)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96, 100~101쪽

물 앞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30주년을 맞은 1959년 전국 학생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 기념비’가 서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 기념비 뒷면에는 “배달 여자의 전통적 덕행을 이어, 맨손으로 왜정의 총칼에 항거하여, 독립의 한길을 닦은 여학도의 절의는 곧 해의 거울이요, 잘 사람의 본이다.”라는 최현배의 글이 새겨져 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옛 본관과 그 주변은 ‘광주학생운동발상지’라는 이름으로 1999년 4월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국가보훈부에 의해 학생운동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다.

(8) 광주 농업학교 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광주고보와 함께 가장 치열하게 싸운 학교가 광주공립농업학교(광주농교)다. 광주농교는 1909년 6월 광주사립측량학교 자리(현 동구 불로동 서남대병원 뒷편)에서 개교한 후 1912년 현 북구 임동 92번지로 이전한다.

임동에 교사가 있던 시절 광주농교생들은 1926년 결성된 비밀결사 단체인 성진회의 주요 멤버로 참여하였는데, 성진회 회원 16명 중 박인생·정남균·정동수·정종석·김한필·문승수 등 6명이 농업학교 학생이었다. 그리고 1929년 6월, 무등산 새인봉에서 광주농교 독서회가 결성되는데, 조길룡이 대표 겸 재정부위원이 된다.

1928년, 광주고보 이경채 사건으로 야기된 대 맹휴 투쟁 당시 광주농교는 광주고보와 연합전선을 편다. 송성수·김윤성·김재룡·유상걸·나석현은 맹휴투쟁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형³⁹⁾을 선고받는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 싸움에 수십명의 광주농교생들이 참여하였고, 오후 시위행진에도 최태주 등 수십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11월 12일, 광주농교는 수업 시작 종소리를 신호로 “철창에서 신음하는 교우를 구하자”는 조길룡의 제창으로 교사에 의해 저지된 5학년생을 제외한 한국인 학생 전원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광주형무소를 향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2번지의 옛 광주농업학교는 1976년, 광주시 북구 오치동 현 교사로 이전된다. 이름도 광주농업중학교(1947), 전남농업중학교(1950), 광주농업고등학교(1951),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2001)로 바뀐다. 지금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의 임동 교사는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현 교사인 오치동 광주자연과학고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역사관과 기념탑이 서 있다. 기념탑은 1959년 6월,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광주농업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성금을 모아 임동의 옛 교정에 세웠다가, 1974년 9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으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옮겨진다.

1959년 건립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 2002년 11월 국가보훈부에 의해 학생운동 현충 시설로 지정된다.

39) 송성수는 징역 8월, 김윤성·김재룡은 징역 6월, 유상걸·나석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9) 전남사범학교 터

전남사범학교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거 설립된 학교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 경성·대구·평양에 관립 사범학교를, 1923년 도별로 사범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가해 준 시행령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전국 13개 도에 15개의 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전라남도에는 1923년 광주에 도립 전남사범학교가 설립된다.

1929년 7월, 전남사범학교 학생이던 송동식·홍귀주 등은 수피아여학교 뒷산(양림산)에 독서회를 결성하고, 9월에는 광주형무소 뒷산에 모여 송동식을 대표로 선출한다.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 등 시위대가 광주우편국(현 충장우체국)의 저지선을 뚫고 옛 전남도청에 이르자, 100여 명의 전남사범 학생들도 교문을 무너뜨리고 시위대에 합류한다. 이때 송동식 등 5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송동식은 광주고보 김상환과 광주농교 조길룡과 함께 독서회 관련 최고형인 징역 4년을 선고받는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이듬해인 1930년 전남사범학교는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되고, 1938년 광주사범학교가 설립된다. 1962년 광주사범학교가 폐교되자, 1963년 광주교육대학이 이를 계승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전남사범학교의 교사(校舍)는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 565번지(현 동구 서석동 143-13 광주중앙도서관)였다. 현재 교사터에는 광주 중앙도서관이 들어서 있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안내판은 없다.

2008년, 도립 전남사범학교를 계승한 광주교육대학교 교정에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건립된다.

(10) 수기옥정 우편국 앞터

충장로 5가 49번지에 위치했던 수기옥정 우편국 앞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잉태시킨 한·일 학생 첫 충돌지다. 1929년 11월 3일 명치절 기념행사가 끝난 후 신사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사이토·마스나가 등 일본 중학교 학생들이 광주천변에서 광주고보생 최쌍현에게 시비를 걸어 단도로 얼굴을 찌른다. 그리고 잠시 후 수기옥정 우편국 앞에서 최쌍현을 찢었던 일본인 학생이 포함된 16명과 황남옥·최상을 등 7~8명의 광주고보생들이 맞부딪치면서 싸움이 벌어진다. 일본 중학생들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에게 밀려 옛 광주역(현 동부소방서) 쪽으로 도주하였고, 광주고보 학생들이 이를 추격하였다.

그리고 두 세력이 만나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장소가 옛 광주역이었다. 따라서 수기옥정 우편국 앞은 광주역에서의 집단 패싸움, 더 나아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잉태한 매우 중요한 현장이다.

첫 싸움이 벌어졌던 수기옥정 우편국 자리(충장로 5가 49번지)에 1943년 조흥은행이 들어선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2018년 철거⁴⁰⁾되고 지금은 빈 공터로 남아 있다. 현장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표석도,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40) 김경수, 『광주 최초1』, 향지사, 2023, 50쪽

(11) 옛 광주역 터

옛 광주역은 1929년 11월 3일 11시 30분경, 광주고보생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과 광주중학교 학생 수백명이 집단 패싸움을 전개한 장소다.

대전과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선 전 구간이 개통된 것은 1914년이었고, 송정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는 1922년 개통되면서, 나주 등지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송정리역과 광주역 사이에는 ‘극락강역’과 ‘운암역’이 생겨났는데, 1929년 6월 26일 운암역에서는 조선인이 개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들은 야만인이야“라는 말을 듣고,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1929년 11월 3일, 명치절 행사 뒤 광주천변에서 일본인 학생이 광주고보생 최쌍현에게 시비를 걸었고, 단도로 얼굴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장로 5가 수기옥정 우편국 앞에서 광주고보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다시 만나 첫 싸움이 벌어졌고, 수세에 몰린 일본인 학생들이 옛 광주역(현 동부소방서)으로 도주하자, 광주고보생들이 이를 추격하였다.

옛 광주역에는 명치절 기념식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통학생 수십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장한 일본인 학생 200여 명이 들이닥치며, 급보를 접한 광주고보 기숙생들은 몽둥이와 야구방망이, 학교 창고에서 꺼낸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고, 광주농업학교 수십명도 이에 합세한다.

야구방망이와 농기구 등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난투극을 전개하자, 광주역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한국 학생들의 기세에 밀린 일본인 학생들이 토교(동문다리) 쪽으로 후퇴하면서, 광주역에서의 싸움은 한국 학생들의 승리로 끝이 난다.

옛 광주역에서의 집단 싸움은 오후 시가지 시위로 이어졌고, 제2차 시위 및 전국으로의 확산을 가져온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장이다.

옛 광주역은 1969년 북구 중흥동으로 이전하였고, 1986년 옛 광주역 자리에 동부소방서가 들어온다. 옛 광주역 터에는 광주역 터(光州驛址)임을 알려주는 조그마한 표지석만이 서 있을 뿐이다.

(12) 토교(동문다리) 터

토교라 불린 흙다리는 광주읍성 동문 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문다리로도 불렸다. 1929년 11월 3일, 옛 광주역(현 동부소방소)에서 한·일 학생 간 집단 패싸움이 전개된 후 한국 학생들에게 밀린 일본 중학생들은 성저리 십자로 부근의 동문다리로 후퇴한다. 동문다리⁴¹⁾에서 한·

41) 당시 한국인 학생과 광주중학교 학생이 대치하였던 성저리 흙다리(토교, 동문다리)는 동계천이 흘렀던 대인시장 입구가 아닌 해자와 경양방죽으로 흘러 들어갔던 광주천 물줄기가 만나는 한미쇼핑 사거리에 위치했다. 1917년 측량된 ‘광주지형도’에는 한미쇼핑 사거리와 동계천이 흘렀던 대인시장 입구에 다리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관동여관이 동문 다리 부근이었다는 점, 어린 시절(1960년대) ‘동문 다리 아무개 아저씨 점방(잡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 오는 심부름을 했는데, 그때 점방이 한미쇼핑 사거리 계림동 쪽을 바라보는 코너에서 두세번 째 짬의 가게였다는 이용우(1951년생)의 증언을 보면, 동문다리가 대인시장 앞이 아닌 한미사거리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일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을 당시 역 앞쪽에서 영업하던 관동여관⁴²⁾ 주인은 학생들에게 장작더미를 담 너머로 던져주며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이때 장재성이 학생들에게 “오늘 광주역에서 적과 싸운 것은 용감한 조선인의 기상이었고 또한 대승리였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며 싸움을 중지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종용, 광주고보로 돌아온다. 이후 광주고보생들은 타도 대상을 일본 학생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로 정하고, 다시 교문을 박차고 나온다.

한·일 학생들이 대치했던 장소인 성저리 동문다리는 한때 대인시장 입구로 비정⁴³⁾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저리 동문다리는 대인시장 입구가 아닌 광주천 물줄기가 만나는 한미쇼핑 사거리(중앙초등학교와 한화생명 광주 사옥 사이)다. 이는 인근에 장작더미를 던져준 관동여관 위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로잡아야 한다.

한·일 학생이 대치했던 동문다리 현장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안내판이 없다.

(13) 광주 지방법원 터

광주학생독립운동 발발 이후 정식으로 구속된 학생은 총 260여 명이었다. 이중 보안법 관련으로 49명, 성진회 관련으로 38명, 독서회 관련으로 90명, 소녀회 관련으로 11명 등 총 173명이 재판에 회부된다. 그런데 173명 중 15명은 보안법과 독서회에 같이 걸려 있어 실제 재판받은 인원은 158명이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158명에게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했던 장소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법정 투쟁 장소이기도 했다.

광주 최초의 법원은 1896년 전라남도 관찰부 청사 안에 설치된 전라남도 재판소였다. 1908년 광주 객사인 광산관으로 옮긴 후, 1909년 광주지방재판소로 이름이 바뀐다. 1912년 광주지방재판소는 광주지방법원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고, 금남로 3가 1번지에 서양풍 함석 단층 청사가 마련되면서 이전되고, 1917년 서양식 2층 양철 지붕으로 개축된다⁴⁴⁾. 그 개축된 건물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학생들이 재판을 받았다. 이후 1969년 금남로 확장공사로 광주지방법원은 동구 지산동 342번지 일대로 이전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학생들이 재판을 받았던 광주지방법원 건물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옛 광주지방법원 터’에 사적지 표석을 설치하였다.

(14) 광주형무소 터

42) 1929년 11월 3일, 한국 학생들이 광주중학생과 동문다리(토교)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한국 학생들에게 장작을 던져준 관동여관(동구 대인동 183번지)은 현재 한미쇼핑 4거리에 위치한 북경당한의원 옆 주차장 자리에 있었다.

43) 국가보훈처, 『광주·전남 독립운동사적지1』, 2010, 122쪽

44) 김경수, 『광주 최초1』, 향지사, 2024, 292~293쪽

광주형무소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구속된 260여 명이 간혀 있던 장소이면서, 학생들의 옥중 투쟁 장소였다. 그리고 1929년 11월 12일 제2차 시위 당시 광주형무소는 1차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이 모여들었던 장소이기도 했다.

광주형무소는 1908년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사법제도를 개편하면서 설치한 범죄자 수감시설인 광주감옥을 전신으로 한다. 당시 광주감옥은 광주읍성 내 충장로 1가 황금동에 있었다. 1912년에는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현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0번지 일대)에 새 감옥을 짓고 이전하게 된다. 이후, 1923년 5월 5일 광주형무소로 개칭된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옛 광주감옥 터’에 사적지 표석을 설치하였다.

2. 기념 시설(기념탑과 기념관, 안내판, 동상 등)











2024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한 지 95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100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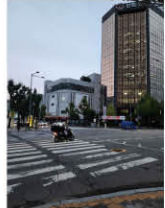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는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당시 관련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어떤 기념시설이 있는지,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념시설 현황

연번	사적지)	당시 및 현재 모습	기념 시설/표석/안내판	국가유산 등록 여부	주 소
1	흥학관 터				-당시 주소 광주군 광주면 서광산정 39-6
					-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00번지
2	김기권 문방구 점/장재성 빵집 터				-당시 주소 광주군 본정 3정목
					-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20-2(금남로 공원)

45) 김경수, 『광주 최초3』, 2014, 78쪽

3	장재성·장매성 생가터				-당시 주소 광주군 부동방 면 금계리 97 -현주소 동구 금동 97번 지
4	옛 나주역 터			전라남도 기념물	-현주소 나주시 죽림동 60-172
5	장석천 거주지				-당시 주소 광주군 누문리 93번지 -현주소 북구 누문동 93-1
6	광주고보 터			광주광역시 기념물 (1999)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 (2002)	-당시 주소 광주군 광주면 누문정 -현주소 북구 누문동 144(광주제일고 등학교)
7	광주여고보 터			광주광역시 기념물 (1999)	-당시 주소 -현주소 동구 장동 39-12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 (2002)	
8	광주 농업학 교 터		  46)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 (2002)	-당시 주소 광주군 광주면 누문리 -현주소 북구 임동 92 일대
9	전남사범학 교 터		 47)		-당시 주소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 565 -현주소 동구 서석동 143-13
10	수기옥정 우편 국 터				-현주소 동구 충장로 5 가 49번지
11	옛 광주역 터	 			-당시 주소 광주군 광주면 성저리 -현주소 동구 대인동 324-9(동부소방 서)
12	토교 터 (동문다리)	 48)			-현주소 동구 대인동

46) 광주농업학교는 현재 광주자연과학고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학생독립운동역사관과 기념탑은 이전된 북구 오치동 5번지 광주자연과학고 교정에 건립되어 있다.

47) 전남사범학교 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은 전남사범학교를 계승한 광주교육대학교(북구 풍향동 1-1) 교정에 건립되

13	광주지방법원 터			-당시 주소 광주군 광주면 북성정 14 -현주소 동구 금남로 3 가 1-11
14	광주형무소 터			-당시 주소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 -현주소 동구 동명동 200번지

제 2장, 국가유산 등록 현황 및 등록 전략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사적지·기념시설물을 국가 및 시·도 지정 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의 종류 및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유산의 종류

국가유산⁴⁹⁾(이전에는 문화재)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은 지정권자가 국가인 경우와 시·도인 경우로 나뉜다. 지정권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 문화유산, 지정권자가 시·도인 경우는 시·도 문화유산으로 불린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산 중 국가나 시·도는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산 종류

지정권자별/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	------	------	------

어 있다.

48) 토교(동문다리) 위치는 현재 한미쇼핑사거리로 제봉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4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 참조

국가	국보, 보물, 국가 민속문화유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	시도 유형문화유산, 시도 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 문화유산자료	시도 자연유산, 시도 자연유산자료	시도 무형유산

등록권자별/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	국가등록 문화유산		
시·도	시·도등록 문화유산		

2.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유산이란 국가유산청⁵⁰⁾의 장이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국가가 지정한 유산으로는 국보·보물·국가 무형문화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7개 유형이다. 이중 국보와 보물, 사적, 국가 민속문화유산은 문화유산에,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에, 국가 무형유산은 무형유산에 속한다.

이를 몇가지 사례와 함께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 유산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서울송례문, 훈민정음, 광양중흥산성쌍사자 석등 등 358건 ⁵¹⁾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광주성거사지 5층 석탑 등 2,385건
	사적	문화유산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수원화성, 충효동 도요지, 신창동유적지, 광주충효동 요지 등 531건
	국가민속 문화유산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김덕령장군의복, 안동하회마을 등 310건
자연 유산	명승	자연유산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명주 청학동 소금강, 광주 환벽당 일원 등 134건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광주충효동왕버들군, 무등산 주상절리대, 노랑부리백로 등 479건
무형유산	국가무형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50)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다. 국가유산의 관리, 보호, 지정, 복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과거에는 문화재청으로 불렸으나, 2024년 5월 17일 부로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산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 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종묘제례악,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등 160건
--	----	--

3. 시·도지정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기념물·무형유산·자연유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유산의 유형 및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한 시 지정유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증심사 3층석탑, 십신사지 석불, 광주 향교 등 31건 ⁵²⁾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남도판소리, 광산농악, 용전들노래 등 21건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정지장군 예장석묘, 허백련 춘설헌, 광주북동전주교회, 광주학생운동 발상지 ⁵³⁾ 등 24건
자연유산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이장우 가옥 등 9건

4.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 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칭한다⁵⁴⁾.

5. 국가 및 시·도등록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51) 2023년 12월 31일 기준

52) 2023년 12월 31일 기준

53) 기념물로 지정된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44-45(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 터) 및 동구 장동 39-12번지(전남여고 옛 본관 주변 터)로, 1999년 4월 30일 지정되었다.

5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참조

근·현대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말한다.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도등록문화유산이란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 중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국가 및 시·도 등록문화유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시·도 등록 문화유산 시·도별 현황⁵⁵⁾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 등록 문화유산	235	22	14	9	22	23	7	2	95	54	32	77	91	116	66	68	26	959
시·도 등록 문화유산	20	4	0	9	0	2	1	0	19	0	4	3	11	0	1	1	9	84

국가등록 문화유산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959건이다. 이중 광주광역시의 경우 22건이 등록되어 있어 전국 2.3%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등록 문화유산은 전국 총 84건인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1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주 소재 국가등록문화유산 현황

연번	문화유산 이름	대분류	건립연도	시군구	등록년월일
1	전라남도청 구 본관	건축물	1925	동구	2002. 5.31
2	서석초등학교 본관·별관·체육관	건축물	본관 1935, 체육관 1930	동구	2002. 5.31
3	조선대학교 본관	건축물	1951	동구	2004. 9. 4
4	수창초등학교 본관	건축물	1931	북구	2004. 9. 4
5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건축물	1955	북구	2004. 9. 4
6	광주 교육대학교 본관	건축물	1939	북구	2004. 9. 4
7	장덕동 근대 한옥	건축물	1920년대 추정	광산구	2004.12.31
8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건축물	1911	남구	2005. 4.15
9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 메모리얼 홀	건축물	1924	남구	2005. 4.15

55) 2023년 12월 31일 기준

10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러우홀	건축물	1927	남구	2008. 2.28
11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교사	건축물	1949	동구	2014. 7. 1
12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부	건축물	1958년 이전	동구	2014. 7. 1
13	광주 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건축물	1957	북구	2014.10.30
14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건축물	1961	서구	2017. 4.20
15	관덕정	건축물	1967	남구	2017.10.23
16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건축물	1951	동구	2018. 8. 6
17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건축물	1961	서구	2018. 9.13
18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헬리관	건축물	1961	서구	2018. 9.13
19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식당동	건축물	1961	서구	2018. 9.13
20	매천 황헌 유묵 자료첩(11책)	동산	1910년대	광산구	2019. 5. 7
21	구 무등산 관광호텔	건축물	1959	북구	2020. 3. 9
22	전남대학교 용봉관	건축물	1957	북구	2020.12.31

6.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유산 등록 현황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기념시설 중 국가지정유산은 단 한건도 없다. 단지 두 곳만이 시·도지정유산인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다.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1929년 10월 30일, 일본 중학생 후쿠다 등이 광주여고보생 박기옥 등을 밀친 사건으로 한·일 학생간에 충돌이 벌어졌던 옛 나주역 현장인데,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나주역사’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기념물의 주체가 ‘나주역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1929년 11월 3일과 12일 시위의 핵심 학교였던 광주고보의 학생독립운동기념탑 및 주변 터와 광주여고보의 경우 본관(역사관) 및 주변 터가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라는 이름으로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라는 ‘址⁵⁶⁾’가 기념물이 되었다 보니, 기념물의 주체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유산 등록 현황

연번	사적지 및 기념시설	국가유산 분류	등록연대	주소지
----	------------	---------	------	-----

56) 광주광역시 지정 기념물은 지정해제 된 것을 포함 모두 26개다. 이중 터(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무진고성지(武珍古城址)와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밖에 없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	광주광역시 기념물	1999. 4	광주 북구 누문동 144-45
				광주 동구 장동 39-12번지
2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나주역사(羅州驛舍)	전라남도 기념물	2000.12	전남 나주시 죽림동 601외

7. 현충시설 등록 현황

국가유산과는 달리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독립운동 현충시설도 있다.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나뉜다⁵⁷⁾. 현충시설은 현충시설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심사 후 지정된다. .

광주·전남 지역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⁵⁸⁾은 총 6개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전남 현충시설 현황

연번	현충시설 이름	현충시설물	종류	주소지	건립년도
1	광주학생독립운동 여학도기념비		비석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9-12(전남여고 교정)	1959
2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탑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44(광주제일고 교정)	1954
3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탑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자연과학고 교정)	1959

57) 2024년 9월 기준 현충시설은 독립운동시설이 582개, 국가수호시설이 1,117개 등 총 1,699개가 지정되어 있다.

58) 현충시설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4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기념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512	2005
5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기념비		비석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225-3	1981
6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기념관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60-172	2008

8.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 국가유산 등재 방안

2029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100주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특히,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적지 및 기념시설물 정비 및 국가유산으로의 등재는 총체적 정리를 위한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기념시설물의 국가유산 등재는 아예 없고, 나주역사(驛舍)와 광주고보·광주여고보의 옛터만이 시·도 지정유산인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가나 시·도지정유산과는 별도로 광주일고에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등 6건이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을 국가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로 「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광주일고 교정의 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전남여고 본관을 국가지정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도 있다. 당시 주제발표자였던 한규무(광주대학교) 교수는 시 기념물로 지정된 전남여고 옛 본관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한규무 교수는 국가지정유산에 앞서 시·도지정유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지정유산에 앞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표석 설치 등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가유산으로의 등재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등재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미나 등 학술집회를 통해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면, 시교육청 및 시청 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후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광역시에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있다. 위원들이 시청 혹은 시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어떤 사적(지) 및 기념시설을 국가지정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국가지정유산이 어렵다면 국

가등록유산으로 등재할 수는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내야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의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몇가지 방안이다.

첫째,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몇몇 사적지에는 표지석이나 안내판마저 없는 곳도 있다.

둘째,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 중 국가유산 지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 중 국가 지정유산은 시·도 기념물로 지정된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광주일고, 전남여고)’와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 나주역사’ 뿐이다. 그런데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라는 기념물은 주체가 정확하지 않아 혼선을 준다.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는 광주일고 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전남여고 본관 및 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로 나뉘어 각각 시·도기념물로 재등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가 필요하다. 전남여고 본관(역사관)과 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 광주일고 교정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나주역사(羅州驛舍), 흥학관 터 및 옛 광주역(현 동부소방서)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국가유산 중 등재할 유형을 선정해야 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이 등재될 수 있는 유산 유형에는 국가지정 유산에 속하는 ‘사적과 시·도지정 유산 중에는 시·도 기념물이, 그리고 국가등록 문화유산이나 시·도등록 문화유산이 해당된다.

이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도등록 문화유산으로의 등재이다. 시·도등록 문화유산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시·도등록 문화유산은 총 84건이나 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지정된 시·도등록문화유산은 ‘0’건이다. 이는 역사·문화유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라고 본다.

두번째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재이다. 이미 살핀 것처럼 2023년 12월 기준으로 광주의 문화유산 22건이 지정되어 있다. 광주의 문화유산 중 전남도청 옛 본관이나 수창초등학교 본관, 옛 수피아여학교 수피아 홀 등이 지정되고 있음을 보면, 오히려 앞선 시기에 건립되었고 소중한 역사성을 품고 있는 광주여고보 교사(校舍)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나주 역사(驛舍)도 마찬가지다.

광주일고 및 자연과학고 교정의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나 전남여고 교정의 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비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비’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례로는, 1930년대 걸립된 옛 부산나병원 기념비, 1955년 건립된 영암선 개통 기념비 등이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 중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의 등재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일제하 최대 항일운동은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이다. 3·1운동의 사적 중 유관순 생가 등 ‘천안유관순열사유적⁵⁹⁾’이 1972년 국가지정 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고등

학교 본관이나 옛 서울역사, 전주 전동성당, 옛 목포 일본영사관 등도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다. 광주여고보 본관 건물의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사적'을 꿈꿔보는 이유다.

다섯째, 당장 국가지정 유산 등록⁶⁰⁾이 어렵다면 국가 및 시·도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일부 유산이나 관련 시설은 시·도지가 지정할 수 있는 문화유산자료나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현충시설로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여섯째, 광주학생독립운동사적지의 국가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광주시청과 광주시 교육청의 협조와 분담이 절실하다. 학생독립운동 관련 학생 행사와 교육은 시 교육청이, 표석 등 안내관 설치 및 관리와 문화해설사 지원은 시청이, 100주년 기념 사업은 국가와 시청, 시 교육청,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가지정유산 등재 사업은 시 문화재(전문)위원을 관리하는 광주시청과 광주 시민이 함께 해내야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가능성 있는 것부터의 실천이 중요하다.

제3장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관련 시설 활용방안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관련 시설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광주시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미래 세대인 학생 교육은 시 교육청이, 관광·역사자원으로의 활용은 광주시청이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하나, 5·18민주화운동관련 사적지 및 관련 시설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및 기념시설물 중 전남여고 본관(역사관)과 여학도 기념비, 광주 일고 교정의 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과 학생독립운동기념탑, 화정동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기념탑, 흥학관 터와 장재성·장재성 생가터 등은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역사자원이다. 특히 전남여고 본관(역사관) 및 여학도기념비는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옛 전남도청, 245건물과 5·18기록관 등 5·18사적 및 기념시설물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출입문인 교문이 동계천 쪽으로 나 있어 전남여고 본관과 여학도기념비로의 접근이 쉽지 않다. 즉 전남여고 본관(역사관) 및 여학도기념비를 5·18 사적과 연계, 관광 및 역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문을 활용하는 방안, 혹은 제봉로 쪽에 입구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59) 사적지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38-1이다.

60) 2022년 광주시교육청 주최의 「학생독립운동발상지의 역사적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규무 교수의 주제발표 토론자로 나선 김덕진(광주교육대학) 교수는 한규무 교수처럼 국가지정 유산으로의 지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시·도지정 유산이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지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견해를 밝혔다.

둘, 광주 학생들의 함성과 발길이 묻어 있는 역사 현장은 매우 의미가 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보생 등이 일본 학생들과 싸웠고, 시위 행진했던 현장을 잇는 루트를 개발하여 체험 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루트로 ‘광주일고 학생독립운동기념 및 기념관-장재성 흉상-장석천 거주지-옛 수기옥정 우편국(최초 충돌지)-옛 광주역(집단 충돌지)-토교(동문다리)-충장로-옛 도립병원(현 전남대 의대)-부동교-광주공원-광주일고’ 코스를 제안한다. 이 코스가 개발되고 정비가 이루어지면, 광주시민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생독립운동 코스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걷기 후 학교별 소감발표 대회 등도 개최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광주효성청소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길’과 ‘광주 3·1만세운동길’ 걷기 및 소감 발표대회를 실시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셋, 화정동에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2021년부터 중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광주정신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정신이 묻어 있는 현장 11곳을 선정, 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은 후 3시간 동안 현장 체험 및 리플렛 작성,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되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대표적인 역사 프로그램이다. ‘광주정신’이 묻어 있는 체험장소 11곳은 충장사, 포충사, 김태원·심남일 기념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화정동), 4·19민주혁명역사관, 옛 전남도청과 5·18기록관, 국립 5·18민주묘지, 안중근의사 송모비와 동상(중외공원), 송호영당 및 박용철 생가, 광주공원 등이다. ‘광주 정신’이 묻어 있는 현장 결정은 학교 단위에서 1학년 담임 등이 결정하는데 2024년도의 경우 가장 많은 학급이 찾은 곳은 152개 학급(25.8%)이 찾은 옛 전남도청과 5·18기록관이었고, 두 번째가 106개 학급(18.4%)이 찾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었다. 이는 2023년도도 마찬가지였다. 옛 전남도청과 5·18기록관이 153개 학급(26.4%)이었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143개 학급(24.2%)이었다. 광주 교사들은 5·18민주화운동 현장과 함께 학생들이 꼭 찾아보아야 할 현장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꼽고 있다. 그러나 오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학생 눈높이에 비해 다소 산만하고 어지럽다. 기념관의 리모델링 등 정비가 필요하다.

넷,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를 위한 현장 연수의 확산이 필요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 및 간도 등 320여 개 학교가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적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전국 교사 및 학생들의 현장 연수 및 체험의 확산이 필요하다. 전국 역사 교사들의 현장 연수와 광주를 제외한 참여 학교 학생회장단의 광주학생독립운동 현장 체험을 제안한다. 2029년은 광주학생독립운동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00주년 기념사업 프로젝트로 실행되었으면 싶다. 2020년부터 광주교육청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1박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연수를 진행하였지만, 2024년도에 폐지되고 만다.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 안타깝기 그지 없다.

다섯, 2022년 11월, 광주광역시 교육청 주최로 ‘학생독립운동발상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다. 이때 한규무(광주대학교)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한규무 교수가 제안한 활용방안은 기념회관 및

기념관 홈페이지에 관련 유적지에 대한 정보 탑재, 초·중·고 학생 수준에 맞는 ‘골든벨’ 이벤트 개최, 이달의 학생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유적지 답사 코스 개발 등 4가지였는데,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섯,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 기억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회관의 주된 사업과 업무는 도서관 기능이다. 도서관 기능의 축소와 독립정신 선양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직제 개편을 통해 선양팀을 확대하고, 선양팀이 중심이 되어 학생독립운동의 아카이브 구축 및 기림과 계승을 위한 학생 프로그램 운영, 시민 대상의 강좌 등을 운영해야 한다.

토론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에 대한 토론문

최정미
(건축문화연구소)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과 보존”에 대한 토론문

최정미*

광주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시작된 요람이며 당시 저항정신이 뚜렷한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배후에서 학생운동을 지원할 정도로 의식있는 사회운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당시 한일 학생 간 교육제도와 시설차이에 기반 한 한국인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민족운동의 방편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인 독서회의 조직, 동맹휴학의 파동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광주학생운동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역사현장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 홍학관, 광주역, 황금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이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는 현 광주제일고등학교이며,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현 전남여자고등학교이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의 필자가 제공한 1922년 설계도(국가기록원)에 있는 교사, 기숙사 등의 건물은 현재 실존하지는 않는다.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1928년 3월 잡지에 수록된 본관의 평면도와 현 전남여고 역사관은 형태적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는 1929년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역사적 현장의 건축물이 원형을 유지하며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예이다. 광주공립농업학교는 1920년 임동으로 이전하며 신축되었으나 현재 사라졌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해 건립된 홍학관을 비롯해 광주역도 그 형태를 잃었거나 도시개발과 함께 사라졌다. 1967년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에 과거 북촌루터에 건립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지역의 도서관으로 쓰이다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문제로 서구에 신축 이전한 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 소통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전남여고 역사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다. 기념탑과 안내석, 기념수 등이 남아 역사적 장소가 인식의 공간으로써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존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현장도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 가치가 큰 것의 범주에서 ‘사적 지정’을 여러 가지 유사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 맥락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다닌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정 부지 중 일부인 북구 독립로 225와 동구 제봉로 158번길 8를 함께 1999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지정 대상지는 인접 필지가 아닌 두 개로 나누어진 영역이므로 향후 지정 과정에 있어 문화유산 구역으로 명확한 토지 면적 제시가 필요하다. 지역의 나누어진 곳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예는 사적 나목관아와 향교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나주시 금계동 일원 내 상당히 이격된 위치에 있는 나주목관아와 향교를 함께 하나의 종목으로 지정한 예가 있다.

국가유산 지정 과정에서 면적과 보호구역 범위 설정은 소재지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

건축학 박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 (주)건축문화연구소 한건 대표

행사와 이와 관련된 민원과도 연관되기에 예민한 문제이다. 그리고 지정 후 대상물의 현상변경은 국가유산법 범위 내에서의 행위만 가능하다. 아무래도 소유(관리)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용도변경,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섭이 반가울리 없을 것이다. 또한 지정 필지와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교육청, 구청 등 다양하다. 따라서 사적 지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정 면적과 대상이 정리되어야 하며 지정 신청 주체에 대한 일원화도 필요하다.

원형의 건물이 남아 있는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고 역사관)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제안한다. 국가등록유산은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 관리하는 문화유산으로써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이다. 등록 주체는 문화유산청장이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지정문화유산은 규제에 의한 원형보존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등록문화유산은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개인박물관, 지역전시관, 지역교육관 등의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하여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지도·조언·권고를 받은 후 내부 개조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도 가능하기에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유연하게 보장되므로 검토할 만하다.

현재 광주광역시 내 등록문화유산 중 전남여고 역사관과 같은 교육시설이 지정된 곳은 국가 등록유산이 총 15개소, 시 문화유산자료가 1개소 있다. ([표]광주광역시 등록문화유산 중 교육 관련 시설 사례) 천주교 종교 교육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정(등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남여고 역사관이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초기 건립 당시의 도면 자료와 사진, 문헌 자료가 남아 있고 건축 형태가 온전한 현 전남여고 역사관은 그 등록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의 준비가 어렵다면 광주광역시 등록문화유산도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발의, 2024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을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²⁾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

[표]광주광역시 내 등록문화유산 중 교육 시설 사례

순번	종목	명칭	시대 지정(등록)일	소유자(소유단체)	수량/면적
1	광주 서석초등학교 본관·별관·체육관	국가 등록유산	본관 1935 체육관1930 별관 1943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본관 1동 연면적 2,203.64㎡ 체육관 1동

2) 제4장 시등록문화유산 제40조~ 48조

			2002.05.31		연면적 690.58㎡
2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	1951 2004.09.04	조선대학교	
3	광주 수창초등학교 본관	..	1931 2004.09.04	광주광역시 교육청	1동, 2층 연면적 925.27㎡
4	광주교육대학교 본관	..	1939 2004.09.04	광주교육대학교	1동, 2층 연면적 2,356.47㎡
5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 홀	..	1911 2005.04.15	학교법인 호남기독교학원	1동, 지하1/2층, 건축면적 342.43㎡ 연면적 1,027.29㎡
6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 메모리6열 홀	..	1924 2005.04.15	학교법인 호남기독교학원	1동, 2층, 연면적 172.38㎡
7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 홀	..	1927년 2008.02.28	학교법인 호남기독교학원	1동 2층 지하1층 건축면적 1,040㎡ 연면적 2,238.06㎡
8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 메모리얼 홀	..	2005.04.15	학교법인 호남기독교학원	1동, 2층, 연면적 172.38㎡
9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	..	2014.07.01	조선대학교	1동/ 1,359㎡
10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관	..	2014.07.01	조선대학교	1동/ 1,614㎡
11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	1957년 2014.10.30	광주교육대학교	1동/ 695㎡
12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	1960년대 2017.04.20	(재)광주구천주 교회유지재단	
13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	1960년대 2018.09.13	(재)광주구천주 교회유지재단	1동 건축면적 1,301.76㎡ 연면적 3,009.07㎡
14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헨리관	..	1960년대 2018.09.13	(재)광주구천주 교회유지재단	1동 건축면적 540.39㎡ 연면적 1,603.39㎡
15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식당동	..	1960년대 2018.09.13	(재)광주구천주 교회유지재단	1동 건축면적 779.27㎡ 연면적 779.27㎡
16	광주수피아 여자고등학교 소강당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자료	2011.07.22	학교법인 호남기독교학원	

필자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의 가치 증진과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 개발논리로 인해 중요한 역사 현장이 사라져가고 있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유사한 학술 행사는 10여 년 전에도 있었으나 과거 상태를 그대로 담보하고 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필자가 제시한 가치 근거에 준하여 이제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연구자 및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적 보존 가치와 근거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탁월한 가치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역사적 현장의 사라진 것과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헌 자료 수집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도적이며 지속적으로 국가문화유산 지정 준비를 추진해 나갈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공감대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동창회의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유산 지정 신청 주체에 대한 정리도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현장은 보존의 방법을 고민할 새 없이 도시개발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필자는 연구의 목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영원히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축 공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 후 분석하였다. 국가 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단초를 필자가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현장을 가치 증진과 보존 관점에 대해서 정리한 점도 그러하다. 이 심포지움을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국가유산 지정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토론2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에 대한 토론문

이수진
(동신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 현장과 보존」에 대한 토론문

이수진(동신대)

발표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대한 항거의 상징공간으로서 나주학생독립운동 역사 현장과 보존활용 현황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있던 당시, 청년학생들에게는 민족의식과 일제에 대한 반감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의식이 통학열차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광주학생운동에 이어 전국학생운동으로 확대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에는 당시 항쟁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유형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면 나주에는 (구)나주역사를 비롯하여 나주지역 청년학생들의 항쟁 장소였던 여러 건축과 역사적 공간들이 현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이 역사적 공간들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주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김종순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근대유산과 관련하여 평소 토론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묻는 것으로 이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은 단일유산에서 시대성을 담고 있는 역사유산으로, 더 나아가 통시적 관점에서의 역사현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이어 발표자는 ‘이광춘 생가 - 나주 보통학교 - 남파고택 - 나주금융조합, 협동상회 - 나주정미소 -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 기념비’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항쟁의 상징적 장소인 건축과 역사적 공간들의 역사문화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역사적 현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장소의 역사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대적 활용(예를 들면 미술관 또는 주민 네트워크센터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주 학생들의 항거로 촉발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19년 3·1 운동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인 항일 운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참배실에 봉안된 독립운동가 280명 중 127명은 이념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신독재체제 하에서는 청년학생의 시대정신을 봉쇄하기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일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국제관계의 미래를 포장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과거사를 미화하며 Political power로 진출하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40문 40답으로 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중학생이 보는

학생독립운동'과 '고등학생이 보는 학생독립운동'의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직접 연관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발표해 주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찾아가는 역사교실'이 주목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개편작업 중인지 '찾아가는 역사교실'이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광주 전남지역 학교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토론3

●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방안에 대한 토론문
●

명 동 호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해외 평가와 국제연대방안」에 대한 토론문

명동호(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부터 1930년 4월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6년 6·10 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독립운동의 하나이다.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접하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와 계승 사업에 대한 이제까지의 실적이 충분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에 이르러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광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11월 3일을 전후한 단기간에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고,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으며, 중국을 비롯하여 쿠바와 미국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꺼져가던 독립운동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독립운동사에 전환기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재평가 받고 있다.

이런 재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11월 3일에 개최되는 기념식의 주관을 중앙정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개최함과 더불어, 행사의 명칭에 있어서도 ‘광주’라는 지역명의 사용을 자제하고 ‘11·3 학생독립운동’등의 명칭의 사용을 제안하며 전국화·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본 발표는 그 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의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독립운동의 전국화·국제화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집약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계승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자는 연구와 계승 사업 모두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연구와 계승 사업 모두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과 더불어 특별히 토론자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계승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방안에 관한 것이다. 국제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사업의 정부 주관기관에 관한 것이다. 현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라는 지방조직이 중심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예산과 조직의 제약에 관한 것이다.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 법적인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이에 따른 조직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인 연대의 대상 국가와 단계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대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대상 국가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직접적인 관계 국인 일본이 될 것이며, 다음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대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던 중국이 될 것이다. 이어서 유럽, 미주 등에 있는 국가가 될 것이지만, 이들 지역의 많은 선진국들 또한 또 다른 가해국이었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국의 구체적인 접촉 대상은 비정부기관이나 개인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는 다른 성격의 양심적인 시민조직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상과 상황에 맞추어 추진단계의 완급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토로평화기념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다.

국제적인 연대사업의 성격과 추진 방안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인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해자인 일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배제와 징벌’에 그치지보다는 ‘이해와 화해·협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도출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논의는 공개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목표설정과 추진에는 관계국의 건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하고, 연대와 소통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국제적인 연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발표자의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4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유산
지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편

김보름
(빛고을역사교사모임)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 유산 지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보름(문산중학교 역사교사)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 유산 지정 및 활용 방안』 발표문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사적지 14곳의 현재 모습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기념 표석 및 안내판 등 기념시설의 현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또 국가 유산의 종류와 유형을 분석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가 국가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방안과 그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발표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오랜 시간 천착하였으며, ‘광주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발표자의 오랜 연구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왜 우리가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의 국가 유산 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실천이 중요하다는 발표자의 거듭된 지적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정책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우리 지역 역사 자산의 양대 축입니다. 오늘날 광주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이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주의 역사 관광 자원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 국가 유산 지정 및 활용 방안』 발표문을 읽고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두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의 바람대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가 국가 유산으로 등재된 이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표지석처럼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를 알리는 표지석이 통일된 디자인으로 곳곳에 세워지고, 광주학생독립운동 루트를 안내하는 ‘○○길’ 안내판이 길목마다 설치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1929년에 발생한 학생독립운동을 어떻게 명명하여 국가 유산으로 등재하고 기념시설을 정비하며, 표지석과 안내판을 만들면 좋을까요? 이미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명칭이 오늘 토론회와 같이 여러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이 문제는 국가 유산 지정 전에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의 이름에는 그 사건의 성격 또는 의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표기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매년 11월 3일이면 실시하는 계기 교육은 ‘광주학생독립운동’ 혹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집니다. 독립운동이 일반적으로 더 널리 쓰이는 친숙한 표현이지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항일운동이라는 용어가 투쟁의 대상을 더 명확하게 가리키고,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또 1929년 당시에 광주와 나주는 철도로 이어진 경제·교육 공동체였기에 해당 사건에

서 두 지역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두 행정구역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지역에 지역명을 딴 독립운동기념관이 각각 건립되어 있어서 종종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학생독립운동을 분절된 사건으로 인식하는 오해도 발생합니다. 나주가 나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이름을 따르지 않냐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11·3 학생독립운동’이라는 이름을 쓰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은 광주였으나, 이 사건이 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 곳곳으로 퍼져 나갔으며 전국 320여 개교에서 5만 4천여 명이 참여한 전민족적 항일운동이었기에 이 사건을 광주라는 지역명 안에 가두지 말고 전국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5·18이 광주에서 일어났으나, 그 참여 범위와 영향을 광주에만 한정하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이들은 1929년 학생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지역의 자부심인데, 광주라는 지역명을 뺄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 사태’가 ‘5·18 민주화 운동’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투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5·18이 ‘민중 항쟁’ 혹은 ‘민주 항쟁’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 명명된 것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학생독립운동을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분노이자 오랫동안 다져온 항일의식의 발로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맹기 머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한 학생독립운동은 학생들의 우발적 다툼, 감정적 싸움이었던 편견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의 국가 유산 지정에 앞서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지적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체질 개선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보훈부의 관심 부족을 질타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광주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계승과 기념 사업, 5·18의 전국화를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은 5·18기념재단이 그 중심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경우 5·18기념재단과 같은 역할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산하기관 중 하나로 그 독립성이 미흡하고 예산도 부족하며, 무엇보다 시청과 시의회의 관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시교육청도 본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학생독립운동이 학생과 관련 있다고 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책무를 교육기관에만 떠넘겨 왔습니다. 보훈부가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주관하게 된 것도 몇 년이 되지 않았으며, 기념식 주관 외의 학생독립운동 선양 사업에 보훈부의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전담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동에 가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이 있습니다. 그곳 조직도를 보면 행정지원을 하는 사무국이나 시설관리부 외에 학예연구부와 교육문화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예연구사 5명, 교육연구사 4명 등 총 9명의 연구 인력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부서를 총괄하는 부장과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주임 자리까지 포함하면 15명이나 됩니다. 올해는 기념관의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이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단 한 명의 학예사가 있을 뿐입니다. 독립유공자 발굴부터 학술 연구, 문헌 발간, 수장고 등 유물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각종 콘텐츠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 기념관에서 학예사가 해야 할 업무는 그 범위도 넓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기념관의 전시 자료가 너무 낡았다’, ‘학생과 시민을 위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학생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다’ 등의 세간의 지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담당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기념관에게 너무 벅찬 요구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교육청의 인력 강화 등 조직 개편, 지자체의 협조와 예산 지원, 그리고 보훈부 등 정부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기념관을 시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 두지 말고, 5·18기념재단이나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여 그 예산과 활동성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사적지를 국가 유산으로 지정하여 활용하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앞서 제기한 문제들이 원만히 합의되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5년 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에 전국의 모든 시선이 광주로 집중되었을 때, 광주가 대일항쟁의 핵심 지역이자, 정의로움의 도시로 강인하게 인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발상지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현장 보존과 활용' 실편지음

발간일: 2024년 11월 6일

발간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본 저작물의 판권 및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